

碩 士 學 位 論 文

한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 전략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의 투자전략 개선을 중심으로-

2005年

漢城大學校 디지털 中小企業大學院

디지털 中小企業經營 專攻

金 玟 洙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鄭 鎮 宅

한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 전략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의 투자전략 개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rategies of the Korean Enterprises for
Investments in China
- Focused on the Reform Measures for Investment Strategies of Small &
Medium Companies -

2005年

漢城大學校 디지털 中小企業大學院

디지털 中小企業經營 專攻

金 玟 洙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鄭 鎮 宅

한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 전략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의 투자전략 개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rategies of the Korean Enterprises for
Investments in China
- Focused on the Reform Measures for Investment Strategies of Small &
Medium Companies -

위 論 文 을 經 營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2004년 12월 일

漢城大學校 디지털 中小企業大學院

디지털 中小企業經營 專攻

金 玟 洙

金玟洙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4년 12월 일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이 중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기업의 투자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중국시장의 투자환경을 계약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제도적, 정책적, 법적 측면까지 다면화하여 광범위하게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해외 투자이론의 개념과 다양한 학설,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의 전략과 방식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외국인 투자환경을 분석해 보았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투자현황과 투자형태를 살펴 본 뒤 논문의 주된 관심인 대중국 투자의 향후 방향과 투자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투자 진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투자 환경 분석, 사업성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상세한 진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대중국 투자진출 기업은 투자규모를 적정화하여야한다. 전략적으로 자기자본의 투자금액은 최소화하고, 현지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의 재무전략을 현지 전문가를 통하여 수립한다.

셋째, 대중국 투자 진출에 있어서 단순히 무역 장벽의 회피나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 활용 등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진출보다는 실질적인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과감한 투자 진출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근래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는 ‘단독투자’가 바람직하다. 과거엔 현지 불명확한 법률규정과 현지 정부의 협조를 위해 ‘합자’를 선호했으나, 중국도 WTO가입 이후 모든 것이 투명해 지는 과정이라 경영을 우리식으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단독투자 형태로 진출이 확대되어야한다.

다섯째, 투자 진출은 철저한 현지화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글로벌화가 완성되는 것은 현지화가 따라줘야만 한다. 현지화 되지 않은 현지 기업은

외국 기업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투자 진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현지화는 장기적인 전략 계획 하에서 기업 내외부의 여건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 생산·판매 거점의 설립에서 지역 총괄 본부에 의한 경영 독립화 추진, 현지 법인의 주식 공개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현지화를 목표로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능력과 업종 특성, 현지국의 투자 여건, 해외 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인적자원의 현지화, 원·부자재 조달의 현지화, 마케팅의 현지화, 자금조달의 현지화 및 연구 개발의 현지화를 적절한 수준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유사한데다 아직은 미개척시장으로 인식되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간주하여 많이 진출하였으나 철저한 연구와 준비가 없이는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현실이다.

중국시장은 보기에겐 허술한 것 같으나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진입이 어려운 시장으로서 기존 진출한 각국의 크고 작은 기업들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중국 사업에 있어서 경쟁기업의 기술력 등 시장상황조사, 현지 진출기업의 사업능력 검토,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 및 법률 변화의 추이와 향후 가변성 등을 살피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중국이 미국, EU와 함께 세계 경제의 3축을 이루는 체제로 재편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부상은 한국에 있어서 또 하나의 경쟁국이 생긴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중국시장이라는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대응에 따라 중국시장은 발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반면, 이러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기업은 상호 시장개방의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내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는 중국진출이 선택이 아닌 기업성장을 좌우할 기회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있어서 중국진출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시장의 세분화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새로운 진출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어 지고 있다.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제2장 중국 투자의 이론적 배경	7
제1절 해외 투자의 이론적 배경	7
1. 해외투자의 개념	7
2. 해외투자의 특징	9
3.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의 관련성	11
제2절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 이론	12
1. 독점적 우위이론	12
2. 내부화이론	15
3. 절충이론	20
4. 제품수명주기이론	23
5. 과점이론	26
6. 거시경제적 접근이론	29
7. 자본시장접근이론	30
8. 국제자본이동론	33
9. 행동과학적 접근이론	34
10. 제국주의적 견해와 종속이론	35
제3장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과 특징	38
제1절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 유형	38
1. 우회 생산 기지	38
2. 내수 시장 개척	40
3. 산업 구조 조정	41

제2절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	41
1. 지역별	43
2. 업종별	46
3. 규모별	49
제3절 한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의 특징과 문제점	51
1. 중국 정부의 대외정책 변화	51
2. 한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의 문제점	54

제4장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전략 개선 67

제1절 대 중국시장 접근방식의 변화	67
1. 수출 지향형	70
2. 내수 지향형	72
3. 절충형	75
제2절 대중국 투자방식의 다양화 문제	79
1. 합자기업	79
2. 합작기업	81
3. 독자기업	83
제3절 대 중국 투자의 현지화 문제	85
1. 산업별 현지화 전략	86
2. 기술 수준별 현지화 전략	87
3. 소비시장별 현지화 전략	87
제4절 투자 분류 문제	90
1. 분류에 대한 기존 대응	90
2. 중재제도 이용 전략	91
3. 법률적 해결 전략	94
제5절 중국투자 시 중국법상 주의사항	96
1. 투자업종 투자형태선정단계	96
2. 양해각서 및 계약체결 단계	97

3. 법인설립단계	101
4. 분쟁단계	103
제5장 중소기업의 대 중국 투자전략 개선방안	106
제1절 중국진출 이전 단계의 투자전략 개선방안	106
1. 투자 목표의 명확화	106
2. 선행조사	107
3. 투자지역 선정	107
4. 투자형식 결정	108
5. 합자·합작의 파트너십 구축	108
제2절 중국진출 이후의 투자전략 개선방안	109
1. 인사 노무관리	109
2. 생산 관리	111
3. 재무, 회계, 준조세	111
4. 원가관리와 가격책정	112
5. 현지기업의 철수 전략	113
6. 경쟁우위의 확보와 유지 전략	113
7. 현지화 전략	114
제6장 결론과 전망	115
제1절 결론	115
제2절 전망	118
참고문헌	123
<부록 1>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128
<부록 2> 중국의 WTO가입 합의사항 이행사항 및 잔존무역장벽	135
ABSTRACT	141

표 목 차

<표 3-1> 국가별 대 중국 투자 금액	42
<표 3-2> 연도별 대 중국 투자 추이	43
<표 3-3> 한국의 대 중국 주요 지역별 투자 현황	46
<표 3-4> 한국의 대 중국 업종별 투자 현황	47
<표 3-5> 한국의 대 중국 제조업조별 투자현황	49
<표 3-6> 계획경제 사회주의경제 자유경제의 특징비교	55
<표 4-1> 분석지표	71
<표 4-2> 지표산출방법	72
<표 4-3> 중국 지역별 투자환경 종합평가	72
<표 4-4> 중국 8대 경제지역의 경제규모와 소득수준	75
<표 4-5> 중국진출 국내주요 기업현황	77
<표 4-6> 대 중국 투자 방식 비교	84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식수교에 합의 했다. 한·중수교가 정식적으로 수립된 이래 중국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한국 기업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대 중국교역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하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거대한 교역 잠재력을 가진 우리나라와 인접한 시장이므로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집약적 경공업품의 수출시장으로 그 동안 성장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미 경쟁 면에서 한국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 선진국 편향적 수출 역시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어 한국수출의 시장 다변화와 산업구조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새로운 전략수립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는 현상에 부응하는 주요 과제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국내 기업에게는 적극적인 해외 투자 진출을 통한 기업의 국제화와 세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중국 시장은 1979년부터 현재까지 1단계(1979~1983) 농업개혁시기, 2단계(1984~1988) 도시상공개혁시기, 3단계(1988~1991) 치리정돈(治理整頓)시기, 제4단계(1992~현재) 개혁심화·개방확대 등의 다양한 단계별 ‘경제개혁 정책’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해 오으로써 막대한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국내 기업이 진출하여 활용할 가치가 매우 큰 시장으로 부각되어 왔다.

국내 기업들도 중국에 투자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대중국 투자의 성과는 기대만큼 좋은 성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고, 정책의 일관성 결여, 정책 창구의 난립,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외국인에 대한 내국민 대우 미비, 선진 금융 시장의 미발달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 내부적으로도 중국 투자 경험의 미흡, 투자의 맹목적성, 부적절한 조직 구성 및 관리, 적절한 투자 전략의 부재 등으로 현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경제는 1979년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등소평 식 발전 모형에 따른 대외개방·개혁정책으로 아시아 경제가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1990년대 말에도 비록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연평균 7%~8%의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아시아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경제의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또한 최근 중국은 20년간의 지속적인 개혁·개방으로 연평균 9.6% 고성장률을 기록하여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경제·산업구조 측면에서 질적인 변화를 보임으로써 21세기의 중국경제의 모습이 세계의 생산기지로서의 기존 위상의 강화, 전반적인 산업분야의 추가 업종 개발 확대와 첨단산업의 유치 확대, 개방지역을 중심지역의 급 발전하는 중국의 산업지도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성되는 조짐이 역력하다.

한편 이러한 중국의 지속적인 개혁·개방정책은 외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꾸준히 증가시켜, 현재 중국을 세계 최대의 직접투자 자금 유입국으로 부상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중국 상무부 자료를 인용, 2003년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액은 44억 90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49%급증하였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총액은 471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0.2%증가하는데 그친 점을 감안할 때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이상 열기를 내뿜고 있다.¹⁾ 대중국 투자액을 국가별로 볼 때 한국은 2002년 5위에서 2003년에는 미국과 대만을 제치고 홍콩(157억 5000만 달러), 일본(42억 3000만 달러)에 이어 3위로 2단계 올라섰다. 미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2002년에 54억 2000만 달러에 달해 같은 해 한국의 2배에 달했지만 2003년에는 한국에 추월당했다. 대만도 2002년 한국보다 10억 달러이상 많이 투자했으나 2003년에는 이 금액만큼 한국이 앞섰다. 2004년 1월~6월에는 한국이 35억 2000만 달러로, 홍콩 108억 4000만 달러, 버진제도 37억 9000만 달러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²⁾

이처럼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중국 투자액은 1999년 12억 8000만 달러

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www.koreaexim.go.kr>.

2) 삼성경제연구소, 중국내수시장 공략의 성공조건, 2004, 11.24, 제477호.

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40억 달러대에 처음 진입하였다. 최근 4년 사이 투자액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³⁾

이와 더불어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러한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일컬어 질 정도로 각광받는 거대시장이다. 지난 1979년 이후 고속성장을 지속해온 중국경제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점진적인 소득증대에 따라 내수기반이 크게 확충된 가운데 중국정부의 경제정책도 그 동안의 노동집약 산업에서 기술집약 산업은 물론 정보통신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2001년 11월 중국의 국제무역기구(WTO) 정회원 가입 승인은 중국이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중국의 국제무역기구(WTO) 가입은 중국 경제의 세계 경제로의 편입과 과거 20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개혁·개방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 이제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 최대의 자본 시장으로 발돋움 했으며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현재까지 무려 2만여 개가 넘는 법을 개정하는 등 WTO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WTO가입으로 ① 수입시장개방, ② 내수시장개방, ③ 서비스 시장개방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시장개방을 하게된다. 수입시장개방 분야에서 중국은 우선 수입 관세를 인하하여 관세율을 WTO가입 당시의 13.6%에서 최종 년도인 2010년에는 9.8%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중 농산품(977개 품목)에 대해서는 19.3%에서 15%로, 광공업 제품(6,174개 품목)에 대해서는 12.7%에서 8.9%로, IT관련제품은 무관세, 화학품 및 화학제품의 관세를 0~6.5%수준으로 인하하기로하였다. 중국은 수출용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 또는 환급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실효관세율(관세수입/수입액)은 현재 한국과 비슷한 7.9%에

3) 김종현,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China21, Vol.19, 2004. 6, pp. 14-19.

불과하다. 내수시장개방 분야에서는 중국이 종래 투자허가조건으로 내세웠던 현지부품과 현지 원자재 사용요구, 수출입 균형요구, 기술 이전 요구 등을 철폐해야한다. 서비스 시장분야는 유통, 운송, 금융, 통신 분야에서 시장개방을 약속하였다. 이는 뒤집어 보면 지금부터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기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시장 진출을 주요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경제발전 단계와 산업구조 등에 비추어 한중간의 경제협력 및 교류의 잠재력은 풍부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경쟁우위를 잘 활용할 경우 많은 성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는 자국내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고자 2004년 10월 28일 인민은행이 9년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금리인상 조치 등으로 중국경제가 둔화되고, 그동안 급증해 온 세계 각국의 대중 수출에 영향을 줘 세계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금리인상과 더불어 달러화에 고정되어 있는 위안화 환율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당국은 변동환율제 채택에 앞서 국내여건을 고려해 위안화의 변동폭을 확대하거나, 여러 통화로 구성된 바스켓에 고정시켜 환율제도에 유연성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⁴⁾ 비록 이번 금리인상폭이 소폭이어서 당장 경제에 미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확인되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인상조치가 이어질 경우, 경기둔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국의 다음조치가 언제 있을지 그리고 그 파급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세계의 생산 공장 중심 기지로써 뿐 아니라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그 영향력을 과시할 중국시장에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진출은 필요성의 높아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기업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경기진정을 위한 시장중심적인 거시정책을 펼

4) 이성신, “중국의 금리인상과 환율제도 변경가능성” 나라경제 2004년 12월호, pp. 117-122.

쳐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중국 투자를 위한 장애로써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급증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경제정책과 금융시장을 파악하여 중국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 해외투자 추세가 대규모 투자보다 중·소규모 투자위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 진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대중국 진출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중국 진출은 이전 보다 더 주도 면밀하게 중국시장의 환경 변화와 위험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한 후 실행에 옮겨야한다. 특히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의 투자 진출 환경이 급격히 호전되고, 국내 기업의 대중국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으로 중국에 진출하여야 하고, 최근 들어 중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중국시장의 변화를 감안하여, 대중 투자 초기 단계에서부터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진출 방안이 모색된 다음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과 그에 따른 투자 환경에 대처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대중국 진출 전략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중국 시장의 투자 환경을 평가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투자 진출 전략과 투자 성과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공적인 대중국 투자 진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부의 중국투자정책과 대중국 투자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한국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중국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중국 진출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국내외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분석방법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분석한 중국시장 개방 및 중국시장의 규모와 특징, 외국 및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 특성을 요약·정리한 후, 2004년 하반기 세차례에 걸쳐 북경, 천진, 상해, 청도, 심천, 광주, 동관 지역의 각 경제특구를 방문하여 관련 중국 공무원과 중국기업 및 외자기업의 직원을 만나 선행연구의 자료를 비교, 분석, 확인 하였다.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중국 진출 전략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중국 투자의 이론적 배경으로 해외투자의 이론적 배경 그리고 대중 투자 이론과 중국 투자법 인식론 등을 기술하였다. 이는 중국시장 진입에 있어서 이론적인 기본배경을 제공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과 특징으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유형과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을 기술한 후,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특징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4, 5장에서는 앞의 제2, 3장에서 분석한 중국 투자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전략 개선방안과 실제 중국에서의 기업을 설립해서 철수까지의 현지 기업 경영을 통한 투자전략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었다.

제2장 중국 투자의 이론적 배경

제1절 해외 투자의 이론적 배경

1. 해외투자의 개념

1)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일반적으로 해외간접투자(international indirect investment)와의 비교에 의한 상대적 개념으로 정의된다. 즉, 해외직접투자나 해외간접투자는 국제간의 자본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후자는 투자하는 기업이 경영에 직접 참가함이 없이 주식투자의 경우에는 배당수익, 채권투자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을 바라고 투자하는 반면, 전자는 투자하는 기업이 경영에 직접 참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제일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2)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해외직접투자는 수출의 상대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즉, 수출이 자국 내의 생산요소들을 자국 내에서 결합하여 제품의 상태로 국경선을 넘어 해외로 이전시키는 것인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자국 내의 생산요소인 자본, 생산기술, 경영기술 등을 해외로 이전하여 그 나라의 생산요소인 노동, 토지 등과 결합하여 생산 및 판매를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⁵⁾

3) 해외직접투자와 간접투자

해외직접투자를 국제자본이동의 한 현상으로 보고 간접투자와 비교하는 것은 이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무역거래비용의 측면에서는 직접투자를 해외시장침투의 한 방법으로서 수출과 같은 제품

5) 최홍석·안종석, "중국해외직접투자 유치의 발전추이", 경제학논집 제8권 제2호, 1999, p. 45.

의 단독이동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생산요소나 완제품의 단독이동인 수출에 대립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간접투자에 대립되는 개념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해외직접투자의 개념을 정의하기로 한다.⁶⁾

4)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해외직접투자는 피 투자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가함을 목적으로 자본, 경영능력, 기술, 상표 등의 생산요소를 복합적으로 해외에 이전시키는 기업 활동이다. 국제간의 직접투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투자국의 입장에서 본 '해외직접투자'와 피 투자국의 입장에서 본 '외국인 직접투자'가 그것이다. 이 책에서는 투자국의 경영자입장에서 투자활동을 보기로 하고, 일단 해외직접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⁷⁾

다음에는 각 국의 실질적인 기준은 해외직접투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보기로 하자. 미국상무성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는 미국의 해외지분을 직접투자로 간주하고 있다. 첫째, 의결권주의 10%이상이 미국국민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기업, 둘째, 의결권 주 총수의 50%이상이 미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기업, 셋째, 미국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 넷째, 미국법인기업의 해외지사에 대한 투자이다. 일본정부는 원칙적으로는 일본 측의 자본참여가 25%이상이라는 최소지분비율을 택하고 있으나 경영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임원의 파견, 제조기술이나 원재료, 투입물의 제공, 재정적 원조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도 직접투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을 투자자, 투자방법, 투자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투자비율은 투자사업 수행에 적합한 비율(원칙적으로는 50%이상이나, 실질적인 경영통제권 확보의 경우) 이상이면 된다. 기타 주요국의 규정을 보아도 기본적인 공통점은 통제권 확보를 위한 일정비

6) 김미숙,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 15.

7) 이재원, “중국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투자진출방안”,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1994, p. 6.

을 이상의 해외지분을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2. 해외투자의 특징

위의 개념에 따른 해외투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⁸⁾

1) 경영지배목적

해외직접투자는 투자 동기 면에서 단순히 이자나 유동성 확보만을 지향하는 유가증권투자 또는 배당소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매입과는 달리, 해외 사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경영 지배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이익획득의 가능성은 직접투자에 있어서 중요 문제가 안 되며, 투자자본의 이자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직접투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채권이나 주식의 취득, 모든 종류의 단기자본투자, 이자나 배당금 위주의 장기투자, 사업목적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취득 등은 직접투자에 포함될 수 없다.

이와 같이 해외직접투자는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접투자와 구별된다. 그러나 주식투자의 경우 투자형태상 공통점이 많고 외견상 구분이 곤란하므로 경영지배권을 출자비율에 의해 구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보유를 직접투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출자비율 25%이상을 직접투자로 분류하고, 우리나라는 외국환관리법상 원칙적으로 50%이상을 직접투자로 분류하고 있다.

2) 직접경영을 위한 포괄적인 이동

해외직접투자는 그 구체적 형태면에서 단순한 화폐적 형태의 자본이동 뿐만 아니라 유형무형의 경영자원, 즉 외면상으로는 경영자를 중핵으로 하고

8) 홍성민,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투자성과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p. 24-26.

실질적으로는 경영관리상의 지식과 경험, 특히, 노하우는 물론 ‘마케팅’ 방법 등을 포함한 광범한 전문인 기술 지식, 판매, 원료구입, 자금조달 등 시장에 있어서의 지위, 상표 혹은 신용, 정보수집, 연구개발을 위한 조직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이전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이나 라이선싱과 구별된다.

한편 직접투자에 필요한 자본은 반드시 모기업의 거주지 국가로부터 이전될 필요는 없으며 필요자금을 현지국의 자본시장에서 조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의 기본성격이 이윤동기에 의한 현지기업의 실질적 지배에 있으므로 그 기본속성은 자본수출에 있으며 여기에 기타 유형무형의 여러 경영자원의 수출이 복합되어 있다 하겠다.

3) 현지생산을 위한 필요요건

해외직접투자는 자본의 수출인 동시에 기업의 수출로서 한 국가의 기업이 국내지향 및 해외지향경영에서 현지지향 및 세계지향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를 기업의 일반적인 성장과정에서 보면 기업은 생성초기단계에서는 국내시장개척에 주력하나, 기업이 성장하면서 국내 판매에서 야기되는 제 문제, 즉 시장의 제한성, 경쟁의 심화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출에 의한 해외시장개척을 도모하게 된다.⁹⁾ 이러한 해외시장개척에 의해 기업은 수출확대기에 돌입하나, 이 시기가 지나면 수입국의 제반 여건변화, 제 3국과의 경쟁심화 등의 이유로 인하여 현지생산에 의한 시장 기반확보 및 생산원가절감을 추구하게 된다.¹⁰⁾ 해외직접투자는 이와 같이 기업이 현지 생산기에 접어들면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는 다국적기업의 발생과 성장을 위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이 세계시장을 상대로 유기적 경영을 수행하는 세계지향기업에 있어서도 해외직접투자는 그 기본조건이 되는 것이다.

9) 선경일,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확대방안”,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1997, p. 31.

10) 박지연, “대중국 투자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세계경영대학원, 1996, p. 6.

3.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의 관련성

해외직접투자는 해외로의 생산요소의 복합적 이전이다. 그러므로 국내기업이 최초의 해외진출대안으로써 해외직접투자를 선택하여 상대국에 공장을 설립했다면 그 기업은 현지지향기업의 성격을 갖게 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개념이 된다.

지금까지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단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행위(act)로서의 직접투자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이러한 투자를 행하는 제도(institution)로서의 다국적기업을 강조하는 기업이론(theory of firm)의 확장에 의한 연구방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국적기업과 해외직접투자의 차이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해외직접투자는 정부 또는 개인과 같은 기업 이외의 경제주체(economic agent)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둘째, 해외직접투자는 다국적기업의 해외활동범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다국적기업의 해외활동에는 해외직접투자 외에도 수출이나 라이선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해외직접투자액은 다국적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지사의 자본만을 포괄하고 있으며 기업통제 하에 있는 모든 자원의 크기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서 다국적기업이 생성,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는 해외직접투자의 거의 대부분이 다국적기업에 의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나 다국적기업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양자는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이러한 구분이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¹¹⁾

11) 박내경,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합작투자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 13-18.

제2절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 이론

1. 독점적 우위이론

독점적 우위이론은 하이머(S. H. Hymer), 킨들버거(C. P. Kindleberger), 케이트스(R. E. Caves) 등에 의해 주장되고 발전되어 왔다. 동 이론은 현지 기업이 외국기업보다 현지의 제반 환경에 대해 본원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이 어떻게 이러한 현지기업의 본래적인 우위를 상쇄하고도 그들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해외 직접투자의 전제조건

첫째, 외국기업은 현지기업(local firms)이 본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갖가지 우위를 상쇄하고도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어떤 특정의 우위요소를 소유해야 하며, 둘째, 이러한 우위요소(특허, 지식 등)를 현지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불완전하다는 점에 대한 규명이 그것이다.¹²⁾

2) 독점적 우위요소의 개념

독점적 우위요소란 기업이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 기업내부에 축적해 놓은 자기기업 특유의 자산적 지식으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생산기술, 마케팅 노하우, 경영관리능력, 상표 및 특허권, 규모의 경제, 자본조달 및 관리능력, 수직적 통합의 경제성 등의 형태를 띠는 것들이다.

3) 독점적 우위요소에 대한 학자별 주장

가) 하이머의 주장

하이머(S. H. Hymer)¹³⁾는 현지기업이 외국기업보다 자국의 경제 환경에

12) 이영기, “한국기업의 대중국 합자투자에 있어서 지분구조, 경영통제 및 성과와의 관련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 8-14.

13) Hymer, S.,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s Firms: A Stud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76.

대해 훨씬 양질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함으로써 완전경쟁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기업보다 불리한 외국기업이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리한 점을 충분히 상쇄할 만한 능력을 소유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위요소라는 것이다.

나) 존슨의 주장

존슨(H. G. Johnson)¹⁴⁾은 우위요소들은 기업내부에서 공공재(public goods)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공재의 경우에는 자회사가 그것을 개발한 모회사에게 추가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다. 전형적인 기업특유의 공공재로서는 특별한 지식이나 기법 등을 들 수 있다.

다) 케이브스의 주장

케이브스(R. E. Caves)¹⁵⁾는 제품차별화 능력을 가장 중요한 기술로 들고 있다.

라) 허쉬의 주장

허쉬(S. Hirsch)¹⁶⁾는 R&D로부터의 지식이 가져다주는 우위를 우위 요소로 들고 있다.

외국기업은 현지기업이 이러한 기업특유의 우위요소를 획득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기업만의 독점적 우위를 이용하여 본국에서와 동일한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는 수평적 투자(horizontal direct Investment)의 경우 제품을 차별화 할 수 있으며, 산업구조는 과점적 형태를 띠게 되어 추가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때 이러한 기업특유의 우위요소(firm-specific advantages)가 해외 현지 국에서 충분히 활

14) H. G. Johnson,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15) R. E. Caves, "Research on International Business: Problem and Prospec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9, 1998.

16) S. Hirsch, "Foreign Investors from the Third World" in Kumar, K. & Mcleod, M. G. (eds.)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Lexington Books, 1981.

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기업내부에서 국경을 넘어 쉽게 이동될 수 있어야 하는데, 하이머는 독점적 우위요소는 기업내부에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한계 비용으로 이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독점적우위요소의 이용에 대한 설명

다음으로 기업이 이러한 독점적인 우위요소를 소유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그것을 외부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기업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이익적인 경우에만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가) 시장불완전성의 설명

이것은 시장불완전성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킨들버거(C. P. Kindleberger)¹⁷⁾는 해외직접투자를 신고전경제학의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제품과 요소에 대한 완전경쟁 상태 하에서는 국내 기업의 경영활동이 그들의 의사결정센터와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비해 우위를 갖게 되므로 해외직접투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을 포함하여 시장을 분리해 줄 수 있는 제품시장의 불완전성, 요소시장의 불완전성, 또는 경쟁에 대한 정부나 기업의 간섭 등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제품시장의 불완전성

제품시장의 불완전성에는 제품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 광고 등 마케팅기법 등이 포함되며, 요소시장의 불완전성 요인으로는 특허제도나 기술 획득상의 불평등, 규모의 경제요인으로는 내, 외부적 규모의 경제와 수직적통합의 이익 그리고 정부의 규제로는 조세, 관세, 이자율, 환율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모든 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생산과 마케팅에 대한 외부경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정보의 이용이 완전히 자유롭고 또 무역과 경쟁에 대한 장벽이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해외시장에 개입할 수 있

17) C.P. Kindleberger, *American Business Abroad*, Yale University Press, 1969.

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국제무역뿐이다.

② 요소시장의 불완전성

이와 같이 해외직접투자는 시장이 불완전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외국기업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특유의 우위요소를 현지기업에게 판매할만 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불완전성을 활용하여 자사의 독점적 우위(monopolistic advantage)를 가장 이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그 방법의 하나로 해외직접투자가 이용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 국제적으로 이동 가능한 독점적 우위요소를 활용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것이 반드시 이익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우위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해외진출에 소요되는 외국비용(cost of foreignness)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해외직접투자가 아니더라도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라이선싱하거나, 또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방식으로든 해외시장을 서브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경쟁에 대한 정부나 기업의 간섭

경쟁에 대한 정부나 기업의 간섭 등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국제적인 요소가격의 차이를 이용할 수 있고, 관세 및 수송비 부담을 피할 수 있으며, 현지의 여건과 기호에 보다 잘 부응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수익이 수출이나 라이선싱에 의한 수익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활용될 것이라는 것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¹⁸⁾

2. 내부화이론(The Internalization Theory)

시장내부화이론은 버클리 와 카슨(P. J. Buckley and M. Casson)¹⁹⁾ 그리고 러그만(A. M. Rugman)²⁰⁾ 등에 의해 주장되고 발전되어 왔다.

18) DRI, 『World Economic Outlook』, 2000, p. 3.

19) Buckley. P. J. and Casson. M., "The Optimal Timing of a Foreign Direct Investment." *Economic Journal*. Vol. 9, 1981

20) A. M. Rugman, "Theses on the Theory of the State" *New German Critique*

1) 내부화이론의 개념

이 이론은 다국적기업이 시장의 불완전성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시장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외부시장기능을 다국적기업의 체계 내에 내부화하여 내부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게 되고, 이와 같은 시장내부화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질 때 다국적기업이 출현하게 된다고 하는 이론이다.

여기에서 시장거래(arm's length transaction)란 거래가 외부시장에서의 소유권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장거래를 의미하며, 이와 대조적으로 기업 내부의 내부시장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개념상의 거래를 내부거래(internal transaction)라고 한다.²¹⁾

2) 학자별 주장

① 버클리화 카슨의 주장

ㄱ. 생산외적인 요인의 중요성

버클리화 카슨은 지금까지의 다국적기업이론들은 주로 생산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지식이나 숙련 등의 형태를 가지고 중간생산물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마케팅, 연구개발, 직업훈련, 경영팀의 구축, 자금확보 및 금융자산관리 등과 같은 생산외적인 요인을 도외시켰다고 주장하고 이들이 기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상기 모든 기업 활동은 상호의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간재의 흐름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서 기업의 중간생산물들은 통상 단순히 반제품이 아니라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이어지는 준 가공원료의 성격을 띤 것으로서, 전형적으로 특허나 인적자본 등에 체화된 지식 및 숙련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기업 활동이 효율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완전한 중간재시장이 필요하게 되는데, 특정 중간재 시장은 그 조직이 대단히 어렵다. 이와 같이 요소시장, 노하우시장, 금융시장, 원료시장 등이 불완전하

6. Fall, 1975, pp. 137-147.

21) 송유명, “한국기업의 대중국직접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pp. 15-16.

기 때문에 기업은 내부시장을 창출하여 이와 같이 불완전한 각종 시장을 우회하게 되며, 이 경우 시장으로 연결된 기업 활동에 대한 공동소유 및 통제를 수반하게 된다.

ㄴ. 내부화를 야기시키는 불완전시장의 발생요인

버클리 와 카슨은 최종재 시장의 불완전정보다는 중간재 시장의 불완전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내부화의 동기가 되는 이러한 불완전시장의 발생요인으로 서, 첫째, 제품의 특성 및 외부시장 구조와 같은 산업특유요소(industry specific factors), 둘째, 지리적, 사회적 특성과 관련된 지역특유요소(region specific factors), 셋째, 관련 국가 간 정치 - 재정상의 관계와 관련된 국가특 유우위요소(nation-specific factors), 넷째, 내부시장을 조직할 수 있는 경영 능력과 같은 기업특유요소(firm-specific factors)등을 들고 있다. 결국 시장내 부화는 이들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중 산 업특유적 요인은 중간재와 지식에 대한 시장내부화의 주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성장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ㄷ. 시장불완전성의 발생원인

또한 그들은 내부화의 동기가 되는 시장불완전성의 발생요인으로서는 첫째, 미래시장의 부재 둘째, 가격차별화가 불가능한 경우 셋째, 경쟁으로 인한 비용 및 사회적 불성실성의 증대 넷째,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차이 다섯째, 국제시장에 있어서의 정부의 간섭 등을 들고 있다.

② 코어스의 주장

코어스(R. H. Coase)²²⁾는 이미 오래 전에 기업은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거래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만일 기업 내에서 낮은 비용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면 기업이 시장기능을 대신하여 거래를 내부화하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③ 윌리엄슨의 주장

22) R. H. Coase, "Research on International Business: Problem and Prosec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9, 1998.

시장내부화이론은 윌리엄슨(O. E. Williamson)²³⁾에 의해서 더욱 계승 발전되었다.

3) 내부화의 유형

한편, 다국적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내부화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① 수직적 통합

다국적기업은 중간재시장을 내부화하기 위해서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을 추구한다. 중간재시장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은 이러한 불완전성을 이용하여 중간재시장을 내부화하게 된다. 중간재의 내부화는 기업이 그 생산라인에 원료를 공급하는 후방통합을 하거나, 또는 기업이 자사가 생산한 제품이나 반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공장을 다른 국가에 설립하는 전방통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자재 및 부품 공장 등 중간재를 조달하기 위한 모든 해외직접투자는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다국적기업은 수직적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원자재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내부화가 이루어지면 외부시장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위험이 훨씬 감소된다.

② 수평적 통합

다국적기업은 지식시장을 내부화하여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을 추구한다. 지식은 기업이 오랫동안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 축적해 놓은 하나의 기업자산으로서, 기업이 이러한 지식을 생산이나 마케팅에 도입시키는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지식이나 기술은 일단 그것이 개발되면 기업내부에서는 공공재(public goods)와 같은 성격을 갖게 되며, 공공재의 가격은 제로이므로 기업은 외부시장 거래를 통해서도 그 지식이나 기술 개발에 투하된 비용을 보상받지 못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지식이나 기술상의 우위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시장이나 기술시장을 내부화

23) O. E. Williamson, "The Markets and Hierarchies and Visible Hand Perspective." in A. Van de Ven and W. Joyce, Perspectives on Organization Design and Behavior, New York: Wiley, 1981, pp. 347-370

하여 이것들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독점함으로써 초기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③ 다각적 통합

다국적기업은 국제자본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본시장 기능을 내부화하여 다각적 통합(conglomerate integration)을 추구한다. 즉 다국적기업은 자체 내의 효율적인 내부시장을 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다국적기업은 다각적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위험을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레써드(D. R. Lessard)²⁴⁾는 다국적기업들은 자본시장이 불완전할 경우 자본시장 기능을 내부화함으로써 기존의 국내생산시설과 상이한 생산시설을 해외에 확대하여 다양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며, 이러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영업활동을 분산시킴으로써 위험을 극소화하고 수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국적기업은 이와 같이 국제적인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에 직면하여 위험분산효과를 제공해주는 자본시장의 기능을 내부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시장내부화이론은 다국적기업이 시장의 불완전성에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러그만은 시장내부화이론이 해외직접투자의 일반이론이라고 주장하면서 여타 해외직접투자이론은 본질적으로 시장내부화이론의 하위체계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사적소유가능성(전용)이론: 메이기

메이기(S. P Magee)²⁵⁾는 시장내부화이론과 유사한 사적소유가능성이론(appropriability theory)을 주장한 바 있다. 즉, 동 이론에서는 기술창출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다국적기업이 이익을 완전히 전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메이기는 다국적기업의 특성이 전문적으로 정보(기술)를 창출하는 데에 있다고 보고, 일단 자산적 첨단기술이 개발되면 다국적기업은 투

24) D. R. Lessard, Guidelines for Global Financing Choices, in Lessard, pp. 508-525.

25) S. P Magee, "The relative distribution of United States direct investment." *European Economic Review* 31, 1982, pp. 1137-1144.

자에 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게 되며, 첨단기술은 시장 수단(market means)보다는 내부경로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적 첨단기술을 기업 내로 흡수함으로써 자사의 기술이나 정보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3. 절충이론(The Eclectic Theory)

더닝(J. H. Dunning)²⁶⁾은 수출이나 해외직접투자는 기업특유의 우위요소(owner specific advantage), 내부화 우위요소(internalization advantage), 생산입지상의 우위요소(locational advantage)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절충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1) 기업특유의 우위요소

더닝은 먼저 기업은 자기만이 일정기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업특유의 우위요소를 소유해야만 그것을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기업특유의 우위요소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가) 기업의 다국적성에 기인하지 않는 우위요소

즉 기업의 규모와 산업 내에서 기존에 확보된 지위, 제품 및 공정의 다양화, 분업과 전문화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독점력, 자원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탁월한 능력 등 특정기업이 동일 입지내의 여타 기업에 대하여 갖는 우위요소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

- ① 자산적 기술, 특허 및 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등록상표
- ② 생산, 관리, 조직 및 마케팅시스템, 연구개발 능력 및 인적자본과 경험 축적
- ③ 노동, 천연자원, 금융, 정보 등과 같은 투입요소에 대한 배타적인 접근

26) J. H. Dunning, "Toward an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pring/Summer, 1980.

이나 보다 유리한 접근

④ 기업의 규모 또는 기업의 독점적 영향력에 힘입어 투입요소를 유리한 조건으로 획득할 수 있는 능력

⑤ 제품시장에 대한 배타적 또는 유리한 접근

⑥ 시장진입에 대한 통제 등과 같은 정부의 보호조치

나) 기존기업의 자회사가 신참기업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우위

① 유리한 가격으로 모기업의 경영, 관리, 연구개발, 마케팅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우위.

② 생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구매, 마케팅, 자본조달 등에 있어서의 공동 공급의 경제성(economies of joint supply)을 누릴 수 있는 우위

다) 기업의 다국적성에 기인하는 우위

즉 다국적성은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앞서서 우위를 누릴 수 있다.

① 정보, 투입요소, 시장에 대한 보다 유리한 접근과 양질의 지식습득

② 요소부존, 시장 및 정부의 개입 등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차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

2) 시장내부화우위요소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기업이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특유의 우위요소를 직접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이러한 우위요소를 외국기업에게 임대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더 커야한다는 점이다. 즉, 기업특유의 우위요소는 꼭 해외직접투자가라 할지라도 수출이나 라이선싱 등을 통해서도 이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특유의 우위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 그 자체는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조건에 불과할 뿐 결코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위요소를 내부화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여타 대안적인 방법에 의한 이익보다 더 큰 경우에만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 내부화에 따른 이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시장거래비용 및 협상비용 회피
- ② 재산권 보호를 위한 비용의 회피
- ③ 외부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술과 같은 투입요소의 성질 및 가치에 대한 구매자의 불확실성 제거
- ④ 외부시장에서 가격차별화가 불가능한 경우
- ⑤ 제품판매자로서의 품질관리의 필요성
- ⑥ 기업 간 상호의존적 활동의 이점
- ⑦ 미래시장의 부재에 대한 보충
- ⑧ 쿼터, 관세, 가격통제, 조세차별 등 정부의 개입 및 간섭의 회피 또는 이용
- ⑨ 경쟁업체 등에 대한 투입요소의 공급을 포함하여 투입요소의 공급과 판매조건 통제

3) 생산입지상의 우위요소

기업특유의 우위요소와 내부화 조건이 충족되고 나면 다음에는 이 요소들을 해외현지국의 생산요소와 결합하는 것이 국내생산보다 더 이익적이어야만 기업이 수출 대신에 해외직접투자를 선택하게 된다. 이때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적 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투입요소와 시장의 공간적 분포
- ② 노동, 에너지, 원재료, 부품 그리고 반제품 등의 투입요소 가격, 품질 및 생산성
- ③ 수송비, 통신시설 및 통신비용
- ④ 정부의 간섭
- ⑤ 새로운 관세장벽, 세율, 투자유인책, 투자여건, 정치적 안정성 등을 포함한 수입통제
- ⑥ 사회간접시설(상업적, 법률적 및 수송)
- ⑦ 언어, 문화, 관례, 관습 등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거리감
- ⑧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에 있어서의 경제성

이상과 같이 절충이론은 현재까지 개발된 이론들을 종합하여 해외직접투자를 기업특유의 우위요소와 내부화 과정, 그리고 이를 외국의 입지요소와 결합하여 설명하려는 것이다.

4. 제품수명주기이론(The Product Life Cycle Theory)

버논(R. Vernon)²⁷⁾에 의해 주장된 제품수명주기이론은 제품의 수명주기단계에 따라 매출액 및 수익, 목표시장, 경쟁, 생산비 등이 변화되어 가는 현상을 가지고 공산품의 해외직접투자를 규명하려는 이론이다.

제품의 수명주기는 통상 신제품단계(new product stage), 성숙제품단계(growth stage), 표준화제품단계(maturing stage)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신제품단계는 주로 해외생산의 초기입지, 성숙제품단계는 새로운 시장이 수출에 의해 공급되느냐 또는 해외직접투자에 의해 공급되느냐 하는 문제, 표준화제품단계는 현지기업과 비교한 해외생산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품수명주기의 각 단계별 특징과 각 단계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제품단계(new product stage)

통상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비용절감형 공정 등은 미국과 같이 기술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거나 또는 높은 소득수준 및 광활한 시장 등 수요측면의 제반 여건이 구비된 국가에서 가장 빨리 개발되는 경향이 있다.

일단 신제품이 개발되면 이러한 제품은 먼저 소득이 높은 선진국내의 고소득층에 의해 소비되고 국내수요가 충족되면서 점차 해외수요도 창출되게 되는데 이때 혁신국 기업인 미국기업은 기술격차를 이용하여 처음에는 통신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경제, 문화, 소득면에서 동질성이 가장 높은 유럽의 여타 선진국에 제품을 수출한다.

27) R. Vernon, "The 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In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Allen & Unwin, 1974, pp. 89-114.

이 단계에서는 제품을 계속적으로 적응하거나 디자인 및 제품기술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이 쉽게 표준화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생산과 마케팅간의 의사소통이 빈번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품을 시장이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경쟁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고 생산비가 약간 높은 것이 특징이다.

2) 성숙제품단계 (growth stage)

제품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 경험효과에 힘입어 비효율적인 제품디자인과 생산방법이 사라지고 융통성이 줄어들며 제품형태는 점차 안정되게 된다. 또 구매자의 지식이 증가하고 수요는 가격 탄력적이 되며 기업은 생산비에 훨씬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 기술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신제품단계에 비해 시장에 근접한 곳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며, 소득이 증대되고 규모의 경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날 때 시장이 확대된다.

한편, 성숙단계에서는 점차 혁신기업 이외의 여타 국내기업들도 기술을 쉽게 이용하거나 모방할 수 있게 되어 제품생산이 가능해지고 동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도 점차 증가하게 된다. 또 일정기간 후 세계시장에서의 수요증가와 더불어 유럽의 여타 선진국기업들도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며 점차 미국에서의 수입을 대체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미국기업은 국내에서의 한계생산비와 한계수송비의 합이 해외에서의 평균생산비를 상회하지 않는 한 여전히 수출형태의 해외시장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혁신국기업은 본국과 해외현지국간의 노동비용의 차이 때문에 결국은 현지에서의 해외직접투자가 훨씬 유리하게 된다. 이 시기에 유럽의 선진국들은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을 부축하게 되는데, 이때 미국기업들은 이와 같은 현지의 보호조치에 따른 기존 해외시장의 상실을 우려하는 한편, 유럽생산제품의 미국 내 역수입으로 인한 국내시장의 상실을 방어하기 위하여 수출보다는 유럽이나 여타 선진국에 자회사를 세워 해외생산을 개시하게 된다.

한편, 유럽의 여타 선진국들도 점차 기술을 습득하고 생산을 개시할 수 있

게 됨으로써 동 제품을 자급자족하게 되고 점진적인 기술개발과 수출시장의 확대, 규모의 경제 실현에 의한 원가인하 등에 힘입어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그 결과 유럽국가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점차 비교우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후진국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는 여전히 원혁신국으로서의 기술수준과 원가상의 우위 때문에 얼마간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하지만 점차 대후진국 수출도 점진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공급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이 후진국시장의 분할과 규모의 경제 저하에 따라 미국기업은 결국 국내시장만을 공급하게 되며 시장점유율은 점차 하락하게 된다.

3) 표준화제품단계(maturing stage)

표준화단계에 이르면 제품 및 생산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됨에 따라 가격경쟁이 심해지고 유럽선진국들도 점차 후진국의 기술습득과 저임금 및 수출 드라이브정책 등 때문에 경쟁에서 뒤지게 된다. 따라서 후진국에 대한 수출, 더 나아가서는 유럽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수출까지도 후진국이 담당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원혁신국기업은 본국에서의 시장지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후진국이 가격경쟁을 이용하여 제품을 원혁신국에 역수출하기 이전에 생산비가 저렴한 후진국에 생산시설을 미리 이전시켜 놓고 거기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것을 역수입하게 된다. 이때 후진국에 대한 원혁신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²⁸⁾

이상에서 살펴본 제품수명주기이론은 무역 및 투자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여타 선진제국에 대한 미국의 제조업 투자를 설명하는 데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버논(R. Vernon)자신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동시에 제품을 개발하고 범세계적으로 마케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수많은 다국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기술수준 및 수요형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모방

28) Frank Bradley, "International Marketing Strategy", Prentice Hall. 1995

갭(imitation gap)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론의 한계가 있다.

5. 과점이론(Oligopolistic Reaction)

닉커보커(F. T. Knickerbocker)²⁹⁾는 과점산업에 있어서는 차별화된 제품이나 동일제품을 취급하는 몇몇 소수 거대기업들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는 경쟁기업 상호간의 작용-반작용(action-reaction)에 의해 상호의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과점산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경쟁 산업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첫째, 과점산업하의 기업들은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이윤이나 성장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각 기업은 동일 산업 내 경쟁기업의 반작용을 숙고하게 된다.

둘째, 과점산업하의 기업들은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입장벽 (barriers to entry)을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과점기업들은 상대 경쟁기업의 움직임에 대단히 민감하며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선도 기업을 추종하는(follow the leader) 상호의존성을 취하게 된다. 동일 산업 내 과점기업간의 상호의존성은 과점의 본질이며 이로 인해 과점기업의 독특한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즉, 과점기업이 신제품을 도입시켜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또는 새로운 원료공급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경우 경쟁기업은 자기 기업에게 미치게 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선도기업의 이러한 행동(action)에 대해 즉각적인 반작용(reaction)을 보이게 된다.

과점기업의 일차적 목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여타 경쟁기업만큼 성장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상대적 성장률은 종국적으로 상대적 시장지배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점기업은 자사의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을 위협하는 경쟁기업의 행동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

29) F. T. Knickerbocker, *Oligopolistic Reaction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Harvard University, 1973.

이게 된다.

한편, 과점기업들은 동 산업 내에서 신참기업을 배제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구축함으로써 독점이윤을 누리게 된다. 가장 일반적인 진입장벽으로서는 신참 기업에게 과도한 자본투자를 부담케하는 내부적 규모의 경제, 수직적 통합을 통한 희소 원재료나 저렴한 원재료 공급에 대한 통제, 차별화된 제품 그리고 특허, 등록상표, 유명 브랜드 등의 지적자산 등을 들 수 있다.³⁰⁾

1) 과점적 대응책

먼저 과점적 대응책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X국의 과점산업에 A, B 두 기업이 있고 이 두 기업은 모두 유사하지만 차별화된 제품을 Y국에 수출한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이때 지금까지 수출로만 현지시장을 공급해 왔던 X국의 A기업이 Y국에 해외생산자회사를 설립한다고 가정하면 B기업은 A기업의 이러한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게 된다.

첫째, Y국에 진출한 A기업의 자회사는 현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보다 강력한 마케팅 노력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B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탈취할 수 있다. 만약 A기업의 현지진출이, Y국 정부가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나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B기업은 수출시장 전체를 상실할 수도 있다.

둘째, 만약 Y국에 새로 설립된 A기업의 자회사가 마케팅이나 생산의 통합을 통해 범세계적인 경영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라면 A기업은 B기업에 대해 범세계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A기업이 Y국에서 본국과 해외의 산업에서 경쟁적 균형을 와해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술, 제품, 인력, 지식상의 능력을 새롭게 획득하는 경우에는 B기업과 여타 경쟁기업을 경쟁적 열위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

이때 Y국에 투자한 A기업의 행동에 대응하여 B기업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A기업의 행동에 맞추어 자신도 Y국에 직접투자를 함으로

30) Baldwin, Robert E., "Determinants of Trade and Foreign Investment: Further Evidenc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1, 1979, pp. 246-250.

써 시장상실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인데, B기업은 비록 예상수익률이 낮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A기업의 수익률도 낮을 것이기 때문에 Y국에 투자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점기업들간의 경쟁은 결과적으로 과점산업을 특정 국가에 집중하게 하는 투자집중현상(bunching)또는 밴드웨건 효과(band wagon effect)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1950년~1960년대 미국기업의 대유럽투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닉커보커는 경쟁기업의 대응적 투자를 유발케 하는 최초의 투자에 대해서는 제품수명주기이론을 빌어 이를 설명하고 있다.

2) 내부적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다국적기업은 수평적 통합 또는 수직적 통합을 통하여 현지의 비 다국적기업이 달성할 수 없는 생산 상의 규모의 경제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이 특정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현지시장규모가 최적규모 공장(optimal size plant)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고, 단지 준 최적 규모의 공장(suboptimal size plant)만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다국적기업은 생산제품을 현지시장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의 자회사를 통해서 다른 시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최적규모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 현지자회사는 현지기업보다 단위당 생산비를 낮출 수 있고 동시에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다국적기업은 수많은 국가에서 수많은 제품의 국제적 생산특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비용이 낮은 지역에 생산시설을 설립함으로써 얻게 되는 우위와는 전혀 다른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3) 수직적 해외직접투자

수직적 직접투자는 기초제조 및 천연자원분야의 동질적 과점 하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특성으로서 철강, 알루미늄, 동,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는 모두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이다.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이와 같은 후방적 통합(backward integration)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이루어진다. 즉 ① 단순한 필요, ② 과점적 불확실성의 회피, ③ 과점적 대응, ④ 신참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의 구축, ⑤ 수직적 통합의 기술적 우위 등이 그것이다.

6. 거시경제적 접근이론

1) 고지마의 일본형 거시접근이론

고지마(K. Kojima)³¹⁾는 지금까지의 해외직접투자이론은 모두 이윤극대화 내지 시장점유율확대를 그 목표로 하는 미시적, 개별 기업적 관점에서 다루어져 온 결과, 다국적기업이 거시적 경제단위인 피 투자국과 마찰을 빚는 등 역무역지향적인 영향을 유발시키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해외직접투자를 거시적인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국과 피 투자국간의 잠재적 내지는 현시적 비교생산비를 기초로 하여, 투자국에서는 비교열위상태에 있으나 피 투자국에서는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서 이루어져야만 양국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있고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며 무역이 증대된다고 주장한다. 곧 이 이론은 해외직접투자를 국제 분업의 원리에 입각하여 추진해야만 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경제효율이 제고되며 국민후생이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 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직접투자를 미국형과 일본 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미국형 해외직접투자는 독점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역무역지향형 투자로서 미국의 비교우위를 약화시키고 고용감소를 유발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민경제활동의 일환으로서 첫째, 국내에서 불가결한 자원의 확보 둘째, 개도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는 기계설비, 반제품 등 생산재의 수출촉진 셋째, 노동

31) Kojima. K., "Macroeconomic versus International Business Approach to Direct Foreign Investment."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Vol. 22. 1982, pp. 1-14.

력 부족과 고임금 등으로 비교우위를 상실해가는 일본의 섬유, 잡화산업 등을 개도국에 이전하는 등 무역지향형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 오자와의 거시적 요인이론

오자와(T. Ozawa)³²⁾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생산요소의 희소성, 환경적 제약증대 및 자원공급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등과 같은 거시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거시경제적 접근이론은 해외직접투자가 미시적 관점에서 무역지향적이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투자국과 피 투자국이 공히 이익을 누릴 수 있다.

7. 자본시장접근이론

1) 통화지역이론 (Currency-Area Phenomenon)

알리버(R. Aliber)³³⁾는 통화지역이론에서 외국기업이 현지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위는 어떤 개별기업 특유의 우위가 아니라 특정 통화지역에 위치하는 모든 기업이 국내경쟁기업에 대해 공통적으로 갖는 우위라고 주장하고 투자국기업은 환율이나 통화가치의 차이 등에 있어서 피 투자국기업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조달 등의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투자국기업은 통상 강세 통화국 기업이고 강세통화는 장래 그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 약세 통화국의 피 투자국기업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차입이 가능하며, 이와 같이 차입비용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도 우위를 누릴 수 있고 동시에 보다 높은 순현재가(net present value)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

32) Ozawa. T., "Multinationalism Japanese Style: The Political Economy of Outward Dependency",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33) Aliber. Robert Z., "A Theor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A Symposium*. Cambridge. Mass., 1970, pp. 17-34.

장이다.

반면 약세 통화국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한 환위험(exchange risk)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통화 프리미엄(currency premium)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강세 통화국 기업보다 차입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통화 프리미엄이란 상이한 통화로 표시된 고정가격의 자산에 대한 이자율의 차이가 예상 환율변화를 상회하는 경우 그 차이를 의미한다.

또한 자본화율(capitalization rate)에 있어서도 강세통화지역 기업, 즉 투자기업의 소득은 피 투자국기업의 소득보다 훨씬 높은 자본화율로 자본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본화율의 차이는 상이한 통화로 표시된 소득의 흐름에 대해 시장이 각기 다른 자본화율을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투자국기업은 대부분 자본화율이 높은 국가에 소재하는 기업이며 피 투자국기업은 그 반대에 해당된다.

이 이론은 1950년~1960년대의 미국기업의 유럽기업 인수, 그리고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일본기업의 동남아시아기업 인수 등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를 단순히 환율만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과 동일 통화지역내의 해외직접투자(예: 미국기업의 달러지역에 대한 투자)와 통화지역간의 상호교류투자(예: 미국기업의 대 유럽투자와 동시에 유럽기업의 대미투자)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그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2) 자본시장불완전이론

라가지(R. Ragazzi)³⁴⁾는 자본시장불완전이론은 해외직접투자의 요인을 통화의 안정정보다는 오히려 자본시장 자체의 불안정성에서 찾으려는 접근방법이다. 즉, 그는 완전경쟁적 조건하에서는 모든 국제자본이동이 증권투자의 형태를 취할 것이므로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은 이러한 가정을 뛰어넘어 분석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의 상호관련을

34) R. Ragazzi, "The determinants of U.S. direct investment in the EEC." *American Economic Review* 59, pp. 558-568.

통하여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찾고자 한다.

자본시장 불안정의 전형적인 예로서 통화의 과대평가를 들 수 있다. 특정 국가에서의 현 환율에 의한 교역재의 생산비가 평균적으로 여타 국가에서보다 높을 때 특정 통화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정의한다. 이와 같이 통화가 과대평가되면, 외환시장에서 다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본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로 인해서 저평가된 통화로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이익창출기회가 생기게 된다. 그 동안 국제교역제품의 생산을 저 평가통화국에 위치시키고 과대평가된 자금으로 소득창출자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게 된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환율이 균형잡히게 되면 해외직접투자 흐름이 중지된다고 하는 것이다. 더 더욱 외국투자자는 해외자산을 판매하여 이익을 획득하고 국내생산으로 돌아오게 된다.

해외직접투자는 평균수익률이 높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자본시장 불안정가설인데 그것은 일정수준의 위험 하에서 자산에 대한 수익률은 증권시장의 비효율성 때문에 증권자본흐름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균등화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물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투자흐름을 통하는 길 뿐이다. 즉 각국의 금융 및 증권시장이 완전하다면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본이동에 대한 국제적인 제약, 증권시장의 비효율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증권시장을 이용하기보다는 그 대안으로서 직접투자를 선택하여 위험을 회피한다는 것이다.³⁵⁾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증권시장 때문에 간접투자의 방법으로는 외국투자가 불리하므로 자본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는 자본시장이 불완전한 국가에 직접투자를 하고, 반대로 자본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자본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에 간접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35) Davidson. W. H., "The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ctivity: Country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 Effec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11, 1980, pp. 9-22.

8. 국제자본이동론

페이어웨더(J. Fayerweather)³⁶⁾는 국제무역이론에서의 자원개념을 전통적 생산요소인 입지, 자원, 노동 등의 세 가지 요소에 기술, 경영기법, 기업가능력을 더하여 훨씬 광의의 개념으로 주장하고, 국가 간에는 이들 자원의 수요와 공급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 제자원이 국제적으로 이동되게 되고, 경영자원의 국제적 이동이 다국적기업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해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기업은 그 성장과정을 통해 각종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생산의 효율성, 조직능력, 판매 등의 분야에서 그 기업의 경영자원으로 축적되며 직접투자는 다국적기업이 경영주체로부터 쉽게 분리되지 않는 이러한 경영자원을 국경을 넘어 활용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게 된다. 그런데 경영자원은 한계생산력이 낮은 지역으로부터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직접투자가 발생한다고 본다.

또 다른 자원수급상의 차이에 대해 정부의 조치나 정책 등이 자유로운 경제력에 의해 결정된 자원수급상의 차이를 왜곡시키거나 다국적기업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게 되며, 이러한 사업기회에 부합하기 위해 이동자원의 종류, 국가의 선정, 이동방법의 선택 등이 특정 다국적기업의 특성과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종합컨대 세 가지 요소, 즉 자원의 차이, 정부의 조치, 기업의 특성 등이 국제자원이동에 있어서의 다국적기업의 활동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본다.

이 이론은 국제무역이론과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행동모형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으며, 과점적 우위를 광의의 기술자원에 포괄시킴으로 과점적 요소를 해외직접투자의 자극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자원수급상의 차이와 외국기업의 진입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36) J. Fayerweather, "The location of overseas production and production for export by U.S. multinational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2, 1982, pp. 201-223.

국제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동 이론은 다국적기업의 자원이동 역할이 국내기업의 자원이동 역할과 두 가지 점에서 명백히 다르다고 보고 있다. 즉, 그것은 다국적기업은 범세계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국가 간의 자원의 차이에 관심을 갖게 되며, 특히 국가 간의 자원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국의 제도적 인 제약요인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서 동 이론은 기술적인 독점력의 존재가 경영자원의 한계 생산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조건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이론은 소규모기업에 의한 직접투자도 설명이 가능하며, 또한 동일 분야에 있어서 두 나라간 해외직접투자의 상호 교류 현상도 설명될 수 있다. 즉, 투자방향은 국제간의 평균이윤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투자기업은 피 투자국의 당해 산업의 평균 이윤율이 투자국에 있어서의 평균이윤율 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경영자원의 차이에 의해 높은 이윤을 실현할 수 있다면 직접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기업의 독점적 요소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다른 생산요소의 부존상황, 무역장벽, 세제상의 차이, 통화가치의 차이 등도 해외직접투자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 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국제 간 경영자원 배분과정에서 생성하게 된다고 하는 점이다.

9. 행동과학적 접근이론

아하로니(Y. Aharoni)³⁷⁾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기업내부적인 동기와 기업외부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때 기업내부적인 동기로는 기업 내 최고경영자의 강한 이해를 들고 있고 기업외부적인 동기로는 첫째, 외국정부나 자기 기업제품의 유통업자, 기업의 고객 등과 같은 외부적인

37) Y. Aharoni, *Investment Strategies and the Plant-Location Decisions: Foreign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Praeger, 1982.

원천으로부터의 제안, 둘째, 시장상실의 위험, 셋째, 밴드웨건 효과(band wagon effect), 넷째, 해외로부터의 본국시장에 대한 강력한 경쟁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직접투자는 반드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동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초투자는 해외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조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내부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최고경영자가 개인적인 승진이나 이익에 부합되도록 투자를 결행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유도해 간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일반적으로 경영자는 자기들에게 익숙한 기업환경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때 전술한 외국정부나 고객의 제안, 경쟁기업의 해외진출, 국내시장의 경쟁심화 등 외부의 자극이 생기게 되면 외국투자를 위한 투자 안을 작성하게 되고, 투자 안이 작성되면 그것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해외투자가 착수되면 이제는 해외투자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느끼게 되며 곧바로 자신의 승진과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이 성사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행동과학적 접근방법은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하는 동기 및 과정을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으며,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외국투자를 위한 하나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으로 볼 수 있다.

10. 제국주의적 견해와 종속이론

신 제국주의적 견해와 종속이론은 세계경제를 독특한 시각에서 관찰하고 직접투자를 정치경제학적 견지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그 내용이나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크게 구분하여 신 제국주의적 견해와 종속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1) 신 제국주의적 견해

신 제국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기업의 국제화 및 다국적기업은 자본주의 기업이 피할 수 없이 택해야 할 숙명의 길로 보고 있으며 선진자본주의 기업은 다국적기업을 통하여 해외착취활동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다. 즉, 자본주의 기업의 특성은 개별기업을 끊임없이 확대하도록 강요하며 이와 같은 확대로 인해 자본이 축적되고 점차 자본이 소수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투자확대와 자본의 소수지배는 세계시장 확대와 더불어 다국적기업만 이 수행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 이렇듯 폐쇄된 자본주의 경제는 유효수요의 부족과 불충분한 사업기회로 인해 부득이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하고 직접투자는 이러한 잉여자본의 출구로서의 수단이 되며 동시에 피투자국을 착취하는 수단이 된다는 주장이다.³⁸⁾

2) 종속이론

종속이론에서는 해외직접투자를 경제적 종속의 범세계적 지배체계의 결과인 동시에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즉, 길핀(R. Gilpin)³⁹⁾등에 의하면 국제경제 시스템은 일종의 계층적 구조로서 지배적인 중추(core)와 종속적인 주변(periphery)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

중추는 세계경제에 있어서 국제은행의 역할, 국제무역 메커니즘을 창설하고 조직하는 역할, 자본의 제공에 의해 국제경제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추는 힘이나 성장기회 제공 등을 통해 주변국가에 일정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 19세기 영국과 식민지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을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중추 국들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자본적, 기술적, 경영적 지배를 유지하면서 자원산업이나 제조업에서는 그 중심을 주변국가로 이동시킨다고 한다. 그리하여 중심-주변 양경제는 불공평한 종속관계를 이루게 되며 해외직접투자는 이러한 종속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연결 쇠 역할을 하게 된다고

38) 왕윤중,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성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39) R. Gilpin,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New York: Basic Books, 1975.

보고 있다.

이상의 이론들은 해외직접투자를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고 해외 직접투자가 반드시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다는 정치·사회적 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점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사회주의국가 이외에서 활동하는 구소련 및 동구권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자본주의국가의 다국적기업들이 사회주의국가에 진출하는가 하면 중국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개방하는 등 사회주의국가들의 실용주의 노선 채택에 따라 그 설득력이 약화되어가고 있다.

제3장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과 특징

제1절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 유형

1. 우회 생산 기지

중국은 러시아 동부,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을 잇는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이 동북아 경제권은 21세기에 세계 여러 지역 경제권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교역량이 많은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그만큼 중국에 생산 거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은 위치적으로 볼 때, 남쪽으로는 홍콩·베트남·라오스·미얀마, 남서쪽으로는 인도·부탄·네팔·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북쪽으로는 타지키스탄·키르기스탄·카자흐스탄 및 러시아 연방, 몽골과 접해 있으며 동북지역의 남쪽으로는 북한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동쪽과 동남쪽은 한국·일본·필리핀·브루나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해 있다.

또한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생산비 절감이기 때문에 현지 생산비의 상승추세는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현지 내수시장 진출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덜할 수도 있으나 수출위주의 업종인 경우에는 임금상승요인뿐만 아니라 빠른 지가 상승과 과다한 운송비용, 추가적인 금융비용 및 인맥이나 관계의 구축에 필요한 간접비용의 부담을 총비용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⁴⁰⁾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증대에서 비롯되는 임금상승은 차지하고라도 중국이 주택제도의 개선 등 사회복지제도를 개혁하면서 수익자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금까지도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주택수당 형태로 기업이나 지방정부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부담해 왔다.

40) 김태환,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 15-20.

따라서 이것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도변화의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기존의 적립금과는 별도로 주택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영기업도 아직은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적용되지는 않으나 고급인력의 채용 시에 이미 주택제공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이미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중국도 외국 투자기업의 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 산업을 외국기업에게 개방하면서 중국은 부동산 사용권의 분양을 통한 자금조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일반 개도국들이 개발과정에서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외자기업을 유치해 온 경험과는 다른 정책적 측면이다.⁴¹⁾

한편 육로 및 해상운송 비용과 금융비용의 추가 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출업체 공동으로 운송비 인하를 요구하는 움직임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출대금의 네고가 통상적으로 늦어지고 있어 결국 유동자금의 과다 보유에 따른 금융비용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 이것들은 일본이나 대만계기업에서도 공동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용부담 요소들이다. 특히 간접비용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개혁·개방이 빨라지면 외국인 기업들이 집중된 지역일수록 간접비용의 부담은 적어진다. 이것은 상당 부분의 문제들이 시장이나 제도 또는 그동안 외국 투자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자본주의적 관례에 의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²⁾

예컨대 광둥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은 공개된 비용은 비싸지만 간접비용을 포함한 숨겨진 비용은 오히려 작을 수 있다. 개방이 대체로 1989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강이북지역에서는 반대로 공개비용은 낮은 편이지만 숨겨진 비용의 부담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있다.

41) 최백렬, 『해외투자론』, 대경, 2003, p. 27.

42) 한국무역진흥공사, 『중국』, 2001, p. 25.

2. 내수 시장 개척

중국은 인구가 많고 지역이 광대할 뿐만 아니라 급속한 경제발전, 사회주의체제의 영향 등 다양한 요인으로 다른 나라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시장 환경상의 특성과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외자기업의 활발한 제조업 투자와 중국 기업들의 생산력 급증으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고 있다. 소비재에 있어서도 동부 연해 지역에 경제성장에 따라 구매력을 갖추게 된 소비계층이 두텁게 형성되고 있으며 중서부 내륙지역으로도 서부대개발 정책 하에서 경제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상당한 잠재 소비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거대 내수시장의 존재는 세계의 투자를 중국으로 끌어당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시장이다. 중국은 보유자원이 풍부하고 내수 시장이 거대하여 해외경기 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는 독자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외 경제개방도가 낮은 데다가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혼합된 체제적 특성으로 정부의 경기 조달능력도 비교적 높다. 세계시장의 불경기로 인한 수출 침체를 내수 진작을 통해 완충시킬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⁴³⁾

현재 중국 투자의 목적이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 위주에서 중국 내수시장 공략으로 바뀌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내수비중은 41.7%(한국에의 수출비중은 16.6%)로써 외환위기 이후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내수비중이 그 이전에 진출한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⁴⁴⁾

43) 장소해, “중국의 외국 직접투자기업의 입지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 22-24.

44) 정상은, “중국내수시장 공략의 성공조건”,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2004.

3. 산업 구조 조정

1991년 11월 중국의 국제무역기구(WTO)가입으로 한국은 그동안 쌍무협상과정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여있던 것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의 전반적인 교역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라운드 등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다자간회의에 중국은 개도국의 사실상의 대표로 참가해 개도국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중국에 투자하는 구미기업에 대해 고기술, 고부가가치 부품지역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생긴다. WTO가입을 계기로 중국 진출 외자기업은 부품을 보다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최근 부품을 중국 국내에서 조달하는 의무도 없어졌고 WTO 가입을 계기로 수입관세도 인하되었다.⁴⁵⁾

따라서 구미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부품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한국 부품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국의 대중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한국의 기업의 대중 투자도 확대되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금융, 유통, 통신 등 서비스업도 개방된다. 즉 한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확대된다. 아울러 해외자본의 대 중국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도 촉진되는 데다 법과 제도의 투명성도 높아지는 등 대 중국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이다.⁴⁶⁾

중국의 WTO가입을 통한 경제 성장률 증대효과를 0.5%~1%로 추정하고 있다.

제2절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

중국은 2004년 한국 기업의 최대 투자국으로 외환위기 이후 주춤했던 우

45) 정인교, “중국 WTO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1.

46) 宋海波·許榮, 『中國加入WTO對上市公司的影響』, 企業管理出版社, 2000.

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는 2002년 이후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중국 투자는 1996년 8억 9,300만 달러에서 1999년 3억 4,80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가 2003년 13억 5,700만 달러로 급증하였다. 2004년 1월~9월 투자는 14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0.8%증가하였다. 또한 현재 중국에 투자한 국가들 중 우리나라는 투자금액에서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2004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는 35.2억 달러로 홍콩(108.4억 달러), 버진아일랜드(37.9억 달러)에 이어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이 중국령이며 버진아일랜드가 조세 도피처임(Tax Heaven)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1위 투자국임이 틀림없다.

<표 3-1> 국가별 대중국 투자 금액

(단위: 억 달러)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1-6월
1	홍콩(155.0)	홍콩(178.6)	홍콩(177.3)	홍콩(108.4)
2	미국(43.8)	버진제도(61.2)	버진제도(57.8)	버진제도(37.9)
3	버진제도(38.3)	미국(54.2)	일본(50.5)	한국(35.2)
4	일본(29.2)	일본(41.9)	한국(44.9)	일본(29.5)
5	대만(22.9)	대만(39.7)	미국(42.0)	미국(24.3)
6	싱가포르(21.7)	한국(27.2)	대만(33.8)	대만(18.9)
7	한국(14.9)	싱가포르(23.3)	싱가포르(20.6)	케이맨제도(15.4)

자료원: 삼성경제연구소

중국은 2002년부터 한국기업들의 최대 해외투자 대상으로 부상하였으며, 2004년 현재 우리의 대중투자 건수와 금액은 10,729건과 97억 3,822만 달러로 매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현지투자기업과 모 기업간 거래확대로 수출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연도별 대중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 연도별 대중투자 추이

(단위: 건, 천 달러)

연도	신고기준		투자기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88	2	3,400	1	10
1990	39	55,624	24	16,174
1992	269	223,113	170	141,127
1994	1,065	824,858	841	633,084
1996	925	1,953,625	733	901,210
1998	317	895,841	263	678,050
2000	905	931,699	766	615,058
2001	1,125	992,787	1,033	579,992
2002	1,520	2,022,846	1,334	895,040
2003	1,749	2,545,368	1,622	1,300,612
누계(2004.9)	12,602	16,341,807	10,279	9,738,224

자료원: 수출입은행

1. 지역별

중국의 직접투자 유치율 지역별로 살펴보면, 매우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역정책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중국은 1979년 대외개방을 시작하면서 지역경사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동부연해지역처럼 비교적 경제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지닌 지역을 먼저 개발하여 이후 이 지역이 다른 지역의 발전을 선도한다는 불균형 지역성장 정책이었다.⁴⁷⁾ 이러한 정책에 따라 중국정부는 원자재의 대량수입과 제품의 국제시장 대량수출에 유리한 연해지역에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였고, 그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이 지역의 우수한 노동력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높인 후 다시 외국에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 발생한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은 중국경제 성장에 문제점으

47) 최홍석·안중석, "중국해외직접투자 유치의 발전추이", 경제학논집 제8권 제2호, 1999, pp. 318-319.

로 지적되기도 하는데 1979년부터 1992년까지 중국이 유치한 직접투자액 중 92.1%인 903.51억 달러가 동부연해지역의 10개 省·市에 집중되어 있었다.⁴⁸⁾ 하지만 1995년 6월까지 외국인의 연해지역투자는 6.4%증가한 반면, 중부지역의 투자는 무려 9.6%가 증가되었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남부연해지역의 인건비의 상승, 중국 중서부지역의 교통발달, 물류환경의 개선, 중국의 산업구조정책 및 지역분포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중서부지역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한국 기업의 대중국투자는 산둥성, 북경시, 천진시 등 환발해만과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동북 3성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은 지리적인 근접성, 재중조선인 밀집여부, 재한중국인의 연고, 대북한 접촉의 지리적 이점, 지방정부의 외자유치정책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요녕성에는 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고, 심양과 대련에는 중국의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흑룡강성에는 각종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⁴⁹⁾ 천진의 경우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천진 경제기술개발특구내에 한국전용공단을 조성하였는데, 천진 경제기술특구관리위원회가 각종의 우대조치를 취함으로써 한국기업의 진출이 용이한 면이 있었다.⁵⁰⁾

한국기업이 대중국 직접투자 지역을 기업의 규모와 관련시켜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산둥성에 대한 투자집중도가 절대적인데, 이는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한중항로의 개설, 재한 중국인의 고향이 산둥 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 30대 기업의 경우 외국 업체와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 중국에서 비교적 경제발전이 활발한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일수록 산둥, 요녕, 길림성의 비중이 높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정보력부재, 인력부재, 자금력 부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기업의 투자는 대체로 동북 3성(요녕, 길림, 흑룡강 지역), 화북

48) 송유명, “한국기업의 대중국직접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p. 57-58.

49) 김병순, “한국 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동기와 투자전략”, 한국북방학회논문집 제7권, 2000, pp. 336-337.

50) 이범걸, “대중국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연구 제16집, 2000, p. 210.

지역(하북, 하남, 산둥, 산서, 섬서 지역), 산둥성, 화동지역(절강, 강소, 안휘, 상해 특별시 지역) 화남지역(북건, 광둥, 해남, 대만지역)의 5개 권역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중국 투자에서의 비중이 97%이상으로써 여타지역으로의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동북 3성과 산둥성내 투자비중이 66%로서 광둥성, 북건성, 상해시, 강소성 등 화중·남지역 투자가 많은 홍콩, 대만 기업들과는 뚜렷한 투자패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4년 9월말 투자건수는 1위 산둥성(3,822건), 2위 요녕성(1,621건), 3위 천진시(957건), 4위 강소성(787건), 5위 길림성(725건), 6위 북경시(701건), 7위 상해시(554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투자금액은 1위 산둥성(27.3억 달러), 2위 강소성(15.7억 달러), 3위 천진시(10.3억 달러), 4위 북경시(9.9억 달러), 5위 요녕성(8.4억 달러), 6위 상해시(7.1억 달러)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동지역의 개방 확대와 경제성장 등 비즈니스 환경개선 요인에 따라 2002년 이후 강소성에 대한 투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화북지역에 대한 투자는 북경을 중심으로 내수시장 진출형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천진지역에 대한 가공무역투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⁵¹⁾

51) KOTRA, "중국 및 상해 경제동향", 중국지역본부·상해무역관, 2004. 11.

<표 3-3> 한국의 대 중국 주요 지역별 투자 현황

(단위 : 천 달러, %)

지 역	2001년				2002(1~6월)			
	허가기준		실행기준		허가기준		실행기준	
	투자 건수	투자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산 동	453	330,871	417	175,062	220	179,307	201	80,853
강 소	70	138,916	61	68,342	46	93,617	43	51,715
천 진	83	129,472	82	97,973	54	50,711	51	29,847
상 해	81	61,664	69	29,299	57	38,225	53	28,588
요 녕	146	68,995	135	34,461	83	92,350	63	27,627
북 경	66	47,387	64	12,819	33	35,120	30	24,181
절 강	34	46,541	35	26,209	21	57,775	20	23,529
광 동	37	50,704	30	13,478	20	29,438	18	18,271
북 진	7	2,550	7	2,913	6	22,555	6	15,488
호 북	1	90	1	90	1	7,000	1	6,910
하 북	24	11,759	21	5,958	15	11,881	16	4,406
길 림	61	24,493	54	14,310	27	15,258	21	3,094
안 휘	1	65	1	65	3	11,200	3	1,930
흑룡강	25	7,223	22	2,074	10	2,536	10	1,730
산 서	2	1,586	1	140	2	3,740	2	745
기 타	25	33,270	22	29,729	6	14,407	6	1,727
합 계	1,116	956,036	1,022	512,922	604	665,120	544	320,59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2. 업종별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특징을 업종별로 보면,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주로 제조업 즉 2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995년 상반기 2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2천억 달러이며, 그 중 방직업에 대한 투자가 709건에 15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기에 주로 투자국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사양 산업이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으로 이전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중국정부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각종이 혜택을 축소하고 있으며,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각 국의 중국에 대한 서비스업, 건축, 과학·기술연구,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1999년 잔존투자기준으로 보면 3,642건에 3,324백만 달러로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비제조업 부문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투자 비중별로 볼 때, 부동산 투자비중이 27.5%로 가장 높고, 조립금속 분야가 그 다음으로 16.7%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 기업규모에 따라 5대 기업과 중소기업들을 비교해 보면 5대 기업은 기계, 장비 등 장치산업에 투자한 반면, 중소기업은 조립·금속, 섬유·의복, 신발·가방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특화하고 있다.⁵²⁾

이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에 있어 대기업의 기계, 장비, 자동차 산업을 제외하고 단순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한국의 사양 산업이 중국으로 다수 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4> 한국의 대중국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		2002(1~6월)	
	투자 건수	투자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제 조 업	408	277,575	653	329,901	884	481,358	462	272,397
광 업	3	3,567	5	743	1	259	1	2,109
건 설 업	3	12,450	2	16,275	4	651	5	19,132
도소매업	13	1,359	27	13,490	41	12,667	22	4,162
운수창고업	3	1,972	2	603	2	1,832	3	785
통 신 업	1	1,544	2	265	1	300	1	23
금융보험업	-	-	1	218	0	0	1	350
숙박음식점업	10	5,259	11	54,523	19	2,800	8	2,545
부동산 및 서비스업	7	32,535	42	15,045	63	11,064	36	16,768
기 타	0	40	0	400	0	0	0	0
합 계	454	337,207	751	378,660	1,022	512,922	544	320,59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52) 강준영, 『중국진출전략 대특강』, 중앙M&B, 2003.

전체 중국투자에서 제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중국 투자의 32%정도가 집중되어 있는 산둥성의 경우, 제조업 비중은 90%이상이고 광둥성에서는 그 비율이 무려 93%이상에 달한다. 우리나라 총 해외투자실적내 제조업의 점유비율이 63% 수준임을 감안하면 중국 내 제조업 투자비중은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투자가 국내 생산비용 상승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시기별로 보면, 1993년도에 93%였던 제조업 비중은 1994년~1997년에 들어서 85%정도로 현저히 낮아졌으나 국내 외환위기의 영향이 한창이었던 1998년~1999년 기간 중에는 다시 93%정도로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다른 업종보다 제조업체들이 외환위기 중 경영사정이 보다 크게 위축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종래 중소기업들의 주도했던 제조업 투자는 다른 분야와 비교해 소액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대기업들의 대형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투자금액이 커지고 있다.

제조업을 제외한 부문에서도 도소매업, 부동산, 숙박음식점 부문의 투자가 많으나 그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도소매업 투자는 1994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국내 금융위기 직후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00년 이후 중국의 점진적인 유통업개방 확대추세에 따라 다시 증가하고 있고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중소기업들의 진출도 활기를 띠고 있다. 이밖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건설업, 통신업 등은 업종의 특성상 프로젝트 당 평균 투자액이 전체 평균액을 훨씬 앞지르고 있고 특히 통신업은 중국의 통신시장 개방 움직임과 함께 우리 업계의 투자진출도 확대일로에 있다.

또한 최근 신발 및 가죽,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기타 제조업 등 주로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과 비금속광물 등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중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5> 한국의 대중국 제조업조별 투자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

	섬유/ 의복	석유화학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기계/ 장비	전자통신	수송기계	합계
금액	936 (13.1)	783 (10.9)	509 (7.1)	435 (6.1)	581 (8.1)	1,754 (24.5)	735 (10.3)	7,167 (100.0)
건수	1,632	697	282	184	800	1,118	366	8,224

자료: 중국상무부(2004년 3월)

3. 규모별

대중국 직접투자를 규모면에서 파악해 보면 전체적으로 건당 250만 달러 이하 소규모 투자에 편중되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의 94.4%가 이러한 소규모 투자에 해당하고, 반면에 30대 기업의 직접투자 규모는 350만 달러 미만이 43.9%이지만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5,000만 달러 이상도 대규모 투자 건수도 상당히 있다. 건당 투자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전자, 시멘트, 철강, 건설 등 주요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와 함께 섬유, 신발 등 특히 소규모 제조업 부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 임금인상, 생산직 기피현상 등의 원인으로 국내 산업이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자 100만 달러 미만의 신발업, 완구, 의류 등 소규모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중국과 같이 저임금이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기업들의 중국 진출 현황을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로 사례를 들어 정리해 보았다.⁵³⁾ 한국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다. 한국의 2002년 중국투자액은 9억6500만달러로 역대 최고를 세운 이래 2003년 14억

53) 김희섭 · 안상미, "중국진출현황", 조선일보 제26106호, 2004

7900만달러, 2004년 10월까지 14억200만달러를 투자했다. 이 같은 대중 투자 규모는 전세계 모든 국가를 통털어서 으뜸이다. 실질적으로 한국이 최대 중국투자국인 셈이다. 한국기업들은 중국과 수교 이전부터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방식으로 광둥성, 산둥성 등에 진출했다. 1980년대 말 산둥성은 투자사절단을 한국에 보내기도 했다.

산둥성은 단일성으로는 최대 투자지역이다. 지금까지 투자건수(3,800건)나 투자액수(27억달러) 모두 1위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후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기업환경이 좋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산둥성은 섬유 의복, 신발, 부품, 음식료 등 중소기업들이 대거 진출했다. 중소기업 위주라서 건당 투자금액이 71만달러로 평균(91만)달러에는 못미친다.

2004년 10월 현재 총 누적 건수별 투자 순위 지역은 산둥성 1위, 다음으로 2위 요녕성, 3위 천진시, 4위 강소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총 누적 투자금액별 투자 순위 지역 역시 산둥성이 1위이다. 산둥성 다음으로 2위 강소성, 3위 천진시, 4위 북경시, 5위 요녕성, 6위 상해시, 7위 절강성, 8위 광둥성, 9위 길림성, 10위 흑룡강성 순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중국 남동부 마오쩌둥의 고향인 호남성은 투자 건수는 적지만, 건당 평균투자액이 705만 달러로 전체 1위를 차지해 주목받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자, 통신장비, 섬유 의복, 석유화학, 수송기계 등 제조업이 84%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건설, 통신업은 1회 투자에 200만~300만달러를 투자규모가 크다. 투자건수로는 중소기업이 70%이상으로 압도적이지만, 규모면에서는 대기업이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평균 투자액은 대기업 890만 달러, 중소기업 56만달러선이다.

LG는 광둥성과 강소성, 천진시에 전자 및 화학공장을 두고 상해, 베이징 등 대도시를 공략하고 있다. 삼성의 전자계열사 역시 천진과 강소성의 소주에 몰려들어 복합제조단지를 이루고 있다. 대기업이 주도하면 중소기업이 뒤따라 진출한다.

포스코는 대련, 산둥성, 청도, 광둥성 순덕 등에서 스테인레스 강판 등 철강 제품을 생산한다. 중국이 최대의 철강 소비국으로 떠오른 점을 중시, 중국 현

지에 제철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자 지역별 대중투자는 연안에서 내륙으로 이동하는 북상 추세에 뚜렷하다. 1980년 ~1990년대에는 광둥성 등 화남지역이 노동집약적 제조업 기지로 각광 받았다.

최근에는 상해, 강소성, 절강성 등 화동지역으로 투자가 몰리는 추세이다. 이 지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첨단 산업 기지화 하면서 소비 시장과 1인당 소비수준이 최고로 꼽히는 지역이다. 2004년 10월 현재, 2004년 투자금액도 강소성이 3억5600만달러로 가장 많고, 산둥성, 북경시, 요녕성 등 동북지방이 뒤를 이었다.

중국진출 초기에는 인건비, 토지가격이 싼지역에 공장을 지었지만 최근엔 중국 내수시장 공략 차원에서 산업 인프라가 좋고 시장성이 큰 곳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요녕·길림·흑룡강성 등 동북지역은 최근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동북지역 국유기업들은 민영화·외자유치에 적극 나서는 추세다. 요녕성의 심양·대련은 직할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동북지역은 연안 지역보다 임금이 낮지만 고학력자 비율이 제일 높고 노동력 수준도 좋은 편이다. 소비패턴도 고급으로 바뀌고 있다. 동북3성은 중국 동포가 많이 살기 때문에 언어소통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동북지역이 화남·화동·화북에 이어 제4의 성장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중소기업의 중국진출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가방은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유아용품 업체아가방은 ‘소황제 마케팅’ 덕분에 중국 현지 매장은 작년 70개에서 2004년 121개로 늘었다. 북경·천진 일대 9개 백화점에서 아가방은 유아복 매출 1위다. 중국 내 16세 이하 아동 3억명 중 34%가 외동아들·딸 즉 ‘소황제(小皇帝)’다. 2003년 중국의 아동복 판매량은 10억벌, 판매액은 500억위안(67조5000억원 상당)으로, 2002년보다 8% 늘었다.

아가방은 ‘소황제’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소재·디자인·유통망에서 중국 업체와의 차별화에 중점을 뒀다. 아가방 본사에서 한국매장 인기 상품을 중

국 법인에 보내면, 중국인 디자이너가 현지 취향에 맞게 변형시킨다. 유아용품 거리매장을 중국에 처음 선보이기도 했다.

밀폐용기 생산업체 (주)하나코비는 2002년 베이징과 상하이(上海) TV홈쇼핑·체험 마케팅을 통해 중국에 첫발을 내디뎠다. 도자기·플라스틱 그릇에 익숙한 중국 소비자들에게 밀폐용기의 장점을 알리기에 홈쇼핑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하나코비는 상해 이마트 1·2호점, 까르푸 등 대형 할인점까지 중국 유통망을 확장했다. 2004년 11월 상해 중심가에 직영 ‘프리미엄 이미지숍’을 열었다. 홈쇼핑과 대형 할인점에서 제품을 보여주고 체험토록 한 마케팅이 효과를 거뒀다.

(주)신원의 여성복 브랜드 ‘씨(SI)’는 지난 7월 중국 중신그룹 계열사 ‘중신심천공사북경공사’와 조인식을 갖고 중국에 진출했다. 최근 ‘한류(韓流)’를 브랜드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탤런트 김태희씨를 한·중 양국에서 전속모델로 기용했다. 신원은 씨(SI)의 전속모델로 선정된 김태희씨는 한·중 양국에서 높은 인기를 누려 광고모델로 선정했다.

생활용품 생산업체 피죤은 최근 대학교수를 중국 마케팅 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 피죤은 중국 이동통신 진출 전략, 중국 소비자 조사 등 중국 관련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한 마케팅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영입하여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피죤의 대표상품인 섬유유연제는 세탁기가 있는 도시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산층 이상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한국과 왕래가 많은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

국내 치킨프랜차이즈 점포‘BBQ’를 운영하는 (주)제네시스는 중국 시장을 교두보 삼아 세계 상위그룹의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3년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한 BBQ는 상해에 6개점을 열었다. 2004년 12월 중국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에 맞춰 2005년에는 다점포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처럼 한국 중소기업들이 거대 중국시장에서 맹활약하여 중소기업들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고 있다.

제3절 한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의 특징과 문제점

1. 중국 정부의 대외정책 변화

1979년 제 5차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법’이 통과되어 해외 직접투자의 법적지위가 보장된 이래로 중국은 점진적으로 개방을 이루어 왔다. 1980년까지 남동연해 지역의 광둥성과 복건성의 심천, 주해, 하문, 산두 네 곳에 경제특구가 설치되었으며, 1984년 14개 연해지역과 해남도에도 경제특구가 확대되었고, 1985년 장강삼각주, 주장삼각주 및 하문·장주·천주 삼각지대의 경제개발 삼각지구가 외국인에게 개방되었다.⁵⁴⁾

등소평의 선부론에 입각하여 동부연해지역의 우선발전을 추진하는 불균형 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1980년 경제특구 설치→1984년 14개 연해개방도시 설치→1985년에서 1987년까지의 연해경제 개방구 설치→1988년 해남성 경제특수설치→1990년 포동개발→1992년 전방위 대외개방정책 등을 실시하였다.

1986년에는 제품수출기업과 선진기술기업을 지정하여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투자장려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었고, 1988년에는 연해지역 경제발전전략에 제기되어 1988년부터 1989년까지의 대중국직접투자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후 대중국 투자는 1989년 6월 천안문사태이후 다소 주춤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991년 중외합작기업법과 외국인 투자기업법이 수정되고 1995년에는 국무원의 대외경제무역합작부에서 중외합작기업법실시세칙 및 기타 법률을 비준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1994년에는 ‘외자기업 투자재산 감정관리 조례의 제정’등 규제강화, 세제개혁, 제도변경, 우대정책의 수정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계약기준으로 건수는 전년 대비 43.0% 감소한 47,549건, 금액은 전년 대비 25.8% 감소한 826.80억 달러에 그쳤다.

54) 최홍석·안종석, "중국해외직접투자 유치의 발전추이", 경제학논집 제8권 제2호, 1999, p. 308.

총계약액에서 실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79년~1982년에는 19.4%에 불과했으나 1985년 28.0%, 1990년 52.9%로 1983년 이후부터 1990년까지는 그 비율이 50%를 상회하였다. 하지만 1991년부터는 그 비율이 감소하여 50%를 밑돌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투자가 대형화됨에 따라 투자가 상당한 기간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출자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중간의 직접투자는 1988년 민간차원의 교류증가로 시작된 이래, 2000년의 833건, 6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투자기준으로 볼 때 2001년 5월까지의 총 누계 액이 총 신고 기준으로는 6,684건의 80.78억 달러에 이르는 한국의 해외투자액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⁵⁵⁾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급증하게 된 이유는 중국정부의 대외개방정책과 향후 중국경제의 잠재력을 인정한 내수시장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한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의 문제점

중국 경제는 1979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속박을 벗어나 ‘시장경제’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과도체제를 실험하면서 적지 않은 난제에 봉착하고 있다. 우선 ①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제도적 관점에서 이념과 현실의 갈등을 토대로, 중국식 시장경제 체제의 또 다른 일면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② 중국 경제의 과도체제에 따른 한국기업의 일반적인 중국투자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끝으로 ③ 한국기업이 중국에 실질적인 투자 시 겪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기로 한다.

우선 계획경제, 사회주의 경제 및 시장경제의 특징을 비교해 보고 중국 사

55) 장행복, “중국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KOTRA 아카데미, 2004.

회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표 3-6> 계획경제, 사회주의시장경제 및 시장경제의 특징 비교

특 징	계 획 경 제	사회주의시장경제	시 장 경 제
발전목표	정치구호를 통한 경제 발전 추진으로 사회주의의 우월성 발휘	사상해방, 생산력 발전을 통한 경제발전으로 사회주의제도 공고화	경제자유추구, 최고의 경제효과 발휘를 통한 국민복지 달성
자원배치	지령성계획과 행정명령으로 자원분배	국가의 거시조절하에 시장이 자원분배에 대한 기초적 작용 발휘	공개적 시장에서 경제법칙에 따른 자원배치
정부기능	극권통제 정부와 기업이 분리안함	정부가 계획, 인도, 협조, 감독 기능 정부·기업 분리	정부는 법령제정·자·보호·재판자 기능만 보유
계획성질	지령성계획	지도성계획	경제계획
시 장	자본주의 요소로 치부하여 존재를 인정치 않음	시장체계 육성에 중점	모든 경제활동이 시장을 통해 진행
경 쟁	평등주의	제한적 적자생존	적자생존
가 격	정부통제	시장가격 위주의 가격체계	시장이 결정
경제기초	전민소유제	공유제를 주체로 각종 경제성분 병존	사영기업 및 일부 국영기업
재산소유제	공유제	공유제 주도	사유제
취 업	국가 안배	근로자의 자주적 직업선택	직업선택 자유
기업리스크	정부와 사회 공동부담	기업과 개인	기업과 개인
재부(財富)분배	평균주의	노동에 따른 분배위주 일부 선부(先富) 인정	효율추구 빈부차이는 복지정책으로 극복
법 률	인치 경향 권력>법	법제화 방향 발전	완전한 경쟁원칙과 법률체제

1)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 고찰

중국을 과거의 계획경제시기부터 반드시 관찰해야하는 규정된 불변의 가치목표를 고수함으로써 최근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

제의 여러 현상은 덩샤오핑의 ‘발전주의’ 정책에 따른 고도 성장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 되어 나타나고 있다.⁵⁶⁾

중국은 앞에서 언급한 일련의 모순이 공존하는 국가이다. 중국은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한국기업이 중국 투자에 앞서 이러한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제도적, 현실적인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해야한다.

첫째, 농촌문제이다. 중국의 공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나, 중국 인구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농촌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소득 면에서만 보더라도 도시 근로자와의 격차가 최고 10배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이농현상에 따른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생산력 저하 등 농촌 문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산적해 있다. 개혁·개방전에는 소득불평등도를 판단하는 지니계수가 0.16으로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미국과 비슷한 0.45로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국유기업의 개혁 문제이다. 최근의 정리해고를 통한 실업사태의 확산과 금융권부실대출의 주범인 대형 적자 국유기업의 개혁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지방정부 권한의 확대 역시 문제이다. 지방 세력의 강화는 각 지방간의 맹목적인 경쟁, 중복투자 그리고 출혈성 외자유치 등 비 경제적인 현상을 출현시켰으며, 지방경제의 배후에 있는 중앙지도급의 인사들을 입김 등으로 정치적 불안이 야기 될 소지도 다분히 있다. 구조적인 문제 밑에 내재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누적에 따른 위험도 상당히 큰편이다. 일반적으로 당해연도의 재정 적자가 GDP의 3%이내, 누적 적자가 GDP의 30%이내이면 재정적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유 상업은행들의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 사회보장기금의 채무 및 각 시정부, 현정부, 향정부, 촌정부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인 채무를 포함하게 되면 이미 정부의 적자 규모가 50%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격차의 확대

56) 강준영·전병곤, 『한권으로 이해하는 중국』, 지영사, 2004, p.244.

도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동부연해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정책과 선부론 영향에 따른 구조적인 현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부 대개발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또한 도시 내부에서의 소득격차 분화가 지역격차 심화 폭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는 사회이원화 추세도 문제이다. 만약 이러한 양상이 장기간 지속 된다면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중국 경제가 과열되고 건전한 법률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중들이 모두 경제 활동을 통한 수익에 열을 올리게 됨으로써 각종의 경제부패가 창궐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형 부패까지 출현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민심을 유리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다섯째, 중국기업의 금융자산 부실비율은 높다. 정부의 발표로는 22%~25%에 이른다지만 실제로는 40%~45%가량이 부실화 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국영기업의 상당수가 사실상 부도·파산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외환 시장을 개방하려면 중국의 4대국유상업은행(공상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한다. 중국 정부는 수 년전에 4대 금융자산관리공사를 세워 4대국유상업은행의 불량채권 1조 4천억 달러를 처리해준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경영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4대 은행이 쌓아온 불량채권은 이미 은행 총자산의 20%를 넘어섰으며, 자본금 총액을 훨씬 넘어선 상황이다.

여섯째, 중국은 비효율적인 경제구조의 문제점이 있다. 중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 정상적인 중복투자의 결과 공급과잉 사태에 이르렀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04년 상반기 600여개종 상품중 공급과잉 품목이 513종(85.5%), 수급균형 87종(14.5%)이었으며 수요부족 품목은 전혀 없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중국의 경제규모 대비 자원·에너지 이용의 비효율성이 크다. 명목 GDP기준으로 중국의 경제규모는 세계시장규모의 4%를 점유하고 있으나, 자원의 경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철강 30%, 석탄31%, 시멘트40%, 산화알루미늄 25%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은 1달러 해당의 GDP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 소모량을 보면 일본의 11.5배, 프랑스와 독일의 7.7배, 영국

의 5.3배, 미국의 4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2) 사회주의 경제체제 과도기에 따른 한국기업의 투자시 문제점 고찰

중국 경제의 시장체제가 과도기적인 각종 현상들이 일부 병폐로 바뀌어 중국 진출 투자기업의 발목을 잡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중국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적응하기 힘들다. 최근 중국정부는 외환관리체계, 세수제도, 관세규정 등 각종 제도정비에 노력하고 있으나 집행과정에서의 신중성 부족, 홍보 부족, 법조문 번역오류 등으로 인해 현지기업 경영에 많은 애로가 되고 있다. 과거 어느 투자기업은 한국공장을 폐쇄하고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한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와 컴퓨터설비 등에 대한 100% 관세부과로 결국 중국에서 설비를 새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개혁개방의 진척이 빨라지고 2001년 11월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에 따라 중국정부는 국제관례에 부합되는 일련의 제도와 규범을 제정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섬외세수제도, 해관관세의 규정 등에 상응한 수정을 하여 이러한 수정에는 중국에서의 투자에 대한 불리한 요소도 존재한다. 그 외 한국 투자자에 불리한 정책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중국 국내의 현존하는 정책의 다양성도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에 많은 불편을 가져다주었다.

중국은 과거 계획경제 시기나 향후 시장 경제체제의 자원을 최대 공유화하려는 공유제 원칙, 노동량에 따른 소득 분배의 원칙, 경쟁의 잔혹성을 배제하고 약자를 돕는 단결원칙, 모든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안전감을 갖게 하는 안전원칙, 전체이익이 국부이익에 우선하는 5대원칙이 있다. 이러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공유제 원칙과 이익주체간의 모순이다. 공유제의 원칙은 소유권의 모호화를 불러일으킨다. 다음은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과 이윤 장려 정책의 모순이다. 이윤

자극은 반드시 소득 격차를 초래한다. 그러나 노동에 따른 분배는 기업경영의 실적에 관계없으므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제, 즉 경쟁체제를 통해 뒤쳐진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안정과 단결은 인민 취업의 보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정부가 기업의 도태를 방관할 수 없는 근본적인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가치 기준의 혼재로 인한 중국정부의 정책 집행의 혼란은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중국의 투자 기업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둘째, 정책창구의 난립으로 경영이 어렵다. 외자기업을 관할하는 부서가 여러 개 있어 한국기업들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지에 노래방을 설립한 어떤 투자기업은 소방부서의 지시에 따라 2층 옆문에 비상계단을 설치하였는데 며칠 뒤 도시 계획부에서 나와 도시미관상 부적절하다며 그 비상계단을 철거해 버리는 바람에 곤혹스러워 한 적이 있다.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력부족으로 일주일에 2일은 단전이 되어 공장의 가동중지가 불가피한 지역도 있고 공장수도관의 고장 신고 후 3일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등 사회간접자본의 미비가 투자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중국은 장기적인 계획경제하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행정 간섭을 많이 하고 관계부문이 남발하여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중국정부기관에서도 기업을 위한 서비스관념이 미약하여 한국기업이 중국에서의 투자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셋째, 근거가 모호한 각종 준조세 성격의 비용징수가 방임되고 있다. 명확한 규정에도 없는 각종 비용징수가 방임되고 있어 경영에 애로를 주고 있다. 일부 농촌지역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현지정부에서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갖가지 명목으로 비용을 징수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예로 한 한국투자기업이 기숙사에 에어컨을 설치하였는데 환경 관리부서에서 찾아와 소음유발에 대한 책임으로 비용을 부과하였다. 문제는 이 기업은 교외에 위치하여 거주 지역에 대한 소음유발과는 관련이 없는데도 외자기업이 이해할 수 없는

비용징수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은 내수 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면서 소유자금 조달을 위해 국채발행을 늘리는 한편, 세수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은 기업의 직접적인 탈세행위 단속은 물론, 종전에는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하던 부분까지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일부 투자기업들은 세무사를 잘못 만나서 생각지도 않았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분쟁처리에 있어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현지투자기업들은 종업원의 공장제품 및 비품 유출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다. 15개 한국투자기업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참가기업 전부가 이러한 내부절도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였다. 이 경우 한국 투자기업과 중국 종업원간 분쟁의 해결에 있어 현지정부는 한국투자기업의 이익보호에는 소극적인 반면 중국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더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타 현지 공공요금이나 진료비 등을 지불할 때 외국인관광객이 아닌 현지기업인들도 중국인의 몇 배나 되는 비용을 치르고 있어 불만요인이 되고 있으며 현지자금조달이 쉽지 않고 내수판매기업의 경우 자금회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적어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미 시장 경제의 메카니즘이 경제를 운영하고 있고 법제화를 통한 제도 정비에 힘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공산당은 표면적이라도 사회주의 제도의 유지에도 그 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중국의 시장경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임을 항상 유의하여야한다. 중국은 시장경제적 개혁·개방과 함께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4개의 기본 원칙인 사회주의 노선의 견지, 인민민주독재의 견지, 공산당영도의 견지,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 사상의 견지를 병립시키고 있다. 시장 경제를 중국적 상황에 맞는 이론으로 끝없는 시행착오를 통해 의도에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면 중국의 현실에 맞게 개선하면서 재창조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수용과정과 재창조 과정이 한국기업의 요구에 맞지 않는 형태로 운영될 소지도 적지 않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쟁 처리의 공정성 결여도 같은 맥

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대중국 투자 경험이 부족하고 진출한 선진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에서 열세이다. 중국 투자환경의 미비문제는 중국진출 외국계 기업이라면 모두 직면하게 되는 문제이다. 한국투자기업들은 이러한 공통의 문제 외에 후발주자라는 약점을 갖고 있다. 한국이 본격적인 투자를 개시한 1990년대 들어 중국의 부동산가격, 인건비, 소비재물가 등이 폭등이라고 할 만큼 인상됨에 따라 개방 초기에 들어와 정착을 한 외국기업에 비해 진출이 늦은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경쟁적 중국진출에 따른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 우대조치의 철회 역시 투자진출 초기단계에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불리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대중국 투자경험의 부족도 약점이다. 미국, 일본, 유럽의 세계적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시장을 공략할 때 무역→기술합작→직접투자의 단계를 거쳐 왔기 때문에 10여 년 간의 경험축적을 통해 투자에 따른 시행착오가 적었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은 이러한 단계를 거칠 여유가 없이 바로 투자를 감행함에 따라 중국시장과 투자환경에 대한 지식의 부족, 합작파트너 물색의 어려움 등으로 투자실패사례가 많았다. 또한 한국기업은 투자초기부터 세계적 다국적기업들과의 경쟁에 직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그들의 경쟁상대는 중국기업밖에 없었고 이미 다년간 중국시장 진출경험의 축적을 통해 강한 경쟁력으로 중국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었다. 중국기업들도 몇 년간의 대외기술협력 등으로 인해 내수시장에서 일정 수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대한 경험과 유통망도 없고 대중국 인맥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맨주먹으로 맞서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3) 한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에 대한 문제점 고찰 및 대책

지금까지의 중국 경제의 발전 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개혁·개방이후의 중국에서는 이론 보다는 실질을 앞세우는 형태로 경제가 운영되어 시행착

오를 많이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 진출 및 중국투자에 앞서 미리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망한 투자 대상 지역이다. 1990년 이후 매년 아시아 개도국 해외직접투자 유입의 30% 이상이 중국에 집중될 정도로 중국에 대한 투자 열기는 대단하다. 최근 UNCTA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까지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총 4479.7억 달러로 미국 · 영국 · 독일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2년 한해를 기준으로 보면 총 527억 달러를 유치하여 세계 제 1위의 외국인 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하였다.

더구나 2001년 11월 중국의 WTO 가입으로 시장선점 전략을 구사하는 구미 선진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한 구미 기업들의 투자도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중국 투자는 점차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분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대중국 투자의 중요성을 겉으로는 끊임없이 강조해 왔었지만 사실 실제 대중국 투자는 IMF 이후 수년간 오히려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1998년 이후 최근까지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중국에 투자하려는 한국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중국에 대한 정보부족이다. 중국 진출 시 투자 관련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희망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투자전략 수립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고, 결국 중국투자의 직접적인 실패요인으로 연결된다. 치밀한 사전정보 수집 및 준비가 없이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되면서 원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부 한국 기업들은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경제적 보완성 등으로 인해 유럽이나 일본 기업보다 중국에서 사업을 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러한 낙관적 태도는 어느 정도 무모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

국과 중국의 문화적 배경은 비슷하지만 수십 년간의 단절과 정치, 경제 체제 차이는 문화적 유사성을 훨씬 뛰어 넘는 애로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한국은 유럽과 일본 등 중국 시장에 조기 진출한 나라들이 갖은 중국 시장에 대한 경험을 갖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 또는 경쟁사가 중국에 투자하면 덩달아 투자하는 경솔함과 무모함을 보였으며 이는 사업타당성 조사조차도 관심 밖의 일로 치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중국을 아직도 중저가품 시장으로 인식하고 국내에서 도태된 기술과 설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오류를 반복함을 물론, 저가품 공급과잉과 유사품이 난무하는 시장 무질서의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중국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의 투자유치정책과 우대정책 그리고 입지조건, 시장상황, 인력 및 원자재 수급 등의 사전조사항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투자기업의 목표와 투자현지의 파트너와 이해타산이 맞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견상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투자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둘째, 최근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전체적으로 투자 건당 규모가 줄어 들고 있다. 이는 점차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의 평균 투자 건당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투자 건당 규모의 축소는 투자 협상 과정에서 기업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게 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공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더구나 중국 정부도 점점 소규모 투자보다는 자국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건당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외국기업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활발하게 시작된 1991년 4,327건이었던 것이 2003년 9,21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투자액에서는 1991년 약 45억 달러에서 2000년 약 80억 달러로서 건수보다는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수의 증가에 비해 전체적인 투자액은 낮다는 것으로, 투자 건당 규모가 줄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 내에서의 한국의 경제력을 높

이기 위해서는 건수보다는 투자액을 높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양적인 증가보다는 질적인 개선을 통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주로 노동집약적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부문의 많은 기업들이 한국 국내의 생산비용 상승 등 투자 환경 악화로 인하여 생산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들은 주로 중소기업으로서 대부분 원자재와 핵심부품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공한 후 한국이나 제3국에 수출하는 진출형태를 갖는다. 최근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대기업의 진출이 증가하였고, 비제조업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투자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집약적 제조업 부문의 집중 투가 현상은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실정이다. 전체 대중국 투자의 80%이상이 제조업이며, 이 중에서도 60%이상은 특히 섬유·의복·신발·가죽 및 조립 금속, 기타 제조 등 노동집약적인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제조업 특히 노동집약적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이 생산효율 추구형의 진출에서 기인되었다. 즉 중국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한 후 제3국 혹은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목적에 의해 투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공업 중심의 제조업 투자 집중 현상은 최근의 높은 임금인상·지가 상승 등의 투자우대조치의 축소 등으로 경영환경의 변화에 점점 경쟁력을 잃게되는 구조적인 약점으로 인하여 점차 고전하게 된다. 또한 한중 수교 이후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른 부메랑 효과와 국내 산업의 공동화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쟁국 기업들이 앞 다투어 중국에 진출함으로써 중국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어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넷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동북3성과 발해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이 유치한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70%이상이 화남(북경, 광둥, 해남,

대만 지역)과 화중지역(강소, 안휘, 절강, 강서, 상해시, 호북, 호남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기업들의 경우는 동북 3성(요녕, 길림, 흑룡강 지역)과 발해만(산둥성, 천진시, 북경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것은 주로 한국이 이 지역에 대하여 지리상의 인접성, 문화의 유사성을 갖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하여 경제 협력의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지역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정보비용과 투자비용 및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이 중국의 사회 경제적 제도나 특성과 융화되어 최근에는 외자기업간의 과당경쟁으로 오히려 직접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내수시장 개척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타 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동북3성과 발해만 지역에 대한 편중성은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입장에서는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한국 입장에서는 투자지역의 확대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현재 중국 정부는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서부 내륙지역의 발전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내륙지역의 각 지방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위해 지방세 감면, 내수 판매 비율 완화 등 특별 우대 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연해지역에 이미 확보한 생산 및 판매 거점을 기반으로 삼고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확대해나가는 내수시장 개척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서부지역의 진출은 위험부담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대중 투자 증가에 따른 국내산업 공동화 문제 해결 및 투자확대를 우리의 수출 증가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고부가가치형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2003년은 대중 투자에 있어 상해시와 절강성, 강소성 등 화동지역 비중이 처음으로 30% 넘어서면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던 지역 편중 현상도 개선되고 있다.

다섯째, 대중국 투자 한국 기업은 투자방식에 있어서 독자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비용절감형(費用節減型)과 생산거

점형(生産據點型)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현지기업의 경영권 확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기업의 경영권 확보에 대한 집착은 현지 파트너와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뿐만 아니라 현지 정책과 제도의 잦은 변경과 당국의 일관되지 않은 법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입장에서는 외자기업을 관리하고 외국 기술을 축적하여 중국내 유희 노동력의 적절한 배치해야하는 정책과 역행된다. 현지의 한국기업 역시 독자적으로는 중국 내수시장 개척의 어려움, 기업의 현지화 실현에 장애요소가 되어왔다.

과거에는 현지 불명확한 법률규정과 현지 정부의 협조를 위해 합자를 선호했으나 중국도 WTO 가입 이후 모든 것이 투명해지면서 경영을 우리식으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독자기업 형태로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수공약을 위한 기업의 경우에는 독자기업 형태가 유리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한다. 독자기업보다는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맺어 내수판매망 구축비용과 물품대금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합자(작)진출 전략이 유리하다. 그러므로 사업목표 및 진출 지역 시장의 여건에 따라 투자방식과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4장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전략 개선

제1절 대 중국시장 접근방식의 변화

중국시장은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관료적 통제가 병존하는 시장이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따른 산업화, 시장화, 개방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GDP는 개혁·개방 당시 3,624억 위안에서 2002년 10조 2,374억 위안으로 급증하였다. 1차 산업비중이 줄고 3차산업 비중이 증대하여 폐쇄경제에서 개방형경제로 전환(2002년무역액/GDP비율 48.5%)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20여년간 연평균 9.6%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요인을 살펴보자. 우선 중국인들의 상업주의적이고 현실적인 문화전통에 기인한다. 둘째로 중앙정부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정책적 배려, 셋째로 집권적 통제의 틀을 완화시키고 물질적 자극책을 실시하여 외국자본의 중국진출을 성공적으로 끌어냈다.

중국의 고도 성장은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미국CIA는 15년간 7%정도, 일본기획청 경제 연구소는 2010년까지 연평균 8%~10%, 중국사회과학원은 2050년 고소득국의 중상위 수준을 각각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고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풀어야 할 중국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관료의 부패, 지역격차의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원의 집중, 심각한 실업문제,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국유기업의 적자, 선진금융시스템의 부재 및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욕구 그리고 공해문제와 에너지·자원 수급 불균형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중국 소비시장 및 소비구조의 주요 변화와 전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21세기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한다는 점이다. 급 팽창하는 중국의 중산층은 가구당 소득이 연 9000~1만2000만달러 이상으로 북경, 상해, 광둥시 등 대도시에 거주하고, 직업군은 개인사업자나 변호사 등 전문직들이다. 물가 수준을 감안하면 구매력으로 볼때 한국의 3만달러 소득자와 비슷하다.

1991년 185만 가구에 불과하던 중국 중산층은 지난 2002년부터 5000만가

구를 넘어섰다. 전체 인구 대비 비중도 6%에서 13%를 초과했다. 베이징올림픽과 세계박람회가 끝나는 2010년엔 인구 4명중 1명이 중산층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중국은 이처럼 두텁게 형성될 중산층을 기반으로 성장속도가 대단히 빠른 시장에서 떠오를 소비시장 및 소비구조를 전망해 보자. 우선 식료품 지출 가운데 가공식품, 외식, 기능성 식품의 지출 증가, 둘째, 도시소비자의 고급 내구 소비재, 농촌지역의 내구 소비재 지출증가, 셋째, 소비의 중점이 주택, 승용차로 넘어 갈 것으로 전망, 넷째, 교육·보건·문화·오락등에 대한 소비지출 증가, 다섯째, 어린이 중심시장인 ‘소황제 시장’이 급속히 증가, 여섯째, 실버시장 및 실버 상품도 급격히 증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부상하고있다. 중국은 TV, 에어컨, 세탁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다. 전통적제조업에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 한국의 주력산업인 백색가전, 섬유, 신발 등의 생산과 수출부문에서도 세계1위 자리를 차지했으며, 자동차 부문도 선진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기술수준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중국은 WTO가입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자유시장경제체제’기반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많은 산업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한국을 추적하여 향후 제3시장에서 한·중 양국의 경쟁이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도 WTO가입으로 인한 중국내 외자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으로 인한 사업경쟁이 치열해 짐을 의미한다. 이것은 중국의 거시적 경제환경이 향후 지속적으로 바라던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하리라는 예상과 반대로 중국이 도전받는 위협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기업은 이같은 기회이자 위협으로서의 중국 및 중국경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열세부문의 경쟁력을 높기 위한 대응전략을 살펴보자. 첫째,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중간의 경쟁관계를 조망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중국의 시장별 세부 공략방안 모색하고, 연구개발·디자인·설계 등에 적극 투자하여 현지화 전략을 심화·확대한다. 둘째, 중국 진출 시 지역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적절한 언어구사 능력 제고는 물론 중국의 역사·문화·사회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높인다. 셋째, 한·중간의 협력을 모색하고 중국상품의 수입급증에 대비한다. 한·중 양국

의 산업별·업종별 상호 보완적 분업협력 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중국상품 수입에 대비한 제도적인 정비를 강화하여 중국경제의 성장을 우리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 전략을 강구한다.

이같은 중국경제의 성장을 우리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 전략을 강구하여 한국이 생존하려면 첫째로, 중국보다 우월한 한국의 시장경제시스템의 우월성을 확보하여 그 격차를 확대·유지시킨다. 중국은 현재 시장경제체제의 단기적 전환에 한계를 갖고 있는 체제이다. 반면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러므로 한국은 향후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기업 유치에 주력하여 한국 시장경제시스템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격차를 벌려 놓는다. 둘째로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지식기반 경제를 더욱 확립시켜 정보화 기술에서의 격차를 유지해야한다. 중국은 정보통신 인프라 수준이 낙후되었다. 이는 중국정부의 통제가 정보통신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인프라와 제도 정비를 통해 정보 기술 발전 속도를 높혀 기술 격차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생존전략 모색한다. 그러면 중국의 한국경제 추월이 현실화되더라도 한국의 경쟁력있는 산업을 재 조정하고, 중국의 동향을 검토하여, 비교우위 산업의 지속적 유지를 통하여 빈틈없는 생존전략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면서 한국기업의 대 중국 시장 접근 방식과 투자전략을 개선할 수 있다.

중국의 소비시장은 개도권 및 선진권 시장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다. 광대한 지역과 다양성, 소득격차의 양극화 현상, 체제전환의 과도기적 특징을 띠고 있다. 중국은 시장의 특성이 대단히 역동적이어서 단정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 시장동향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은 WTO체제 이행시장의 특성으로, 각종 상품에 대한 가격이 국가통제로부터 벗어나면서 소비재 공산품의 경우 시장 메커니즘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공급자시장’에서 ‘구매자시장’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시장이다. 1979년 개혁·개방이 후 중국경제의 재화 공급능력이 상승하여 전통적인 공급제약이 크게 완화되어, 최근에는 공급과잉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져 일부 고급품, 하이테크 소비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재는 기업간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 주요 도시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중·고급 시장의 성격이 강하다. 시장경제 추진이래 외국기업의 품질 좋은 다양한 상품이 백화점에 진열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소비시장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예전처럼 중국 시장을 단순히 국내 재고품을 처리하는 시장으로 간주할 경우 중국 주요 도시민에게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초기 중국 시장 진출시 품질 좋은 고급제품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제품 수명이 짧은 시장이다. 특히 내구소비재의 경우, 일반 일용잡화와는 달리 제품의 수명이 짧아 시기별로 판매량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최근 주택 상품화정책에 부응하여 대형가전, 실내장식품, 주방용 기기, 가구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기업과 외자기업이 급증하면서 전화기, 팩스,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미흡하여 불법 복제품이 넘치는 시장이다. WTO 가입을 계기로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다.

대 중국시장의 접근방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투자개선안을 살펴본다.

1. 수출 지향형

수출 지향형 진출은 중국의 저렴한 임가공을 통한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제3국으로 수출을 목표로 진출하며, 주로 중소기업이 우 회생산지로서 생산 상호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진출 형태를 말한다.

한국기업의 투자지역은 중국진출 초기부터 특정지역에 집중 되어 있는 현상이 최근 완화되고는 있으나 산둥성, 동북 3성에 투자가 집중되어 2003년 말 산둥성과 동북 3성(요녕, 길림, 흑룡강)이 전체 대중 투자의 금액기준

42.7%, 건수 61.9%에 이르고 있다. 최근 장강삼각주(상해, 강소, 절강), 환발해(북경, 천진, 산둥) 및 주강삼각주(광둥)로의 투자비중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⁵⁷⁾ 업종별로는 전체 투자 건수의 80%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섬유, 의류, 신발, 피혁 등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제3국 수출형 제조업 투자가 주종을 이뤄 중국 내수시장 진출 투자가 취약하다. 중국의 지역별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투자에 활용위한 연구와 모형을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여 투자순위를 조사해보기로 한다.

1) 지역별 투자환경에 대한 분석

가) 분석지표

<표 4-1> 분석지표

	그룹	세부항목
1	경제여건	-경제성장률(최근 3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최근 3개년 평균)
2	공업기반	-공업생산액 대비 발전량 -공업부문 경제효율성 지표 -부채율
3	노동여건	-노동생산성(1인당 노동생산액) -실질임금상승률 -근로자 평균임금
4	내수시장여건	-총인구 및 인구 밀도 -1인당 GDP -연평균 도시소비액 -연평균 농촌소비액
5	대외개방도	-무역의존도 -1인당 외국인 투자 -총수출대비 공업제품수출비중
6	교통통신	-화물운송량 -1km ² 당 도로, 철도, 수운길이 -전화 보급률

57) 장행복, “중국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KOTRA 아카데미, 2004, p. 14.

나) 지표산출방법

<표 4-2> 지표산출방법

지역별	평가항목	순위	등급	가중치
31개 성시	18개 평가항목	1-6위	A	1.00
		7-12위	B	0.75
		13-18위	C	0.05
		19-24위	D	0.25
		25-31위	E	0.00

다) 종합평가

<표 4-3> 중국 지역별 투자환경 종합평가

동부	종합평점	순위	중부	종합평점	순위	서부	종합평점	순위
북경	11	8	산서	8.25	16	사천	5.5	28
천진	9.5	11	내몽고	9	12	중경	8.25	18
하북	11.5	7	길림	7.75	20	귀주	7.5	23
요령	8.75	13	흑룡강	8.5	15	운남	7.25	24
상해	13	1	안휘	7.75	21	서장	5.5	29
강소	12.75	2	강서	7.5	22	섬서	6.25	27
절강	12.5	4	하남	8.25	17	감숙	3.75	30
복건	12.5	5	호북	10.5	10	칭해	3	31
산둥	11.75	6	호남	8.75	14	영하	6.5	26
광둥	12.75	3	-	-	-	신강	7	25
광서	7.75	19	-	-	-	-	-	-
해남	10.5	9	-	-	-	-	-	-

<주 1> : 공업부문의 경제 효율성 지표는 ①부가가치율(공업생산 부가가치액/공업 총 생산액, %), ② 총자산대비 이윤율(세전순이익/총자산, %), ③생산원가대비 순 이윤율(세후 순이익/제조원가 총액, %), ④유동자산회전률(회/年), ⑤부채율(%)

<주 2> : 중국 31개 성·시 지역별 투자 환경에 대한 분석은 분석 지표를 활용한다. 분석방법은 지표를 지역별로 평가항목을 순위별로 등급을 매겨 가중치를 곱해서 종합평가를 한다. 지표 산출 결과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순위 1위 지역은 상해, 그 다음 강소, 광둥, 절강, 복건, 산둥, 하북, 북경, 해남, 호북 순으로 조사되었다.

2. 내수 지향형

내수지향형 진출은 중국 현지 내수시장에 진입하여 시장을 개척하여 다 거

점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로 대기업의 시장추구형 진출 방법이며 상해, 강소성 등 화동 지역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대기업은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한 이행조치로 개방정책 확대와 내수시장 활성화로 가전, 통신, 기계, 자동차, 유통, 금융 등 내수시장의 투자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중국에 비해 다소 앞선 기술과 품질만을 중심으로 진출형태는 실패 확률이 높으므로 중장기적 안목에서의 시장공략을 염두에 둔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의 기술 수준은 자체 R&D개발 능력의 우수함은 물론, 외자기업과의 합자(작)을 통하여 축적된 기술로 인하여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앞선 기술을 제공하여 런닝로열티를 목적으로 진출하는 투자전략은 자칫 한국기업의 기술만 중국파트너 측에 이전시킬 뿐 소기의 투자성과가 높지 않다. 한국기업의 앞선 기술을 중국측 파트너의 지분 참여를 통한 합자회사를 설립한 후 ‘공동개발·공동생산·공동판매’의 형태로 중국시장에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분 참여 혹은 합자 회사 설립의 최종 목적은 양국 기업간 기술, 자본, 인적 결합을 통한 중국의 ‘내수시장공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IT관련 업종의 예를 들면 현재 우리 기업들의 IT관련 기술이 중국에 비해 아직은 앞서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기술과 경험에서 앞서 있을 때 중국측과 협력을 통해 중국 내에 진출하여 현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결국 양국 기업간의 기술·자본·인적 결합을 통한 수익모델을 발굴하는 노력을 경주해야한다. 이는 우리 기업은 부품·중간재·자본재 등의 수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완제품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도 가능해질 수 있다.

내수 공략형 한국 기업의 진출사례를 살펴보자. 중국 광둥성 심천경제특구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용강대공업구. 2004년 11월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삼성코닝 TV용 유리공장이 4억 2000만달러를 들여 완공하여 가동 중이다. 전세계 TV용 유리수요의 3/1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겨냥한 진출로서 세계를 향한 전전후 글로벌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LG화학은 광둥성 광주 경제 개발 기술구에 2000만달러를 들여 전기전자 부품 및 자동차 내외장재 등에 쓰이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 공장을 완공하였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남부지역을 거점으로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진출한 경우이다. 광둥성은 중국소비재 교역량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최대의 물류·유통 중심지이며 가장 국제화된 비즈니스구역이다. 광둥성은 중국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제조업의 심장부이다. 홍콩과 인접한 중국 경제 발전의 기관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광둥성 일대는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이 전자·화학·컴퓨터 부품같은 첨단 고부가치 업종으로 빠르게 재편되어 저임금을 이용한 완구·봉제·가발 등 단순 노동집약업종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한편 중국 현지 업체들의 추격으로 절대적인 기술우위나 확실한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 기업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

1) 중국 8대 경제지역

- 가) 동북지역 : 요녕, 길림, 흑룡강
- 나) 북부연해지역 : 북경, 천진, 하북, 산둥
- 다) 동부연해지역 : 상해, 소주, 절강
- 라) 남부연해지역 : 복건, 광둥, 해남
- 마) 황하중류지역 : 섬서, 산서, 하남, 내몽고
- 바) 장강중류지역 : 호북, 호남, 강서, 안휘
- 사) 서남지역 : 운남, 귀주, 사천, 중경, 광서
- 아) 서북지역 : 감숙, 청해, 영하, 서정, 신장

중국의 8대 경제지역의 경제상황은 지역간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결코 단일 시장으로 볼 수 없다. 중국은 경제발전 단계가 다른 지역이 공존하는 시장이다. 또한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현지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게는 수개의, 많게는 수십개의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사실 수천만 명의 성급 행정구 31개로 이루어진 중국을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중국 진출 시 최소한 각 경제지역별 그리고 더 좋

계는 각 도시별 세분화된 진출 전략과 마케팅이 요구된다.

2) 중국 8대 경제지역 경제상황

<표 4-4> 중국 8대 경제지역의 경제규모와 소득수준

(단위:위안)

경제지역	GDP(억)	전국비중(%)	1인당 GDP(위안)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농촌주민 1인당 평균 순수입
동부지역	10,627	9.95	9,935	5,549.9	2,364.5
북부연해지역	19,702	18.45	10,896	7,133.0	2,963.5
동부연해지역	21,211	19.87	15,617	9,097.0	4,303.5
남부연해지역	15,447	14.47	12,852	9,510.5	3,556.2
황하중류지역	10,810	10.13	5,731	5,364.7	1,939.8
장강중류지역	14,111	13.22	6,113	6,005.4	2,224.2
서남지역	11,562	10.83	4,698	6,401.2	1,809.0
서북지역	3,296	3.09	5,683	5,881.1	1,604.1
전체	95,933		7,516	6,865.5	2,595.5

자료:중국통계연감(2002년)

3. 절충형

대중국 투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 투자의 증가뿐만 아니라 수출지향형 투자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섬유, 의류, 피혁 등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업종은 현재 주로 수출지향형 투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내수시장형 진출로의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하고, 그 외 기술을 요구하는 가전이나 통신 등의 내수시장형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품목은 수출지향형 투자와 절충하는 방식의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렇듯 대중 투자 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문제해결 및 투자확대를 우리의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 전력이 필요한 것이다.

반대로 중국은 2004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이 600억 달러를 넘었다. 계약액은 1500억 달러에 가깝다. 중국은 2005년부터는 외국인 투자를 무조건

받아 들이는게 아니라 첨단기술산업 위주로 선발 유치할 방침이다. 중국 국가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세계적인 우량기업의 투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2004년 외국인 직접투자(신고기준)는 127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03년의 64억7000만달러의 거의 두배이다. 특히 제조업부문투자는 2003년 17억달러에서 62억달러로 266%증가했다. 1999년 15억달러를 정점으로 4년연속 줄어들었던 외국인 투자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2004년 말 주한국 외국인 투자자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투자 환경은 노무환경에 대한 불만족도는 51.6%에 달하고, ‘교통환경’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23.8%, 14.8%밖에 안된다.

역으로 한국은 2004년기준 매일 평균 2000만달러씩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에 투자하고있다. 총투자 누계액은 261억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중국의 대한 투자 총액은 2004년 기준 총 17억달러에 불과하다.

한편 세계각국의 투자금액을 빨아들이기만 하던 중국은 2004년부터 5000억달러가 넘는 외환고를 바탕으로 중국 토종 PC업체인 렌샹이 IBM의 PC사업부문을 인수했다. 또한 중국 IT업체인 TCL은 프랑스 통신회사 알카텔을 인수했다. 거꾸로 중국은 ‘투자대국’으로서 중국의 잠재력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주요 기업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4-5와 같다.

<표 4-5> 중국에 진출한 국내주요 기업현황(I)

성	도시	주요기업	생산품목
강소성	소주	삼성전자	반도체, 가전, 컴퓨터
강소성	염성	기아자동차	자동차 제조
강소성	장가항	포스코	스테인리스강관
광둥성	강문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
광둥성	심천	대우일렉트로닉스 삼성SDI 삼성코닝 LG필립스 조아스전자 레인콤	오디오 브라운관, 모니터 디스플레이부품 모니터 면도기, 헤어드라이기 MP3플레이어

<표 4-5> 중국에 진출한 국내주요 기업현황(II)

성	도시	주요기업	생산품목
광둥성	동관	삼성SDI 삼성전기 아남전자	전자부품 전자부품 오디오, DVD리시버
광둥성	순덕	포스코	도금강판, 컬러강판
광둥성	광주	에이스침대 LG전자 LG화학	침대, 매트리스 TV,에어컨, 휴대폰 등 합성수지
광둥성	혜주	LG전자	CD롬, DVD
길림성	연길	갑을방직	면사, 면포
길림성	도문	쌍방울 이건산업	봉재 목재
북건성	하먼	로케트전기	건전지
북경	북경	삼성,LG,SK,CJ등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중국본사 혹은 지주회사 자동차 제조 자동차부품
산둥성	청도	포스코 오리엔트시계 경남모직 비너스어페럴 농심 INI스틸	스테인리스강판 시계 신사숙녀복 피혁의류 라면 굴착장비, 기계
산둥성	연대	대우종합기계 LG전자 아가방	굴착기, 지게차 정보통신장비 유아동복, 유아동용품
상해	상해	SK,KT,대한항공 한화, 동국제강 등 이마트 동양제과 풍산 한국타이어 한진해운 현대상선	현자사무소 현지사무소 할인점 과자류 동제품 타이어 해상운수 해상운수

<표 4-5> 중국에 진출한 국내주요 기업현황(III)

성	도시	주요기업	생산품목
상해	상해	SK,KT,대한항공 한화, 동국제강 등 이마트 동양제과 풍산 한국타이어 한진해운 현대상선	현지사무소 현지사무소 할인점 과자류 동제품 타이어 해상운수 해상운수
요녕성	대련	SK네트웍 포스코 LG산전 LG오티스	동, 화학제품 아연도강판 변압기, 배전반 엘리베이터
요녕성	무순	STX중공업	중공업제품
요녕성	심양	농심 LG전자	식품 TV
절강성	영파	삼성중공업 LG화학	선박기자재 라텍스
절강성	항주	LG생활건강	생활세제용품
천진	천진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LG화학 대우일렉트로닉스 귀뚜라미보일러 금호타이어 제일모직 영창악기	컴퓨터, 가전 전자부품 에어컨, 전자레인지 창호, 건재 에어컨, 전자레인지 보일러 타이어 신사복 피아노
호남성	장사	LG필립스	모니터, LCD

제2절 대 중국 투자방식의 다양화 문제

중국에 대한 외자 투자의 형태는 합자기업, 합작기업, 독자기업 등으로 분류된다.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환경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1985년~1986년 중에 관련 법규를 대폭적으로 정리하였다. 주요 관련 법규로서는 중외합작기업소득세법, 외국기업소득세법, 상표법, 특허법, 경제특구 및 연해개방도시 기업소득세 및 공상통일세면세에 관한 임시규정, 섭외경제계약법, 중외합자기업회계제도 그리고 독자기업에 관한 기본법인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기업의 외환수지균형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1988년에는 합자경영기업법을 제정하여 삼자기업(중외합작경영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 및 외상독자기업)에 관한 법제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외국 직접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⁵⁸⁾ 그리고 중국 내 기술의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선진기술 도입 정책을 추진하여 대외 개방 및 경제경쟁과 아울러 기술도입으로서 자국 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기술 도입의 형태와 규모의 유연성 조정, 기술도입에 관한 창구의 다양화 등을 통해 중국이 신기술혁신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1. 합자기업

1) 현황

1979년 7월 공포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1983년 9월 공포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세칙을 근거법으로 하며, 중국측과 외자측이 공동출자(외자측의 최저 출자비율은 25%)하여 법인자격을 획득한 유한책임 기업을 합자기업이라고 한다. 출자는 현금, 기계설비, 토지사용권, 공장소유권 등이 가능하며, 출자물의 가격평가액을 기준으로 출자 비율을 결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경영, 위험부담 및 수익을 분담한다.

1980년대 한국기업들의 서구시장에 대한 수출전략과 맞물려 미주시장의

58) 한국무역협회, 『중국비즈니스 실무 가이드』, 2002, p. 7.

집중 투자는 90년대 들어오면서 진출지역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아시아지역의 저임금을 이용하기 위한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 등으로의 진출과 시장잠재력을 고려해서 시장선점과 내수시장을 고려한 투자가 늘어났다. 그러나 합자투자에 있어서 합자법인은 원래 불안전하고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조직형태로서 널리 인식되어 왔다. 개발도상국에서의 합자투자는 정치적 불안정성과 문화간 조직간의 동적인 경제 환경에 의해 합자투자를 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IMF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합자투자는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성공한 합자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지만 합자투자의 생존여부와 반영정도, 파트너들 간의 초기목적의 달성여부 등으로 성과여부를 결정요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다루게 될 중국은 다른 서구기업과 환경적인 요인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불확실성에 대한 비용이 많이 고려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서구기업의 경우는 많은 안정성과 성공의 실례를 가지고 있다.

최근 한국기업들의 국제화전략은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무한 경쟁시대에 있어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서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이루고 이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의 임금상승과 노사분규 등의 투자환경악화와 진출대상 국가의 보호주의적 성향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사용되었고 향후 글로벌시기에 투자대상지역의 선점이라는 목적도 있다.⁵⁹⁾

2) 운영기구

이러한 중외합자경영기업은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이사회를 지도하에 총 경리 책임제를 실시하며 운영기구로 이사회와 경영관리기구를 둔다.

이사회는 합자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회사의 모든 중대한 사항을

59) 최국진, “한국기업의 대중국진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7.

결정하는 최고 권력기구이다. 이사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 이사의 구체적인 수는 합자 각 측이 출자비례에 따라 협상하여 결정하며 합자 각 측이 자기 측에 배정한 이사를 위임하거나 파견한다.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합자 각측의 위임이나 파견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둔다. 이사장은 회사의 법정대표로서의 대외적으로 합작회사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이사회 회의를 소집 및 주최하며, 이사회결의의 집행을 감독한다.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수권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이사장은 기타 이사와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하며 회사의 최고 권력자는 아니지만 회사의 지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합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이사회에서의 선출에 의하여 결정하며 일방이 이사장을 맡으면 다른 일방은 부이사장을 맡는다.

이사회는 구체적인 경영관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총경리와 부총경리 약간 명으로 구성된 경영관리기구가 구체적인 경영관리를 전담한다. 총경리는 경영관리기구의 총책임자로서 이사회의 지도와 감독하에 합자기업의 일상적인 경영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이사회의 각종 결의는 총경리가 책임지고 집행하며 각 업무부문은 총경리의 지휘를 받는다. 부총경리는 총경리를 보좌한다. 총경리, 부총경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외국인이 담당할 수도 있고 중국인이 담당할 수도 있다.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는 총경리를 겸임할 수 있다.⁶⁰⁾

2. 합작기업

1) 현황

1988년 4월 공포된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1995년 9월 공포된 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세칙을 근거법으로 하며, 중국 측과 외자 측이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합작기업이라 한다. 출자는 현금, 기계설비, 토지사용권, 공업소유권 등이 가능하며, 합작계약서상의 기업경영, 위험부담,

60) 강준영, 『중국진출전략 대특강』, 중앙M&B, 2003, pp. 129-131.

이익분배 조항에 따라 권리·의무관계가 결정된다.

현재 합작회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중국 세무국 및 세관의 관리정책이 자주 변경되고 중국정부의 정책변경에 대한 통지가 제때에 알려지지 않으며 통관하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등이다. 동사는 점차 까다로워지는 관리규정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안전한 이익금 송금 여부도 불안하여 중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

중국은 제반 행정지원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외자기업으로서의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사회와 문화적 인습의 차이에 인해 종종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현지의 인건비 상승률이 높은 추세를 이루고 있으며 근로시간의 제한, 그리고 현지 근로자의 의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진출 초기에 비해 노무관리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월급여와 함께 노동국 또는 보험기관에 납부하거나 기업에 적립해야 하는 보조금 성격의 간접임금으로 인해 생산경영에 부담이 많아지는 것이다.

한편 현지채용 관리자들은 오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생활해왔기 때문에 몸에 밴 무사안일주의로 인해 스스로 고도의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공정의 엄격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사업초기 단계에서 나타났다. 국제연구개발컨소시엄, 국제기술제휴, 국제생산라이선스, 국제제품스왑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지분참여 없이 기업 간의 국제간 계약과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점차 이러한 전략적 제휴관계가 그 기업의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제휴를 통해 보다 높은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합작투자의 형식을 선호하게 된다. 국제합작투자는 외국기업과 연구개발, 판매, 생산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핵심사업 분야 자체를 합작투자 화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 대책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어야만 중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실시할 것이며, 초기에 성공한 생산성, 품질관리 향상 등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운영기구

중외합작경영기업은 계약형 합자기업으로서 법인형태의 중외합작경영기업은 권력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법인이 아닌 중외합작경영기업은 연합관리위원회를 둔다. 경영관리기구는 총경리를 두어 업무를 집행할 수도 있는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도 있다. 중외합작경영기업은 중외합자 이외의 제 3자에게 위탁하여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독자기업

1986년 4월 공포된 외자기업법 및 1990년 12월 공포된 외자기업법실시세칙을 근거법으로 하며, 100% 외자로 설립되어 법인격을 획득한 유한책임 기업을 말한다. 출자는 현금, 기계설비, 공업소유권 등이 가능하며 외자측이 단독으로 경영상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중국은 투자유치에 있어 1992년 이후 투자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계약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외국기업의 중국투자에 있어서 질적인 면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또한 중국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1979년~1988년까지는 독자기업의 비중은 건수면에서 전체의 3.7%에 불과하던 것이 1996년에는 36.9%까지 상승하였다. 따라서 향후 외국인의 중국에 대한 투자 형태는 독자기업의 비중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한중수교가 이루어질 무렵인 1991년부터였다. 실제로 1992년 수교가 이루어지고 무역협정과 투자보호협정이 이루어진 이후 한국기업의 중국으로의 진출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한국기업들의 특징적인 현상에는 독자기업의 진출이 많고 투자지역이 집중되어 있으며 수출중심의 노동집약형 경공업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왔다.

독자기업은 중국법률이 정한 법인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인자격을 갖지 못한다. 법인자격을 취득한 독

자기기업은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가진다.

독자기기업의 장점으로는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하여 경영권 다툼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측 파트너가 없으므로 중국에서 경영에 애로사항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2) 운영기구

독자기기업의 조직기구에 대해서는 법이 강행규정을 두지 않고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보통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조직기구를 참조하여 이사회와 총경리를 둔다.

이러한 중국에 대한 다양한 투자방식을 비교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6> 대 중국 투자방식 비교

구 분	합자기기업	합작기업	독자기기업
근거법령	중외합자기업법 등	중외합작기업법 등	외자기기업법 등
기업형태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연합경영체	유한책임회사
책임부담	지분비율, 출자액한도	계약내용	출자액한도
이윤분배	지분비율	계약내용	독점
의사결정	이사회	이사회 연합관리위원회	투자자 임의
의무지분	등록자본금의 25% 이상	등록자본금의 25% 이상	등록자본금 100%
경영관리	투자자 공동경영	투자자 일방경영도 가능	투자자 독자경영

제3절 대 중국 투자의 현지화 문제

현지화 전략이란 현지국의 경제 사정과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을 피 투자국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국의 도움 없이 현지에서 운영하는 경영전략을 말한다. 즉 현지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부합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이에선 생산인력의 현지화, 원·부자재 조달의 현지화, 마케팅의 현지화, 자금조달의 현지화, 연구개발의 현지화 등이 있다.

해외투자의 초기 단계에서는 모기업의 원조 하에 기업을 영위하게 되지만 현지법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기업의 현지화가 필수적이다. 중국의 경우 해외투자유치 초기에는 각종의 특혜를 주어 외국기업의 투자를 장려했지만 투자가 일정수준에 이른 후에는 이러한 특혜를 점차 줄여갈 것이며, 따라서 현지법인 경쟁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현지화는 현지에서의 압력에 대한 대응이라는 방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성공전략이라는 측면도 있다.⁶¹⁾

현지화는 먼저 인적자원 현지화에서 출발하는데, 성공적인 인적자원의 현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와 시간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가진 현지인을 이해하고 배우려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문화는 학습된 행위, 즉 생리적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닌 교육을 통하여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 파견되는 한국인 경영자들은 중국의 문화, 언어, 노무 및 인사관리와 관련된 사전적 지식을 습득한 후에 파견되어야만 현지근로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인적자원을 현지화 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인 관리자를 육성시켜서 중국인 종업원에 대한 노무관리를 중국인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중국인 최고경영자를 육성하여 중국 현지자회사의 경영전반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61) 김병순,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동기와 투자전략", 한국북한학회논집 제7권, 2000, p. 350.

한편 인적자원의 현지화와 더불어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원·부자재의 품질이 떨어지고, 적기에 조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생산량의 극대화에 치중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는 점과 도로, 수송체계의 미발달로 납기를 제때에 지키지 못하는 점이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납기의 지연에 대비하여 사전에 미리 충분한 재고를 확보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며, 이러한 사전재고 확보는 현지자회사의 원활한 생산 활동을 위하여도 필요하다. 또한 원·부자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부자재의 현지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자금조달의 현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현지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신용을 쌓아가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면 장기적으로 한국기업들의 중국 내 현지금융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산업별 현지화 전략

업종별, 지역별로 빠른 속도로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순조로운 접근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능력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능력이란, 기업의 규모, 보유 기술의 종류 및 수준, 정보 수집 능력유무, 중국 내 인맥 유무 등 종합적인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보력과 위기 처리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 대기업 혹은 보완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전략적 제휴, 이차적으로 현지 기업과의 협력해 나가는 단계적 전략이 유리할 것이다.

독자적 진출 능력이 있는 기업, 특히 대기업의 경우는 독자적인 접근 혹은 중국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접근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과거와 같이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그 기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접근하려는 차별화 된 전략이 필요하다.

2. 기술 수준별 현지화 전략

저급 기술의 중국 진출은 가능한 지양하는 것이 좋으나, 만약 진출한 경우에는 중국의 여건이 최대한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기술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급 기술의 중국 진출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저급 기술의 경우, 우리 기업의 비교우위(기술, 관리, 디자인, 판로 보유 등)를 중국 측 파트너의 장점(저렴한 임금, 넓고 차별화된 시장,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

기술 수준의 중국 혹은 선진 기업에 비교 우위에 있는 고급 기술은 적극 진출하되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 내수 시장 규모의 급속한 확장, 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 계층의 차별화 확대 등 사실은 세계 각국 기업들이 공히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최근 각국 기업들은 중국 내수 시장 확보를 위해 고급 기술의 중국 진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과거와 같이 기술 노출을 우려하여 기술의 이전을 주저해서는 중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중국 시장은 판매 품목, 판매 대상, 판매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에 따라 발 빠르게 움직여야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3. 소비시장별 현지화 전략

중국시장은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시장으로 분화된 다양한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역별 1인당 GDP비교 및 소비계층 분화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1인당 평균 GDP(2000년 기준, 화폐단위 : 인민폐)수준을 보면 북경이 22,460원, 상해가 34,547원, 천진이 17,993원, 중경이 5,157원, 감숙지역이 3,838원, 강서지역이 4,351원, 섬서지역이 4,549원으로 지역 간 GDP 규모 비율이 높게는 9:1수준을 넘고 있다. 지역 간 소득격차가 커서 각기 다른 판매 전략을 구사해야 할 정도라 할 수 있다. 사실 중국시장에서의 소비계층

분화는 중국 자체가 대형국가인 관계로 한국시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가 심하다.⁶²⁾

소비의 양극화는 구매욕구와 소비행태에 큰 변화를 야기했고 도농간, 계층간, 지역간 구매력 차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의 경우엔 외국인과 현지 고소득층이 고급품 소비계층으로 분화되고 있다. 햄과 소시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호텔 브랜드는 주로 상해와 북경을 중심으로 판매활동을 집중하고 있고 기타지역에는 고소득층 밀집주거지역의 한두 개 점포에만 진열,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 역시 중국의 소비자계층의 극단적인 분화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판매 전략에서나 마케팅 전략에서 각 지역에 따라 상이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⁶³⁾

위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시장은 소비자계층이 상이한 수많은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별, 시장별 차등가격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하여 많은 외자기업들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 차등 가격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대리점 또는 기타 유통기관의 조작 또는 편법에 의해 저가격 시장에서 유통되어야 할 제품들이 메이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가격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이런 현상들은 외자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을 유발함으로써 급기야는 기업을 도산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가격은 단일화하지만, 지역별로 서로 다른 다양한 할인판매 활동의 전개를 통해 단일화가격제도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저소득층 시장에서는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공짜로 주는 전략을, 그리고 고소득층 시장에서는 세 개를 사면 한 개를 공짜로 주는 전략을 펴면서 지역의 소비자 소득수준에 따라 이런 판촉활동의 빈도를 조절해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시장일수록 전자의 횟수를 늘이고 소득수준이 높은 시장일수록

62) 양환성, 『중국사회각계층분석』, 무역협회, 2003 p. 572.

63) 한국무역협회, 『중국비즈니스 실무 가이드』, 2002.

후자의 획수를 줄이는 방안이다. 중간소득층 소비자들로 구성된 중간시장의 경우엔 두 개를 사면 한 개를 공짜로 주는 전략의 획수를 적당히 잡아가는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들어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급증과 중국 제품의 품질 향상으로 중국 시장에 파고들기 위해서는 중저가가 아닌 고가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구매력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은 전 인구 13억 명의 약 5%정도의 6000만 명 정도가 한국의 중산층 수준을 능가하며, 이 같은 중산층은 향후 5년 내 2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수 시장 확보에 목적을 둔 외국 투자 기업의 중국 내 기술 도입과 중국 기업의 자체 개발로 인해 중국 제품의 수준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중저가 제품으로 접근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이며, 품질과 서비스에서 앞선 고가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실제 예를 들면, 삼성의 휴대폰, 삼성과 LG가 생산하는 백색가전, 제일모직의 신사복 깔럭시, 농심의 신라면 등은 고가 전략으로 이미 성공했거나, 성공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품의 품질과 차별성에 근거한 고가 전략은 우리 기업이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이며, 이와 함께 브랜드의 고급화를 위한 품질 및 서비스 개선 노력은 필수적이며 홍보 전략 역시 매우 중요하다.

중국 시장 내 점유율 확대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비 계층과 차세대 소비 계층에 대한 차별화 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자 제품의, 도시 거주 소비자는 제품의 수명에 의해 제품을 구입하기보다 제품의 성능을 보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 계층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으며, 향후 이들이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기 전부터 계층별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제4절 투자 분류 문제

1. 분류에 대한 기존 대응

중국에 투자 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것이나 예기치 않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분쟁발생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절차상의 간소함을 이유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하겠다. 귀찮고 힘들더라도 사전에 법정분쟁 시의 해결방안을 잘 연구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적법한 방법을 선택하여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겠다.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후유증이 많으며 어떤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보다는 분쟁해결을 위탁한 사람과의 또 다른 분쟁으로 사업전체가 흔들리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것이다. 차선으로 중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최후로 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

감성에 치우치는 판단으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비이성적이고 비사업적인 판단으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이가 많다. 법언에 의하면 “가장 나쁜 합의가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이 법적절차에 의한 해결보다는 양보를 하여 감정을 자제하고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재위원의 소양이 높고 단심제가 적용되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최후의 수단으로 중국법원을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최근 중국사법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있으므로 외국인의 승소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바,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⁶⁴⁾

중국에서 중재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산보전제도가 있다. 재산보전 방법으로 은행계좌 동결, 봉인, 가압류, 가처분 등의 방법이 있다.

실무상으로 한국인은 중국투자회사의 계좌동결이나 봉인, 혹은 가압류가 되면 쉽게 상대방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상대방을 제소할 경우에는 재산보전신청 없이 제소하여 승소한 후에도 집행을 받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낭비할 경우가 많다. 제소한 측이 재산보전을 신청하면 놀랄 것 없이 담보를 제공하여 재산보전행위를 해제시키고 제소할 분쟁이 생기면 사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여 재산보전신청과 동시에 제소를 하는 것이 사후 분쟁해결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⁶⁵⁾

2. 중재제도 이용 전략

중국은 1979년에 개방정책을 추진한 후,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많은 법률을 제정했다. 예를 들면 중외합자경영기업법(1979. 7. 1시행, 1990. 4. 4개정), 동법시행세칙(1983. 9. 20),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해양석유자원탐색규칙(1982. 1. 30시행), 중외합작경영기업법(1988. 4. 13시행), 동법시행세칙(1995. 9. 4)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상에는 중국과 외국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중국 또는 외국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가 규정되어 있다. 중재절차 자체는 민사소송법(1982. 3. 8시행, 1991. 4. 9개정)에 근거하여 중국중재위원회규칙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만, 별도로 중재법(1995. 9. 1)이 시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1958년 뉴욕협약에 가입하고 국가와 타국가의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협약에 비준했다.

64) 김광수, “한중 분쟁: 무역분규 및 지적재산권분규”, 제 4기 매경-외대 차이나 CEO과정, 제 15-16강좌.

65) 허운학, 『중국투자에 필요한 중국법 해설』, 매일경제신문사, 2002.

1) 관할

중재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발생 전이나 후에 쌍방의 서면으로 된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중재기관의 명칭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중재기관에서 해결한다.”라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중재기관에서 중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설령 당해 중재기관에서 접수를 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가 관할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법원에 가서 해결하여야 한다. 명확하게 “북경시⁶⁶⁾ 소재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혹은 “북경시 중재위원회” 등으로 중재기관이 특정되어야 관할권 합의가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기업이나 개입과 거래시에 법률분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예를 들어 “피 신청인의 소재국의 중재기관에서 중재로 해결한다.”와 같은 문구는 중국 측이 피 신청인일 경우는 “북경시 소재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한국측이 피 신청인일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소재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로 해결한다.”라고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기재하면 형식적으로 평등한 계약이 되며 실질적으로는 한국 측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주의할 점은 일방이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 중재기관이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응소 관할이 있다고 하여 사후 중재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으므로 중재를 거부하고자 하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관할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중국 중재판정부 구성과 심리

중국 중재판정부는 일반적으로 쌍방당사자가 1인씩 중재위원회 명단 중에서 선정하고 중재위원회에서 1인을 주임 중재위원으로 선임하여 3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심리는 사건당사자만이 참가하며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한다.

법률적으로 명문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한 두 차례의 개정으로 직접 증거의 효력을 다투고 변론을 하여 개정을 종결하고 사후 서면 변론이나 필요 시 추가적으로 증거제출을 한 후 다수결로 판정한다. 감정이나 증인을 요

66) 중국국제경제무역위원회는 상해시 심천시 등 2개 도시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

청할 수 있고 중재에 참석하지 않으면 결석심리를 진행하여 중재판정을 할 수도 있다.

실무적으로 중재심리를 진행 할 때 중재판정부에서 합의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각각의 일방당사자와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최저 양보선을 파악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도 많다.

만약 조정이 성공하지 못하면 바로 중재판정을 하여야 하고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게 되는데 이 조정서는 중재판정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3) 중국에서의 중재판정⁶⁷⁾과 집행

중재의 판정은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9개월 이내⁶⁸⁾에 판정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 중재판정부의 요구에 의해 중재위원회의 비서장이 필요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중재판정은 만장일치나 다수결의 결정으로 판정하며 소수의견을 판정문에 기재할 수도 있고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판정문에 대한 소수의견의 중재위원이 서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

중재판정 시 중재비용 부담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되는데 대개 패소 측에 부담시키는 판정을 하나 각자의 책임의 비례에 따라 부담시키는 판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중재판정문의 집행은 1958년 뉴욕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에 관한 조약”에 중국과 한국 모두 가입하였기 때문에 패소 측 법정소재지 중급 법원에 집행 신청을 하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3) 비용과 대리

중국의 중재기관에 예납하는 중재비용은 중재기관과 사건당사자에 따라

67) 중국에서는 중재판정을 중재재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68) 북경시 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의하면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상이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경우 안건접수비가 인민폐 1만위엔 (한화 150만원 정도)이고 별도 청구가액에 따라 0.5%~4.5%까지 누진 계산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소송대리비용도 중재위원회에 예납하는 비용정도를 계산하면 되리라 생각된다. 참고로 대리인의 숫자가 제한이 없으므로 중국인 소송전문가의 한국인 소송전문가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있다.

3. 법률적 해결 전략

1) 관할

중국법원은 기층법원, 중급법원, 고급법원, 최고인민법원의 4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민사소송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중급법원에서 1심을 하고 고급법원에서 최종판결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피고인 소재지의 중급법원이 관할법원이나 한국인이 많은 산동성의 모든 한국관련 사건은 청도시 중급법원이 1심법원이며 길림성의 모든 한국관련 사건은 연변자치주 중급법원이 1심이다. 부동산 관련 사건이나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은 기층법원이 관할법원이 될 수도 있다.

중국에 설립된 투자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은 당해 투자기업이 법적으로 중국법인이므로 섭외사건이 아닌 중국 국내 사건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소송가액에 따라 기층법원 또는 중급법원에서 1심을 관할하게 된다. 참고로, 중국 국내사건일 경우 각성 행정구역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인민폐 500만원 이상인 사건은 중급법원이 1심법원이 된다.

2) 재판부의 구성과 심리

재판부는 판사와 배심원으로 홀수로 구성된다. 간단한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할 수도 있다. 합의부로 구성된 재판부는 법원원장이나 민사청장이 참가하여 구성되며 법원원장이나 민사청장이 심판장이 된다. 재판부의 구성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서기, 통역

원 감정인에게도 모두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중국민사소송은 한국의 집중심리제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보통 1번~2번의 개정으로 개정심리를 종료한다. 특히 최근에 “증거교환에대안규칙”을 개정하여 개정 전 5일 후에 제출한 증거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정진행 방법은 먼저 증거의 확인을 거쳐 쌍방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의 진위 여부를 쌍방이 확인한 뒤 재판장이 쌍방변론을 할 쟁점정리를 한다. 쟁점정리가 끝나면 매 쟁점마다 원고측이 발언하고 피고측이 변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매 안건마다 발언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며 심리도중에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할 기회를 주기도 한다.

3) 판결과 집행

일반적으로 국내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에 판결하며 2심을 3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필요에 따라 법원의 동의를 얻어 연장할 수 있으나 기한 내에 판결하지 않을 때 제재조항이 없고 또한 섭외 시간인 경우 상기의 심리기한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2년, 3년까지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불필요하게 심리가 지연되는 경우 지역 정법위원회나 재판감독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대처방법이 되겠다.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문을 집행할 경우 재산소제지의 제 1심 인민법원에 집행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과 달리 집행법관이 직접 집행을 하게 된다. 실무상으로 집행법관이 강제집행 중에도 서로 집행에 대한 합의를 중용하여 집행시에 집행 합의로 하는 경우도 있다.

4) 비용과 대리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비용은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수준은 0.5%~4.5%이며 소송대리비용도 소송가액의 3%~5%선에서 책정된다. 소송대리인의 숫자는 2인 이하로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으나 꼭 중국변호사만이 대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선임에 의해 외국인도 관계없이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다.⁶⁹⁾

제5절 중국투자시 중국법상 주의사항

한국기업이 중국진출에 앞서 최근 중국법률환경의 변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투자업종과 투자형태의 선정 단계부터 계약체결, 법인설립, 분쟁발생 및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중국법상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미리 점검한다면 법률적 분쟁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설사 법률적 분쟁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함에 있어서 고려할 중국법률환경의 변화를 살펴본 다음, 중국법상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검토하고자 한다.⁷⁰⁾

1. 투자업종·투자형태선정단계

1) 투자업종선정시 주의사항

한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려는 업종은 경영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인바,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2002. 4. 1 <외국인투자지도방향규정>,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이하 <투자목록>이라 함)을 시행하였고, 2002. 6. 16. <중서부지구외국인투자우대산업목록>등을 시행하였다.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투자영역은 장려, 제한, 금지, 허가 4가지로 분류하되, 장려, 제한, 금지 영역의 외국인투자는 <투자목록>에 의하며, 여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허가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중국에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투자업종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다음, 외국인투자자가 100%지분을 보유

69) 기업은행, 『중국투자 설명회』, 2004, 10, 27, pp. 72-76.

70) 나승복, “중국투자시 중국법상 주의사항”, 법무법인 화우·Yoon&Yang, 2004.

허운학, 『중국투자에 필요한 중국법 해설』, 매일경제신문사, 2002.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합작이나 합자의 형태로만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 후자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에게 지배적 지위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여 투자업종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투자업종들은 중국이 제출한 WTO 가입의정서에서 양허한 바에 따라 지역, 내용, 범위에 대한 개방 정도와 시기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투자업종의 선정단계에서 이에 대한 개방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투자형태선정시 주의사항

앞에서 설명한 투자방식에서 살펴보았듯이, 합자기업은 그 근거법령이 비교적 완비되어 있기는 하나 투자자금의 조기 회수나 투자비율은 다른 이익배분 등이 엄격히 규제되는 등 운영에 관한 제한이 많다. 반면에 합작기업은 투자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중요사항이 자유롭게 결정되므로 합자기업에 비하여 투자조건이나 이익배분방법에서의 융통성 및 경영상의 기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외자기업은 한국기업이 독자적으로 경영할 수 있으나 중국의 합작파트너가 없으므로 중국의 기업현실 또는 시장상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영업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기업은 위와 같은 각 기업형태의 장단점을 철저하게 비교분석한 다음 투자업종, 사업방향, 경영구조, 영업활동, 중국의 시장상황에 대한 적응도 등 여러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투자형태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양해각서 및 계약체결 단계

1) 양해각서단계에서의 주의사항

양해각서는 일방 또는 쌍방의 당사자가 장래의 계약에 대하여 예비적 합의나 양해된 내용을 반영하는 계약체결 전단계의 문서이다. 이를 통하여 통상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를 기록하여 협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래의 협상구도나 부속계약의 범위를 정하게 된다.

양해각서는 본 계약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구

속력이 없다는 것이나, 비밀유지의무, 배타적 협상의무, 비용분담 등에 관한 약정은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한 조항들은 이처럼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다 보니 부 계약으로 체결하기도 한다. 또한 배타적 협상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해각서의 효력기간동안 중국에서 양해각서상의 사업과 경쟁적인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제 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내용이다.

2) 계약체결단계에서의 주의사항

(1) 개괄적인 주의사항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합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중국의 법망을 피한다는 생각에 중국투자자와 중국법령에 반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다음 조선족 등을 전면에 내세워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국인들에게 경영권을 빼앗기거나 중국투자자와의 마찰로 곤경에 처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는 위와 같은 중요한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 중에는 정부주무기관이나 주위에서 구한 표준계약서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 없이 그대로 또는 약간의 변경만을 가하여 사용하다 보니 투자기업의 권리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중국진출 기업은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로부터 세부적인 자문을 받은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권리보호나 권리구제에 보다 용이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기업 중에는 불완전한 통역에 의존하여 협상을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당사자 간에 핵심쟁점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교환 없이 진행하다가 계약체결일에 임박해서야 당사자의 입장차가 크다는 것이 뒤늦게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은 자신이 어느 정도 중국어를 구사하거나 적어도 중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실무진을 확보하여

야 하고 여기에 자질과 경험이 충분한 통역의 지원을 받아 법률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조항에 대하여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2) 출자기한 및 자본감소

합작기업이나 외자기업은 출자금을 1회에 납입하거나 분할하여 납입할 수도 있다. 합작 당사자가 1회에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영업허가증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이를 납입하여야 하고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등록자본의 규모에 따라 영업허가증이 발급된 날부터 최장 3년 내에 납입하여야 하되, 1차 출자는 영업허가증이 발급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출자금의 15% 이상을 납입하여야 한다.⁷¹⁾ 이러한 출자금의 납입기한은 외자기업에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기업은 자금사정, 경영계획, 중국파트너와의 관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출자금의 분할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전에는 합작회사 자본을 감소할 수 없었으나 2001년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총액과 생산경영규모 등의 변화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외경제무역주무기관의 허가를 받아 감소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⁷²⁾ 따라서 합작회사가 결손을 떠안고 가기보다는 합법적인 자본감소의 절차를 거쳐 적절하게 결손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국투자자의 토지사용권의 취득과 출자

중국에서는 국가와 농민집체만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토지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국기업이나 외국투자기업은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임차하여 경영활동을 영위하게 된다. 농민집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한국기업이 중국투자자와 합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국투자자가 출

71) 중국중외합작경영기업 합영각방출자의 약간규정 제10조, 제 4조 내지 제6조.

72) 중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시행세칙 제16조 제2항.

자하는 토지사용권이 국가의 소유인지, 아니면 농민집체의 소유인지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토지사용권의 취득은 크게 출양과 획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⁷³⁾ 출양은 국가가 유상으로 토지수요자에게 토지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획발은 국가가 국가기관용지, 도시기초시설용지, 국가시설용지 등의 건설을 위하여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다.⁷⁴⁾ 또한 개인이나 기업은 이미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양도 또는 임대를 받거나 그 임대차인으로부터 전대받기도 한다.

중국투자자의 출자대상이 토지사용권인 경우에는 국가주무기관이 발급하는 공부를 통하여 중국투자자가 적법한 토지사용권자인지, 토지형질이 출자에 적합한 것인지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합작기업이 설립된 후에는 중국투자자로부터 합작기업 앞으로 출자대상이 토지사용권의 등기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토지사용권의 등기이전은 합작기업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국투자자가 합작과정에서 토지사용권을 무상 또는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출자하는 경우 관련법령상 지방정부가 위 토지사용권의 우선 매수권을 보유하게 되므로,⁷⁵⁾ 한국기업은 이러한 중국투자자의 출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합작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4) 기술양도

각종 제조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 현지에서 생산 또는 가공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술양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서의 기술양도는 특허권의 양도, 특허신청권의 양도, 특허실시의 허가, 기술서비스, 기술지원 등 기술의 양도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⁷⁶⁾ 통상 중국진출기업은 합작계약서나 정관만이 중국정부의 허가대상으로 생각하나, 이에 관련되는

73) 중국토지관리법 제2조, 중국도시부동산관리법 제3조.

74) 중국토지관리법 제54조, 중국도시부동산관리법 제22조, 제23조.

75) 중국도시부동산관리법 제26조.

76) 중국기술수출입계약등기규정 제2조.

기술양도계약도 주무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주무기관에 계약등기절차를 거쳐야 한다.⁷⁷⁾ 이와 같은 허가 또는 등기절차는 기술양도인이 중국 측 기술양수인으로부터 기술양도대금을 수령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5)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 의무

중국투자자는 합작과정 또는 합작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여러 가지 영업상, 기술상 비밀에 접근하게 되므로 이러한 비밀의 유출로 인하여 합작이 결렬될 수 있고 한국투자자로 하여금 커다란 손해를 입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합작계약서에 중국투자자로 하여금 합작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영업상, 기술상 비밀을 유지하게 하고 합작회사의 임직원도 이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합작회사의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합작목적에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합작계약서에 중국투자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합작회사의 영업 및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행위를 금지하게 하고 경쟁업체의 설립이나 경쟁업체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이 중국투자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비밀유지의무나 경업금지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향후 위반행위에 대한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합작계약단계에서 위약금조항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법인설립단계

1) 법인설립에 대한 심사 및 허가 시 주의사항

77) 중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43조, 중국기술수출입관리조례 제10조 내지 제15조.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중국기업과 합작하거나 독자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심사·허가기관은 투자총액의 규모에 따라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로 정해지고 이는 심사·허가대상이 프로젝트건의서와 타당성연구보고서인지 아니면 계약서와 정관인지에 따라 발전계획부문 또는 대외무역경제부문으로 정해진다. 먼저, 투자총액이 미화 3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는 프로젝트건의서 및 타당성연구보고서는 중앙정부의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또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심사·허가하고 계약서와 정관은 중앙정부의 상무부가 심사·허가한다. 그러나 투자총액이 300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프로젝트건의서와 타당성연구보고서는 지방정부의 발전계획부문이 심사·허가하고 계약서와 정관은 지방정부의 대외경제무역부문이 심사·허가한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중국에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이와 같은 투자총액의 규모와 구체적 사항에 부합하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주무기관으로부터 심사·허가를 받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2) 각종 등기 및 등록 시 주의사항

중국에서 법인설립에 대한 심사·허가를 받기 전후에 법인설립과 관련되는 등기,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심사·허가를 받기 이전에 거쳐야 할 등기절차는 기업명칭등기이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은 프로젝트건의서에 대한 심사·허가를 받은 후 계약·정관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 기업명칭등기관리실시방법에 근거하여 미리 관할 공상행정관리기관에 “행정구역과 상호(2자 이상의 한자), 산업, 기업형태”로 구성된 기업명칭에 대하여 심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사·허가를 마친 후 거쳐야 할 등기, 등록절차는 법인설립등기, 기업코드등기, 외환등기, 세무등기, 세관등기, 인장등록 등이 있는데, 그 중 주요 등기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외국기업은 프로젝트건의서, 타당성연구보고서, 계약서 및 정관에 대한 심사·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으로부터 법인설립등기절차를 밟아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게 되는데, 영업허가증의 발급 일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일이 된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은 기업 및 사회단체의 통일코드표지제도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 인증숫자가 부여된 기업 코드의 등기절차를 마쳐야 한다. 나아가 외상투자기업은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 30일 내에 관할 외환관리국에 외환등기절차를, 관할 세무기관에서 세무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합작회사가 위와 같은 각종 등기, 등록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합법적인 경영에 착수할 수 없을 것이므로 법정기간 내에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4. 분쟁단계

1) 분쟁발생단계에서의 주의사항

합작당사자간 또는 합작회사와 거래상대방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독단적이고 불필요한 외관을 자제하고 미리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다음,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치밀한 법 논리와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원칙을 간과하여 협상이 난국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 현금출자가 많은 한국투자자는 현물출자를 주로 하는 중국투자자에 비하여 훨씬 커다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재산보전결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위 재산보전결정을 취소하게 된다.⁷⁸⁾ 따라서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재산보전결정을 받은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기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유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인이 법원에 바로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자소제도가 마련되어 있다.⁷⁹⁾ 따라서 합작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검찰원의 공소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재판을 요구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신속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78) 중국민사소송법 제93조.

79) 중국형사소송법 제18조, 제170조 내지 제173조.

2) 분쟁해결단계에서의 주의사항

분쟁해결단계에서의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분쟁처리방식에 대한 의식변화가 절실하다. 한국일부 기업은 중국에서의 분쟁해결과정에서 법률에 의하기 보다는 판시(關係)에 의한 비공식적 방법을 택하는 편이 효율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완전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없고, 오히려 향후의 분쟁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치밀한 법 논리와 충분한 증거준비만이 상대방이나 판단기관을 설득하는 지름길인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당사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중국법상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 관련법령에 의하면 외국당사자가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인증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여기에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⁸⁰⁾ 그런데 이러한 인증증거는 사서증서 인증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인증절차를 마친 다음 외교통상부 및 중국대사관 영사부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인증 및 확인절차를 마치는 데는 최소한 1주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러한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적시에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우리나라 양국의 법률전문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사건의 쟁점이 한국법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 측 대리인이 직접 현지에서 가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재판부의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함에 있어 고려할 중국법률환경의 변화 및 중국법상 단계별 주의사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단적으로 집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이 중국법의 테두리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투자업종의 선정단계부터 중국법률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러한 원칙을 지킨다

80) 중국최고인민법원민사소송증거에관한약간규정 제11조, 제12조(2002.4.1시행)

면 중국투자에 관련된 분쟁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설사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중소기업의 대 중국 투자전략 개선방안

중국시장 진입에 해외 투자의 이론적 배경은 중국투자 전략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 같은 중국 투자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그에 대처할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전략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중국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⁸¹⁾

제1절 중국진출 이전 단계의 투자전략 개선방안

중국진출 이전 단계의 투자전략으로는 먼저, 대 중국 투자 목표의 명확화, 선행조사, 투자지역 선정, 투자형식결정, 합자·합작의 파트너십 구축 전략 등을 세워야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투자 목표의 명확화

중국진출 이전 단계의 투자전략으로는 먼저, 대 중국 투자 목표의 명확화를 들 수 있다. 생산효율 추구형(Efficiency Seekers)은 중국의 저렴한 임가공을 통한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제 3국으로 수출을 목표로 진출하며 주로 중소기업이 우회생산기지로서 생산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진출 전략 목표이다. 시장 추구형(Market Seekers)은 중국 현지 내수시장에 진입하여 시장을 개척하여 다 거점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로 대기업의 진출 전략 목표이다. 자원 추구형(Resource Seekers)은 중국의 지하자원 및 에너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진출 전략 목표이다. 이와 같은 전략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

81) 박정동, “중국에서의 기업경영”, 차이나 비즈니스 월드 제4기 매경-차이나 CEO과정, 2004, 참고.

2. 선행조사

중국진출 이전단계의 투자전략으로는 선행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철저한 정보수집과 사전조사가 없으면 경영흑자를 얻을 수 없으므로 현지 전문가·변호사·회계사·현지 컨설팅 회사를 통하여 사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본격적 사업 시작에 앞서 대표 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 파트너 및 공급 업체 선정을 위한 조사를 하고, 상품 개발, 정보 수집 및 자사의 존재를 홍보하고 정부 관계자들과 판시를 형성한다. 그리고 중국의 상거래 습관을 이해하고, 시간적 여유와 협상비용의 여유 확보 및 잠재 파트너를 다수 선정하여 경쟁을 유도하며, 진입 방식·투자방식·투자지역·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운영 전반과 철수 등의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선발 중국 진입자의 경험을 흡수한다.

3. 투자지역 선정

투자목표에 따라 투자지역이 달라져야 한다. 동북3성 및 발해만 지역에 대한 투자보다는 투자지역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인구는 많지만 실수요자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중국 사업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진출초기에 목표시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투자입지 결정시 고려 사항으로는 자원의 현지조달 가능성, 사회기반시설 수준, 지방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고려해야하며, 임금조세특혜는 지역별 격차가 없어지고 있으므로, 이 보다는 인건비, 원부자재, 수송비, 물류비용 준조세 토지 사용료 문화적 거리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 선정 뒤, 첨단 기술개발구, 일반도시 지역, 외곽지역 중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데 각 지역마다 우대조치, 투자환경, 투자 허가 기관 등이 서로 다르다.

4. 투자형식 결정

중국진출 이전 단계에서는 투자형식을 결정해야 한다. 이전해외에 직접 진출하는 최초의 단계로 중국 진출에 성공한 많은 외자계 기업들은 대표 사무소를 설치하여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도 했다. 지사는 사무소와 달리 생산 및 경영활동이 가능하나, 법적으로 중국 법인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합작기업은 Joint Venture. 양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회사 형태이다. 합작기업은 양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되, 권리와 의무가 출자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방식의 투자이다. 쌍방이 권리와 의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독자기업은 외국회사가 순수 자기자본으로 기업을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인데 1990년대에 들어 급속하게 증가. 투자사업 업종에 있어서 중국정부가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5. 합자·합작의 파트너십 구축

합자·합작의 파트너십 구축 전략을 세워야 한다.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은 토지·원료·서비스 등 혜택이 많다. 시장 진출에 성공한 외자 기업들의 대부분이 국영기업과의 합작을 선택했다. 중국측 파트너의 규모에 현혹되지 말고, 작더라도 알찬 파트너를 선택해야 한다. 화교와의 공동지분 투자도 중국 진출 및 경영상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합작기업의 경우,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정에 주의한다. 계약 당시 가급적 만장일치 조항을 넣지 말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小)지분을 가졌다고 경영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면 안되며, 계약당시 중국측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경영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높은 지분을 확보, 원만한 대 지방정부 관계, 민감한 정치 사안에 대한 중립적 태도 등이 요구된다.

또한 합자 파트너는 동반자인 동시에 경쟁자임을 명시한다. 이들의 요구

를 무조건 들어주기 보다는 면밀한 시장조사가 요구된다. 계약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협상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기업의 경영문화, 경영전략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

제2절 중국진출 이후의 투자전략 개선방안

중국진출 이후 단계의 투자전략을 인사 노무관리, 생산관리, 재무, 회계, 준조세, 원가관리와 가격책정, 현지기업의 철수 전략, 경쟁우위확보와 유지전략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사 노무관리

직원 선발과 채용시에는 해당지역 지방정부의 노동국 및 인사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중국 현지 종업원은 직원(職員:관리직)과 공인(工人:노동직)으로 나뉘며, 직원은 인사국에서, 공인은 노동국에서 관리하는 인사관리의 차별화가 특징이다. 직원은 필요인력을 비정기적으로 자체 선발하고 당국에 보고하고, 공인은 반드시 노동복무공사(勞動服務公司)를 통해 모집, 채용해야 한다. 대도시 외자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원칙적으로 FESCO (Foreign Employment Service Corporation/대외복무공사/對外服務公司)를 거쳐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FESCO를 통해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알선 수수료를 대납하고 있어 인건비 부담이 크다.

교육과 훈련을 할 경우에는 대도시 지역인 경우, 선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중국 현지에 적용한다. 영어, 컴퓨터, 정기적 기술지도, OJT, 한국 연수 등 다양한 능력개발 과정을 실시한다. 또한 현지 R&D 투자를 늘리고 연구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대도시 이외 지역인 경우는 근로자의 수동적 태도, 낮은 교육수준, 사회주의 체제에서 기인한 수동적 자세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므로 일의 의미를 교육시키고, 감독이 필요하다. 정신교육, 기술교육, 품질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인센티브 및 비전도 제시 한다.

평가와 보상으로는 적절한 임금수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동일지역·동일업종·동일직급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상응하는 기본급과 수당을 제공한다. 외자기업 관련 규정에서는 국유기업 근로자 기본급의 120%~150% 지급을 명시한다. 또한 국경일·춘절 등에 장려금·보조금 지급이 요구되며, 양노보험·실업보험·주택건설기금·공회비용 등 노동법상의 비용과 건강보험·각종 기금과 관련된 비용이 많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 내규를 제정해야 하는데, 중국인은 사회주의 체제 영향으로 법·규정 등을 잘 지키는 편이므로 엄격한 회사 내규를 제정하고, 규정에 입각하여 평가와 보상을 관리해야 효율적이다.

또한 인사 고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중국인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므로 개인의 근무성과를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고과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 시켜야 효율적이다. 복리 후생제도 또한 도입해야 하는데 재무상태를 감안하여 타 기업에 뒤지지 않는 복리 후생을 제공해야 이직률을 낮추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시간외 노동(잔업), 해고, 이직률 관리를 해야 한다. 노동시간으로는 노동법에 의해 1일 8시간, 1주 40시간제의 표준 노동 시간제를 실시하고, 시간 외 노동(잔업)으로는 잔업은 1일 3시간, 1개월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법적 잔업시간을 초과하면 곤란, 불가피한 경우 공회(工會:노동조합)를 통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잔업수당은 평시는 150%, 일요일은 200%이며 잔업수당은 외화로 지불한다.

해고시에는 노동법상 해고는 가능하나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바로 해고 보다는 경고를 하거나 재훈련을 시킨다. 부득이한 경우는 30일 전, 노동행정기관 및 공회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직률 관리로는 호구제도, 당안제도, 노동관리제도의 차별성 등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안정조업·품질관리 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항상 여유인력을 확보하고, 연공서열 보다는 능력위주의 인사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복지시설을 다양화 하고, 채용 2년~3년 뒤 임금 상승률을 높게 적용하는 것도 이직률관리의 한 방법이다.

효과적인 인사 노무관리의 전제조건으로는 최고경영자의 현지 경영지도가 필요한데, 중국법인을 자주 방문하고 현지사정을 파악하여 경영지도를 직접 하는 것이 좋으며, 회사 경영자가 상주하면서 솔선수범 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한국인 중간 관리층의 전문화와 현지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특히 중국인의 평등의식 및 남녀평등 의식을 존중하여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중국인이 우리기업 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인간적 대우를 해주고 회사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라는 믿음을 주고 비전을 제시한다.

2. 생산 관리

먼저, 원부자재조달 시에는 기업이 조달하려는 원자재가 계획관리 통일 분배 물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중국은 쿼터 및 수입허가증 관리 품목으로 묶어두고, 이러한 전략물자를 국가개혁위원회에서 직접관리하고 배분한다. 핵심 원자재 부품은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부품회사와 동반진출, 중국 내 공장의 수직적 통합도 원부자재의 상호보충·안정적 조달·제품 품질유지·가격 경쟁력 등에서 유리하다.

다음은 품질관리 부분으로, 중국에서는 품질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숙련공이 적고, 검사원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러므로 품질관리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품질 관리부 설치·작명 실명제 도입·본사 파견자에 의한 품질 관리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노동집약적 업종일 경우, 숙련 기능 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재무, 회계, 준조세

예금인출 한도액은 생산액·매출액·종업원 수 등에 의해 결정된다. 현지 금융은 중국 시중은행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는 담보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토지 사용권을 매입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건물소유권을 확보하여 운영자금으로 쓰는 것이 유리하다. 장치 산업·첨단산업 등 중국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는 업종의 경우는 현지금융 획득이 용이하다.

외환 관리에서는 인민폐 구좌와 외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획득한 외화는 외화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외화는 허가를 받아야 반출 및 타인 양도가 가능하고, 납입자본금의 이전, 과실송금은 반드시 소재지 외환관리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송금이 가능하다.

회계는 한국의 공인 회계사, 중국인 회계사 모두 채용이 가능하다. 회계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회계원칙과 관습이 서방과 다르므로 주의를 요한다. 각종 형식의 준조세가 부과는 예컨대 체육대회·식수사업·방역비 등의 명목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관련 없는 준조세도 성격의 경비가 발생한다.

4. 원가관리와 가격책정

싼 인건비에 근거한 원가관리 기대는 금물이다. 노동생산성이 낮고, 기본급 이외에 실업수당·양노보험료·주택보조 등 각종 수당·보조금·사회 복지비 등 부담이 많다. 중국 내 임금 상승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연해 지역의 경우 연 평균 20%~30% 성장 중 이다. 전기·수송·통신료 등 에너지 요금의 인상도 병행되고 있다. 각급 정부·노동국·공안국·세관·수출입 부서 등의 관료와 직원에 향응을 베풀고 있어 접대비가 총 간접비의 1/4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시장에서의 가격 책정권한은 생산재·소비재 등 재화의 종류 그리고 재화의 관리등급(1~3 등급)에 따라 다르며 중앙·지방·기업에 흩어져 있고, 중국은 공급자 시장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어 시장경쟁이 치열하여 가격책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5. 현지기업의 철수 전략

현지기업의 철수 시에는 주도면밀한 철수전략이 필요하다. 중국 내 사업 기간동안 쌓은 지방정부·지방정부 유관부서의 관료·파트너·거래선 등과의 인맥관계는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철수 이후 재진출 시 이러한 인맥관계를 다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세와 지방세·임금·원부자재 납부대금 등의 체납을 없도록 정리하여 한국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장기 체류한 지역본부 책임자, 관리직 등은 중국지역 전문가라 할 수 있으므로 철수 후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신경 쓰면 노하우를 축적 할 수 있다.

6. 경쟁우위의 확보와 유지 전략

경쟁우위가 직접투자 성패여부를 결정하므로 독점적 우위요소를 보유하고 국제화 경험을 쌓아 변화무쌍한 중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해야 한다. 중국시장은 외국 브랜드의 시장진입·소득수준의 향상·중국기업의 기술수준 향상 등으로 소비자의 기호가 높아지고 있고, 연해 대도시일수록 개성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시장의 수요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신제품 출시 및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신기술 도입·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기술우위를 유지·확대시키고, 기술과 시장 바꾸기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기술우위 산업일 경우·기술이전과 동시에 내수 시장 공략을 택한다.

기술 및 지적 재산권 보호는 기술특허 유관 기관인 전리국(專利局:특허청)에 등록하여 법적보호를 받아야 한다. 많은 훈련비용이 투입된 숙련 노동자의 이직과 경쟁사 취업을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7. 현지화 전략

현지화 전략으로는 먼저, 인력의 현지화를 해야 한다. 단순 생산직 근로자

의 현지화보다는 중간 관리직의 현지화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현지어를 구사하는 최고관리자나 중간 관리자를 육성하거나 확보한다. 중국에 대한 이해로 문화격차·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은 경영의 현지화로, 원부자재 및 부품조달의 현지화를 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 국산화 비율을 장려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는 측면에서 현지화를 고려해 볼만 한다. 또한 제품과 브랜드 자체의 현지화가 중요하다. 소비재의 경우 중국인에 맞는 제품·광고·포장에 투자하고, 마케팅·유통의 현지화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현지화로 원자재·세무·자금·인력·에너지·건설·수출입·통관 등과 같은 기업 외부환경과 관련된 감독권한을 가진 지방정부와 원활한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 특히 지방정부의 공안국, 노동국, 세무국, 전력국, 세관, 상품 검사국 등과 우호적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 현지 유력인사를 활용하되, 합법이 바탕이 된 판시의 중요함을 명심해야한다. 재투자 및 지역 사회 기부를 통해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기업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기회로 활용한다.

제6장 결론과 전망

제1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이 중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기업의 투자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중국시장의 투자환경을 계약적인 측면뿐 아니라 제도적, 정책적, 법적 측면까지 다면화하여 광범위하게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해외 투자이론의 개념과 다양한 학설,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의 전략과 방식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외국인 투자환경을 분석해 보았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투자현황과 투자형태를 살펴 본 뒤 논문의 주된 관심인 대중국 투자의 향후 방향과 투자전략을 제시하였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실태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꾸준히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저렴한 생산요소의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 위주의 진출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건당 평균 투자금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노동집약적 산업의 투자에 집중되어 왔다.

한국기업이 성공적인 대중국 직접투자를 이루어내기 위해 본 논문이 제시한 투자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에 대한 투자환경을 다면적으로 철저히 분석하여 진출형태를 선택하고 소유권 전략도 잘 고려하여 세부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는 전문경영인력의 관리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인력의 확보 및 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 하며, 지속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통하여 중국의 외국현지기업과 경쟁우위를 잃지 않고 경쟁력을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밝힌 이러한 전략들도 당면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

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가 없다. 즉 대중국 투자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우선 중국경제가 계획경제에 시장경제체제가 접목되는 제도적 과도기로서 정책이 자주 변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각종 법률과 규정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해석과 적용도 지방에 따라 또는 시기에 따라 달라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여 원료나 제품수송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점이며, 마지막으로 내수시장이 각종의 관세, 비관세 장벽으로 보호되고 있어서 외국기업의 정상적인 시장진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 이다.

그 밖에 대중국 투자에 있어 한국기업의 투자 형태로 인한 문제점은 파견 인력이 중국어가 미숙하고 중국관련 정보가 부족하며, 노동집약적 업종과 특정지역으로 투자가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한국기업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중국 투자에 있어서 기업의 가치사슬을 공유할 수 있는 국내 기업 간에 협력관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지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따르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나 전문기업 사이에 협력관계를 수립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부언 한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국인 중국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투자전략 사항들을 주로 다루었으나,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와 그 관련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며, 이는 향후 더욱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대중국 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기업 내의 경쟁력 향상이나 투자전략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기업 간의 협력, 그리고 나아가 국가차원의 충분한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기업들은 현재 집중적으로 진출해 있는 환발해 지역을 전진기지로 하여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적극 진출하고 중국정부의 투자 장려 부문인 농업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 자원개발 등 프로젝트에 참여를 확대하며 몇몇 한국 대기업의 투자성공사례와 같이 중국 국유기업과의 합작을 더욱 확대함

으로써 중국에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우리 기업들로서도 대중국 투자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실제 경제발전상황에 부합하는 투자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확대도 좋은 방편의 하나로서 한국기업들은 이미 환발해만 지역에 대한 집중적 투자진출로 동 지역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들 지역을 전초기지로 하여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진출은 중국정부에서 장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륙의 경우 일부기업을 제외하고는 외국 대기업들의 진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 선점 차원에서 우리기업들의 적극적 투자가 요청된다. 그러나 서부대개발은 중국중앙정부에서도 50년 동안 추진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므로 한국기업은 투자 진출 시 신중을 기해야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 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특징, 이점 여부, 실태 그리고 애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대중국 투자는 상당한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영세적인 투자를 추진하면서 규모의 효과를 향유하지 못하였다. 이는 저임금 지향의 사양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투자 진출이 확대되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투자 규모의 영세성은 국내 경영 여건의 악화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해외 투자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소산물이다. 즉, 주로 단순한 저임금 등 생산 요소의 활용 수단을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져온 결과이다. 따라서 보다 고차원적인 진출 전략이 구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는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국내 기업들은 대중국 투자를 기업 내 국제 분업 체계의 구축, 기술 개발 등 고도의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단순히 무역 장벽의 회피나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 활용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하여 왔다.

셋째, 대부분의 대중국 투자는 단순한 저임 노동력 활용, 자원 확보 등 생산요소 입지형에 집중되어 있다.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선진 기술 습득, 유명 브랜드 및 유통망 확보 등 보다 고도화된 목적의 투자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해외 투자는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생산 요소 입지형이고, 단순한 생산 거점이나 부품 공급 거점의 확보에 치중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는 현지와의 마찰이 크고 위험 분산력이 적은 단독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선진국들의 해외 투자는 투자 위험이 크고 현지화의 어려움이 큰 대개도국 투자에서 합작 투자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대중국 투자에서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양적인 확대와 함께 질적인 고도화를 추구해야 한다. 먼저 양적인 면으로 그동안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투자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투자 규모의 적정화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질적인 면에서도 투자 지역의 네트워크화(다양화), 투자 진출 방식의 적절한 활용, 기업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투자 동기 고도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2절 전망

앞에서 살펴 본 중국투자에 대한 문제점을 토대로 중국진출 성공 포인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전략이나 업종별로 투자방식이 달라야 한다. 대부분의 한국기업은 합자 및 독자방식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기업의 현황과 업종, 경영전략에 따라 각각 장단점이 있다. 최근 들어 독자투자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로서, 과거에는 현지 정부의 협조를 위해 합자를 원했으나 최근에는 중국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단독투자의 형태가 유리하게 되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중국의 현황과 업종, 경영전략을 고려하여 투자방식을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투자입지도 업종이나 현지 경제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국의 투자환경은 상해를 중심으로 남북이 상이하다. 북쪽에서는 처음부터 합자의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며, 남쪽은 우선 시장의 반응을 확인한 후 합자여부를 논의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은 물론, 연해

지역 내에서도 도시별로 다르다. 따라서 입지선정에 있어서 지역별 경제특성, 취급제품의 특성, 물류비용, 기후조건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셋째, 파트너를 외형의 크기만 보고 선택해서는 안된다. 한국기업들은 중국 측 합자파트너의 규모가 클수록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국기업 중, 규모는 크지만 실속이 없는 기업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부실채권 등으로 내부분제가 심각한 기업도 많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 잦은 미팅으로 상대의 능력과 신용도를 충분히 평가하고 선택하여야 한다.

넷째, 판시(關係) 찾기에 앞서 법규 준수부터 해야만 한다. 최근 들어 중국의 법제화, 제도화가 강화되면서 판시와 같은 이전의 불문율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무작정 판시에 의존하면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법규정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경영기반 위에서 판시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전략의 하나로 활용해야만 한다.

다섯째, 중소기업은 임대공장을 고려해 볼만 한다. 대기업의 경우는 직접 건축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에는 직접 건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개발구 등지에 있는 임대공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관(官)의 투자유치 유인책에 냉정하게 대응해야만 한다. 중국투자계획단계에서는 예외 없이 지방정부 관리들의 환대를 받지만 이들은 각자 자신에게 할당된 외자유치 목표의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친절과 배려를 제공할 뿐이고 문제는 이들이 언제까지 투자기업을 돌봐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 초기에 중국 관리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곱째, 중요한 문서는 정부기관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중재, 소송으로 해결하지만 중재는 분쟁당사자간의 우호적 해결을 유도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으며, 소송에서이기더라도 관계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강제집행이 어렵다. 그러므로 중재나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단계에서부터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책임자의 서명날인은 가장 안전한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

여덟째, 원부자재 조달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 원자재가 쿼터관리대상

품목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세부적인 원료수급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원자재대란에서 볼 수 있듯이 바잉파워(구매력)가 약한 우리기업은 주요 원자재 구매에 있어 중국 업체와 경쟁이 어려울 수 있다.

아홉째, 여유자금을 충분히 마련해야만 한다. 충분한 여유자금 없는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 중국투자에는 예기치 못한 추가자금 수요발생 요인이 많고 손익분기점이 예상기간을 넘기기 쉽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상 투자자본의 2배~3배 이상의 여유자금을 확보해야만 한다.

열 번째, 중국 내수판매망을 개척하라. 2006년 이전에는 합자기업의 내수 판매에 제약이 따른 것이 현실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외국기업의 100% 내수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열한 번째, 판매대금 회수전략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대부분 중국기업들은 대금결제방식으로 외상거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만일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체결단계에서부터 세부조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두 번째, 과실송금보다는 운영자금에 신경을 써야만 한다. 일부지방정부가 과실송금에 대해 근거 없는 제한조치를 남발하는 경우도 있으나 납세의무만 잘 지키면 큰 문제는 없고 중국정부도 외환보유고의 확대에 달러의 유출에 더 이상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므로 과실송금보다는 법인 정리 후 청산자금을 송금하는 것이 오히려 어렵다. 따라서 이윤을 운영자금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세 번째,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만만치 않다. 중국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한국이 1/8~1/10에 불과하지만 복리후생비, 주택보조금, 물가보조금 등 고용관련 준조세를 계산하면 실제 중국 근로자의 임금은 한국의 1/4수준으로 비교적 높고 임금상승률은 연10%~30%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기업은 중국진출에 있어서 저임금을 가장 유리한 요소로 판단해 왔으나 임금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투자 진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체하고자 한다.

첫째, 대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투자 환경 분석, 사업성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상세한 진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대중국 투자진출 기업은 투자규모를 적정화하여야한다. 전략적으로 자기자본의 투자금액은 최소화하고, 현지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의 재무전략을 현지 전문가를 통하여 수립한다. 이러한 적정투자규모 확보 및 자기 자본 투자의 최소화를 해서는 독자기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중국현지기업과의 합자투자나 국내 기업 간의 조인트 벤처 형태로 진출하는 방안은 경영전략 차원에서 투자입지, 업종별 현지 시장 특성을 분석한 결과 유리하다고 판단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대중국 투자 진출에 있어서 단순히 무역 장벽의 회피나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 활용 등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진출보다는 실질적인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과감한 투자 진출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근래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는 ‘단독투자’가 바람직하다. 과거엔 현지 불명확한 법률규정과 현지 정부의 협조를 위해 ‘합자’를 선호했으나, 중국도 WTO가입 이후 모든 것이 투명해 지는 과정이라 경영을 우리식으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단독투자 형태로 진출이 확대되어야한다.

단, 중국 내수공략을 위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독투자 형태보다는 현지기업과의 합자투자형태로 중국내수 판매망 구축비용과 물품대금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합자 진출 전략이 유리하다. 반면 단독투자는 투자초기에는 독자적인 경영권 확보 등 이점은 있으나 현지와의 마찰이 크고 위험 분산력이 적어 점차 현지 경영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다섯째, 중국 투자 진출은 철저한 현지화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글로벌화가 완성되는 것은 현지화가 따라줘야만 한다. 현지화 되지 않은 현지 기업은 외국 기업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투자 진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현지화는 장기적인 전략 계획 하에서 기

업 내·외부의 여건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 생산·판매 거점의 설립에서 지역 총괄 본부에 의한 경영독립화 추진, 현지 법인의 주식 공개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완전한 현지화를 목표로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능력과 업종 특성, 현지국의 투자 여건, 해외 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①인적자원의 현지화, ②원·부자재 조달의 현지화, ③마케팅의 현지화, ④자금 조달의 현지화 ⑤연구 개발의 현지화를 적절한 수준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유사한데다 아직은 미개척시장으로 인식되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간주하여 많이 진출하였으나 철저한 연구와 준비가 없이는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현실이다.

중국시장은 보기에는 허술한 것 같으나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진입이 어려운 시장으로서 기존 진출한 각국의 크고 작은 기업들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중국 사업에 있어서 경쟁기업의 기술력 등 시장상황조사, 현지 진출기업의 사업능력 검토,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 및 법률 변화의 추이와 향후 가변성 등을 살피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중국이 미국, EU와 함께 세계 경제의 3축을 이루는 체제로 재편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부상은 한국에 있어서 또 하나의 경쟁국이 생긴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중국시장이라는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대응에 따라 중국시장은 발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반면, 이러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기업은 상호 시장개방의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내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는 중국진출이 선택이 아닐 기업성장을 좌우할 기회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있어서 중국진출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시장의 세분화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새로운 진출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어 지고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KOTRA, “중국 및 상해 경제동향”, 중국지역본부·상해무역관, 2004. 11.
- 강준영, 『중국진출전략 대특강』, 중앙M&B, 2003.
- 강준영 · 전병곤, 『한권으로 이해하는 중국』, 지영사, 2004
- 기업은행, 『중국투자 설명회』, 2004, 10, 27.
- 김미숙,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태환,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광수, “한중 분쟁; 무역분규 및 지적재산권분규”, 제 4기 매경-외대 차이나 CEO과정, 제 15-16강좌.
- 김병순, “한국 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동기와 투자전략”, 한국북방학회논문집 제7권, 2000.
- 김중현,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China21, Vol.19, 2004. 6.
- 나승복, “중국투자시 중국법상 주의사항”, 법무법인 화우·Yoon&Yang, 2004.
- 박내경,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합작투자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정동, “중국에서의 기업경영”, 제4기 매경-외대 차이나 CEO과정, 제 20강좌
- 박지연, “대중국 투자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세계경영대학원, 1996.
- 선경일,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확대방안”,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1997.
- 송유명, “한국기업의 대중국직접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양환성, 『중국사회각계층분석』, 무역협회, 2003.
- 양평섭, “WTO체제하의 중국 시장환경 및 한·중 경제관계”, 제4기 매경-외
대 차이나 CEO과정, 제 11-12강좌
- 왕윤중,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성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 이영기, “한국기업의 대중국 합자투자에 있어서 지분구조, 경영통제 및 성과
와의 관련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범걸, “대중국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연구 제16집, 2000.
- 이재원, “중국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투자진출방안”, 성균관대학교 무역대
학원, 1994.
- 이성신, “중국의 금리인상과 환율제도 변경가능성” 나라경제 2004년 12월호.
- 장행복, “중국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KOTRA 아카데미, 2004.
- 장소해, “중국의 외국 직접투자기업의 입지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
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정인교, “중국 WTO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 연구
원, 2001.
- 정상은, “중국내수시장 공략의 성공조건”,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2004.
- 최백렬, 『해외투자론』, 대경, 2003.
- 최국진, “한국기업의 대중국진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조선대학교 경영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최홍석·안종석, “중국해외직접투자 유치의 발전추이”, 경제학논집 제8권 제2
호, 1999.
- 한국무역협회, 『중국비즈니스 실무 가이드』, 2002.
- 한국무역진흥공사, 『중국』, 2001.
- 허운학, 『중국투자에 필요한 중국법 해설』, 매일경제신문사, 2002.
- 홍성민,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투자성과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1999.

<국외 문헌>

- 宋海波·許榮, 『中國加入WTO對上市公司的影響』, 企業管理出版社, 2000.
- 柴川林也. 高柳曉. 『企業經營の國際化戰略』, 同文館. 1987.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2000.
- Aliber. Robert Z., "A Theor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A Symposium*. Cambridge. Mass., 1970, pp. 17-34.
- A. M. Rugman, "Theses on the Theory of the State" *New German Critique* 6. Fall, 1975, pp. 137-147.
- Baldwin. Robert E., "Determinants of Trade and Foreign Investment: Further Evidenc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1, 1979, pp. 246-250.
- Buckley. P. J. and Casson. M., "The Optimal Timing of a Foreign Direct Investment." *Economic Journal*. Vol. 9, 1981.
- C. P. Kindlebeger. "American Business Abroa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9.
- Davidson. W. H., "The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ctivity: Country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 Effec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11, 1980, pp. 9-22.
- DRI, 『World Economic Outlook』, 2000.
- D. R. Lessard, Guidelines for Global Financing Choices, in Lessard, pp. 508-525.
- Frank Bradley, "International Marketing Strategy", Prentice Hall. 1995
- F. T. Knickerbocker, *Oligopolistic Reaction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Harvard University, 1973.
- Hymer, S.,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s Firms: A Stud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76.

- H. G. Johnson,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 Horstman. I. J. and J. R. Markusen, "Strategic Investments and the Development of the Multinational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28. 1987, pp. 109-121.
- Hymer, S.,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s Firms: A Stud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76.
- J. Fayerweather, "The location of overseas production and production for export by U.S. multinational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2, 1982, pp. 201-223.
- J. H. Dunning, "Toward an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pring/Summer, 1980.
- Kojima. K., "Macroeconomnic versus International Bussiness Approach to Direct Foreign Investment."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Vol. 22. 1982, pp. 1-14.
- O. E. Williamson, "The Markets and Hierarchies and Visible Hand Perspective." in A. Van de Ven and W. Joyce, *Perspectives on Organization Design and Behavior*, New York: Wiley, 1981, pp. 347-370
- Ozawa. T., *"Multinationalism. Japanese Style: The Political Economy of Outward Dependency"*,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 R. E. Caves, "Research on International Business: Problem and Prosec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9, 1998.
- R. Gilpin,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New York: Basic Books, 1975.

- R. H. Coase, "Research on International Business: Problem and Projec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9, 1998.
- Vernon. Raymond.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3. 1966, pp. 190-207.
- R. Ragazzi, "The determinants of U.S. direct investment in the EEC."
American Economic Review 59, pp. 558-568.
- R. Vernon, "The 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In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Allen
& Unwin, 1974, pp. 89-114.
- S. Hirsch, "Foreign Investors from the Third World" in Kumar, K. &
McLeod, M. G. (eds.)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Lexington Books, 1981.
- S. P Magee, "The relative distribution of United States direct investment."
European Economic Review 31, 1982, pp. 1137-1144.
- Y. Aharoni, *Investment Strategies and the Plant-Location Decisions:
Foreign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Praeger, 1982.

<참고 사이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cci.or.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econ.seri.org>
 주한 중국대사관: <http://www.china.kofa.org>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한국기업협의회: <http://www.kofa.net>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부록1>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국무원 2002년 2월 11일 관련 규정 공포, 목록은 2002년 4월 1일부시행>

산 업 군	장 려 산 업	제 한 산 업	금 지 산 업
1. 농업, 어업, 목축업, 임업	1) 산출량이 적은 농지의 개조 2) 채소, 과일, 차의 무공해재배 기술 및 계열화 생산 3) 설탕작물, 과수, 화훼, 목초 등 농작물의 우량품종 및 신기술개발(유전자 변환 품종 제외) 4) 화훼 생산과 묘포기지 건설 및 경영 5) 농작물 줄기(폐기물)의 재활용, 유기비료 자원의 개발 생산 6) 증약재 재배(합자, 합작에 국한) 7) 목련(대나무 포함) 우량종 재배 8) 천연고무, 사이잘 삼, 커피 재배 9) 축산 및 가금과 수산물 우량종 번식(중국 고유의 진귀한 우량종 불포함) 10) 유명 특산 수산물 양식, 심수 그물 양식 11) 사막화, 수토 유실을 예방하는 목초재배 등 생태환경보호 건설 공정	○ 식량(감자포함), 면화, 유료 종자의 개발, 생산(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유) ○ 진귀한 수종, 원목가공(합자, 합작에 국한)	1) 희귀하고 진기한 우량품종의 양식, 재배(목축업, 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포함) 2) 유전자 변형 식물종자의 생산, 개발 3)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의 수산물 포획
2. 채 굴 업	*1) 석유, 천연가스 고난도 탐사, 발굴 *2) 저삼투 유전개발 *3) 원유 채수율 제고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응용 *4) 유정측정 등 석유 탐사, 발굴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응용 5) 석탄 및 부존자원 탐사, 개발 6) 석탄층 탐사개발 7) 저급 광산개발 및 선광작업(합자, 합작에 국한, 단 서부지역은 독자도 가능) 8) 철, 망간 광산 채굴, 선광작업 9) 구리, 납, 아연광 참사 및 채굴(합자, 합작에 국한, 단, 서부지역은 독자도 가능) 10) 알루미늄광 탐사, 채굴(합자, 합작에 국한, 단 서부지역은 독자도 가능) 11) 유황, 인, 칼륨 등 화학광 개발, 선광 작업	○ 텅스텐, 주석, 안티몬, 몰리브덴, 중정석, 형석 광산의 탐사, 채굴(합자, 합작에 국한) ○ 귀금속(금, 은, 백금류)의 탐사, 채굴 ○ 금강석 등의 귀금속 및 비금속광석의 탐사, 채굴 ○ 희소 석탄의 탐사, 개발(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 보론마그네시아 및 보론마그네시아 철광 채굴 ○ 천청석 채굴	1) 방사성 광산의 탐사, 채굴, 선광 2) 회토 탐사, 채굴, 선광

산 업 군	장 려 산 업	제 한 산 업	금 지 산 업
3. 제 조 업	1) 식품가공업 2) 연초가공업 3) 방직업 4) 피혁, 모피제품업 5) 목재가공, 죽, 등, 종려, 초제품업 6) 제지 및 지제품업 7) 석유가공 및 코크스 생산 8) 화학원료, 화학품 제조업 9) 의약제조업 10) 화학섬유제조업 11) 플라스틱제품업 12) 비금속광물제품업 13) 흑색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14) 유색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15) 금속제품업 16) 일반기계제조업 17) 전용설비제조업 18) 교통·운수 설비제조업 19)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20) 전자, 통신설비 제조업 21) 제어계측기계 및 문화, 사무용기계 제조업	1) 식품가공업 2) 연초가공업 3) 방직업 4) 인쇄 및 복사업 5) 석유가공 및 코크스 생산 6) 화학원료, 화학품 제조업 7) 의약제조업 8) 화학섬유제조업 9) 고무제품업 10) 유색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11) 일반기계 제조업 12) 전용설비 제조업 13) 전자, 통신설비 제조업	1) 식품가공업 2) 의약제조업 3) 유색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4) 무기 탄약제조업 5) 기타제조업
4. 전력, 석탄가스 및 물의 생산공급업	1) 단기용량 30만KW 이상의 화력발전소 건설, 경영 2) 석탄 세척 연소기술 발전소의 건설, 경영 3) 열 전기 발전소의 건설, 경영 4) 천연가스 발전소의 건설, 경영 5) 발전위주의 수력발전소 건설, 경영 6) 핵발전소의 건설, 경영(중국측이 주도적 지위를 점함) 7) 새로운 에너지 발전소의 건설, 경영(태양에너지, 풍력, 자기력, 지열에너지, 조석에너지, 생물질 에너지 포함) 8) 도시 급수시설의 건설, 경영	○ 단기출력 30만KW 이하 발전을 위주로 한 일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경영(소전력망 제외)	○ 송전망의 건설, 경영
5. 수리관리업	1) 종합 수리 중추시설 건설, 경영(중국측이 상대적으로 지배적 지위를 점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산 업 군	장 려 산 업	제 한 산 업	금 지 산 업
6. 교통운수, 창고 및 우편 통신업	1) 철도주간선망의 건설, 경영 (중국 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유) 2) 지선철도, 지방철도 및 그 교량, 터널, 페리 시설 건설, 경영 (합자, 합작에 국한) 3) 도로, 독립교량 및 터널의 건설, 경영 4) 항구내 공용두부시설의 건설, 경영 5) 민간 비행장의 건설, 경영 (중국 측이 상대적으로 지배적 지위를 점함) 6) 항공운수회사(중국 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7) 농업, 임업, 어업 범용 항공회사(합자, 합작에 국한) 8) 정기, 비정기 국제 해상운수 업무 9) 국제컨테이너 다식 연합운수 업무 10) 육상 도로화물 운수회사 11) 송유관, 가스관 및 유류 저장탱크, 석유전용 두부 건설, 경영 12) 석탄파이프라인 수송설비의 건설, 경영 13) 운수업무와 관련된 창고저장설비의 건설, 경영	*1) 도로 여객 운수 *2) 국경출입 자동차 운수 *3) 수상운수 *4) 철도 화물 운수 *5) 철도 여객운수 (중국 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6) 촬영, 광산 탐사, 공업 등의 범용 항공 (중국 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7) 우편 통신	1) 항공 교통관제 2) 통신
7. 도매 및 소매 무역업	*o 일반 상품의 도매, 소매, 물류 배송	*1) 상품교역, 직판, 우편 구매, 인터넷판매, 특히 경영, 위탁 경영 판매대리, 상업관리 등 유형별 유통업 및 식량, 면화, 식물유, 설탕, 약품, 담배, 자동차, 원유, 농업생산 원료의 도매, 소매, 물류 배송 *2) 도서, 신문, 잡지의 도매, 소매 *3) AV제품(영화 제외)의 유통 *4) 상품경매 *5) 화물 임대 *6) 에이전트(선박, 화물 운송, 화물관리 외국기선, 광고 등) *7) 정제유 도매 및 주유소의 건설, 경영 *8) 대외무역	해당사항 없음

산 업 군	장 려 산 업	제 한 산 업	금 지 산 업
8. 부 동 산 업	o 일반 주택의 개발 건설	1)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2)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경영	해당사항 없음
9. 사회서비스업	1) 공공시설 서비스업 2) 정보 건설팅업	1) 공공시설 서비스업 2) 정보 건설팅업	1) 정부가 보호하는 야생 동식물자원 개발 2) 동식물 자연보호구의 건설, 경영 3) 도박, 복권업(도박형 경마장 포함) 4) 음란업
10. 위생 체육 및 사회복지업	o 노인, 장애인 서비스	1) 의료기관(합자, 합작에 국한) 2) 골프장의 건설, 경영	해당사항 없음
11. 교육, 문화 예술 및 방송영화업	o 고등교육기구(합자, 합작에 국한)	1) 중고등학교 교육기관 (합자, 합작에 국한) 2) 영화관 건설, 경영 (중국 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1) 기초교육(의무교육) 기관 2) 도서, 신문, 잡지의 출판, 발행과 수입 3) AV제품과 전자출판물의 출판, 제작, 발행과 수입 4) 신문사 5) 각급 방송국, TV, 라디오 네트워크(유선 TV 네트워크 및 송신국, 중계소 포함) 6) 방송, TV 프로그램의 제작, 출판, 발행, 방송 7) 영화제작, 발행 8) 비디오 방영
12. 과학연구 및 종합기술 서비스업	o 생물 및 생물 의학 공정기술 o 동위소, 복사 및 레이저기술 o 해양개발 및 해양에너지 개발기술 o 해수 담수 이용기술 o 해양 감측기술 o 에너지 절약 개발기술 o 재생에너지 및 종합이용 기술 o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o 사막화 방지 및 사막 처리기술 o 민용 위성 응용기술 o 연구개발센터 o 첨단기술, 신제품개발 및 기업육성 센터	1) 측량(중국 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2) 수출입 상품검사 및 감정	해당사항 없음

산 업 군	장 려 산 업	제 한 산 업	금 지 산 업
13. 금융보험업	해당사항 없음	*1) 은행, 재무, 신탁투자 *2) 보험 *3) 증권, 증권투자기금관리 *4) 금융리스 *5) 외화중개 *6) 보험중개(대리)	o 선물
14. 기타산업	o 100%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허가' 분야 산업군	o 국가규정 및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하고 있는 국제 조약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타산업	o 국가규정 및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하고 있는 국제 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산업
15. 기타분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군사시설의 안전과 사용에 해를 끼치는 산업

주)*표는 중국정부의 WTO 조입 조항과 관련되는 분야로 첨부외국인 투자 산업지도 목록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1. 장려산업

- 1) 석유, 천연가스의 고난도 탐사, 개발 : 합작으로 제한
- 2) 저삼투 유전개발 : 합작으로 제한
- 3) 원유 채수율 제고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응용 : 합작으로 제한
- 4) 유정측정 등 석유 탐사, 발굴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응용 : 합작으로 제한
- 5) 자동차, 오토바이 완성차 제조 : 외자 비율 50% 이하
- 6) 정기, 비정기 국제 해상 운수 : 외자 비율 49% 이하
- 7) 국제 컨테이너 다식 연합운수 : 외자 비율 50% 이하, 2002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 측의 지배주 보유허가.
2005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 측의 독자경영 허가
- 8) 도로화물 운수 : 2002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 측의 지배주 보유허가,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 측 독자 경영 허가
- 9) 일반상품의 도매, 소매, 물류 배송 : 하기 제한산업 5)항과 동일
- 10) 회계, 회계감사 : 합작, 공동 경영으로 제한

2. 제한산업

- 1) 국경출입 자동차 운수 : 2002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 측 지배주 보유 허가,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 독자경영 허가
- 2) 수상 운수 : 외자 비율 49% 이하
- 3) 철도화물 운수 : 외자 비율 49% 이하,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 측 지배주 보유 허가, 2007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 측 독자 경영 허가
- 4) 통신
 - o 부가통신, 기초 통신업 중 호출 서비스 : 2001년 12월 11일부터 외국인투자를 허가하지만, 외자 비율이 30% 이하. 2002년 12월 11일까지는 외자 비율 49% 이하, 2003년 12월 11일 이전에 외자 비율이 50%에 달하도록 허가
 - o 기초 통신업 중 음성 및 정보서비스 : 2001년 12월 11일부터 외국인투자를 허가하며 외자 비율은 25%이하. 2002년 12월 11일까지는 외자 비율이 35% 이하.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 외자 참여비율이 49%에 달하도록 허가함. 2006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 측의 독자경영을 허가
 - o 기초 통신업 중 국내 · 국제 업무 :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인투자를 허가하며, 외자 비율이 25% 이하. 2006년 12월 11일까지 외자 비율이 35%에 달하도록 허가하며, 2007년 12월 11일 이전에 외자 비율이 49%에 달하도록 허가
- 5) 상품교역, 직판, 우편구매, 인터넷판매, 특허경영, 위탁경영, 판매대리, 상업관리 등 유형별 유통업 및 식량, 면화, 식물유, 설탕, 약품, 담배, 자동차, 원유, 농업 생산원료의 도매 · 소매, 물류 배송 ; 도서, 신문, 잡지의 도 · 소매 ; 정제유의 도매 및 주유소의 건설, 경영
 - o 수수료(커미션) 대리, 도매(소금, 담배 제외) : 2002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인투자를 허가하며, 외자 비율은 50%에 달함. 그러나 도서, 신문, 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 화학비료, 정제유, 원유 등의 경영은 불허함. 2003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 측 지배주주권을 허가하며,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 측 독자경영을 허가하고, 도서, 신문, 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의 경영을 허가함. 2006년 12월 11일 이전에 화학비료, 정제유, 원유의 경영을 허가함
 - o 소매(담배 제외) : 외국인투자를 허가하나 도서, 신문, 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 화학비료, 정제유의 경영은 허가하지 않음. 2002년 12월 11일 이전에 외자참여비율이 50%에 달하도록 허가함. 신문, 잡지의 경영을 허가함. 2003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 측 지배주 주권을 허가하며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 측의 독자경영을 허가하고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 정제유의 경영을 허가하며 2006년 12월 11일 이전에 화학비료 경영을 허가함. 취급품목이 자동차 (2006년 12월 11일 이전 제한 철회), 도서, 신문, 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 정제유, 화학비료, 식량, 식물유, 설탕, 담배, 면화일 경우 체인점이 30개를 초과하면 외국 측 지배주주권을 허가하지 않음
 - o 특허경영 및 고정적인 매장이 없는 도 · 소매 :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인투자 허가
- 6) AV제품(영화 제외)의 유통 : 합작으로 제한하며 중국 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유

- 7) 화물 임대 : 2002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 측의 지배주 보유 허가하며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 측 독자경영 허가
- 8) 에이전트
- o 선박 : 외자 비율이 49% 이하
 - o 화물운수(채신 분야의 전문경영 서비스 제외) : 외자 비율이 50%이하(속달 서비스는 49% 이하), 2002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 측 지배주 보유 허가, 2005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 측 독자경영을 허가
 - o 화물관리 외국기선 : 합자, 합작에 국한
 - o 광고 : 외자 비율이 49% 이하, 2003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 측 지배주 보유 허가, 2005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 측 독자경영을 허가
- 9) 보험
- o 비 생명 보험 : 외자 비율이 51% 이하, 2003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 측 독자경영을 허가
 - o 생명보험 : 외자비율이 50% 이하
- 10) 증권, 증권투자기금관리
- o 증권 : 2004년 2월 11일 이전에 외국인투자를 허가하며 외자비율이 1/3이하
 - o 증권투자기금관리 : 외국인투자를 허가하며 외자참여비율이 33%이하 2004년 12월 11일까지 외자 비율이 49%에 달하게 함
- 11) 보험중개(대리) : 외자 비율이 50% 이하 2004년 12월 11일까지 외자비율이 51%에 달하도록 함. 2006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 측 독자경영을 허가
- 12) 수출입 상품검사 · 검증 및 인증 : 2003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 측 지배주 보유 허가, 2005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 측 독자경영을 허가

<부록 2> 중국의 WTO가입 합의사항 이행사항 및 잔존무역장벽

항 목	WTO 가입 합의사항	이행 사항	잔존 무역장벽
貿易權	- WTO 가입후 3년 내 중국 내 모든 기업에 무역권 취득허용 3년간의 경과조치 ① 가입즉시 수출실적, 외환균형, 무역균형 요구 등 폐지 ② 내자 100%기업의 무역권 취득을 위한 최저 등록자본 요건 점차 완화 ③ 외자기업의 무역업 허용 (1년후 소수지분, 2년후 다수지분) - WTO 가입후 3년내 指定貿易制度 철폐(철강제품)	- 지주회사(投資性公司)에 대한 계열사 제품 무역권한 부여(2001.5) - 외자 제조업체에 타사제품 수출권한 부여(외상투자기업 수출입 경영권 확대에 관한 통지, 2001.7) - 중국 국내기업의 무역권 취득에 관한 기본규정 정비(수출입경영자격관리규정, 2001.7) - 외자다수지분합자무역기업설립허용(2003.12) - 철강제품의 지정무역기업은 자동수입 허가 취득(2002.2)	- 외자 생산기업의 타사제품수출시 1,000만 달러 이상 수출실적 요구 - JV무역회사 설립 자격요건 (외자: 과거 3년간 연간 대중 무역액 3,000만 달러이상, 중국측 연간 무역액 3,000만 달러 이상)
非關稅措置	- 수입쿼터, 수입허가 등 수입제한 조치를 2005년까지 점진 철폐 및 신규 도입 금지 - 수입쿼터량을 매년 15%씩 증액(또는 증량) - 경과기간중 수입쿼터, 수입허가 운용 절차 간소화· 투명화 추진	- 수입허가 품목, 26개에서 12개로 축소 (2002.2) - 쿼터품목 축소 및 연간 수입쿼터 발표	- 수입허가증(자동차) 발급 지연에 따른 혼란발생 - 경과기간 중 수입허가, 수입쿼터제도의 투명성·공평성 유지
關稅	- 관세 인하 : (2001) 15.3% → (2010) 9.8% ① 농산물 : 19.3% => 15% ② 공산품 : 12.7% => 8.9% - ITA 협정 준수 - 化學調和 준수	5,332개 품목 관세인하, 평균관세율 12% (2002.1) (공산품 11.6%, 농산물 15.8%) - ITA 협정 참가 승인(03.4) * 세관이 ITA세율 적용여부 판단 (03.1)	- ITA관련 15개 제품의 관세인하 미흡 - 일부 제품의 최종 양허세율이 너무 높게 설정: 사진용 필름(47%), 오토바이(45%), 비디오 및 오디오(30%) 등
關稅割當	WTO 가입 즉시 일부 품목 TRQ 폐지하고 관 세만의 수입규제로 전환	TRQ품목의 쿼터 발표, 非국영 무역기업에의 배정 실시 (2002.2)	- TRQ 대상품목의 축소 - 쿼터초과분에 대한 과도한 高관세

항목	WTO 가입 합의사항	이행 사항	잔존 무역장벽
反 덤 핑 · 相 計 關 稅	· 反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WTO협정에 부합하도록 개정 · 중국을 15년간 非市場經濟國으로 취급하는 특례 인정	· 반덤핑 조례와 반보조금 조례를 분리 실시 (2002.1) · 反덤핑 관련기관으로 산업피해조사국(SDPC 과 수출입 공평무역국(MOFTEC)을 설립 · <反덤핑조례> 시행 (04.6)	· 중국 반덤핑조례의 報復措置규정의 WTO협정과 배치 · WTO가입전 반덤핑 조사건에 대한 투명성·일관성 유지 필요
세 이 프 가 드	· WTO협정에 부합한 Safe Guard 규정 제정 · 輸出自律規制 등 회색조치의 일정기간 내 폐지 · 對中 특별Safe Guard허용	· 보장조치(세이프 가드) 조례 시행 (2002.1) 및 개정 시행(04.6) · 세이프가드 신청, 조사, 입안, 조사청문회 관련 규정 마련 (2002.3)	· 세이프가드기간 연장(2년 ->최장 10년)
補 助 金	· 수출보조금 및 국내산품 우선 사용보조금 철폐 · 농산물 수출보조금 폐지하고, 예외보조금은 농업총생산액의 8.5%로 유지 (선진국 5%, 개도국 10%)	-	· 국유기업에 대한 국유은행의 정책자금 저리 대출, 에너지·원료·노동력 제공 보장 등 · 공업용 탄산소다, 목재제품, 섬유유리, 자동차 유리, 강철 등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우려
輸 出 許 可 制 度	· 수출금지, 제한 및 비자동승인 품목을 한시적으로 적용 · 비자동승인 품목은 매년 WTO에 보고, WTO 규정에 위배되는 품목은 취소	· 수출허가증 대상 품목 축소: 66개 => 54개 (2002.1)	· 쿼터 배분기관 (산업조합 등)의 자의적 배분에 의한 시장왜곡 가능성 · 산업조합의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활동 참여 강요 등
基 準 · 認 證 制 度	· 기준·인증제도의 WTO 적합성 확보, 관련 내용의 TBT위원회 통보 · 認證마크의 통일, 수입품과 국산품의 同一 마크 적용	· 인증기관을 통합하여 통일적인 관리 실시; 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 · 強制認證制度(CCC) 도입, 인증마크 통일	· 지방 심사인증기관의 독자적인 기준 적용에 따른 불투명성 잔존

항목	WTO 가입 합의사항	이행 사항	잔존 무역장벽
貿易 關 聯 投 資 措 置	· TRIM협정 준수 : 부품 현지화 요구, 수출입 균형 요건, 수출요구 및 기술이전 요구 등 폐지 · 자동차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정부 허가권한 확대 · 자동차 엔진 제조에 대한 외자출자 규제 (50%) 폐지	· 외국인 투자 관련법 수정 ; 부품 현지화, 외환수지 균형, 생산계획 보고 의무요건 폐지 (2000.3~2001. 3) · 外國人投資產業指導目錄 수정 (2002.4) ; 장려분야를 186개에서 262개로 확대, 한분야를 112개에서 75개로 축소	· 자동차, 휴대전화 분야의 로컬 콘텐츠 요구 잔존 · 시장개방 약속표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의 출자 규제 잔존
知的 財 產 權 保 護 制 度	· WTO의 TRIPs협정 준수, 내국 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약속 ·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의 개정 약속 ; 손해배상의 적정화, 차별제도 정비, 행정조치 화, 교육 · 계몽 강화 포함 · 지방에서 발생한 외국인 관련 지재권 침해에 대한 법집행도 國家著作權局을 경유	① 특허법 (2001.7 개정), 실시 세칙 개정 (03.2) ② 상표법 (2001.12 개정), 시행령 (2002.9 개정) ③ 저작권법 (2001.10 개정) ④ 기술수출입관리조례 (2001.12 개정) ⑤ 집적회로(IC) 설계보호 조례 (2001.10 발효) ⑥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2001.12 개정) ⑦ 2003년 주요 지재권 보호조치 강화 ⑧ 세관의 지적재산권 보호조례 시행 (04.3)	· 최근 모방품 · 해적판에 의한 침해 심화 : 중국내 유통 소프트웨어의 94%가 해적판 · 국제적인 저작권 침해 사건과 국내 사건에 대한 관할기관의 차별 · 재판소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구제신청전 당사자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어 신속한 권리행사가 침해됨.
流 通 業	① 都賣業 · 가입후 2년내 외자 다수지분, 3년내 100% 외자 허용 · 지역제한, 수량제한은 가입후 2년 내 철폐 ② 小賣業 · 가입후 2년내 외자 다수지분, 3년내 외자비율 규제 폐지 · 현재 연해 11개 도시만 허용, 가입시 2개 도시, 2년내 모든 省都 및 重慶, 寧波 개방 · 프랜차이즈는 가입 후 3년 내 지리적 제한, 외자비율 제한 철폐 ③ 貿易業 · 가입 후 2년 내 중국 내 생산품의 중국 내 유통 개방, 외자 다수 지분 허용 · 가입 후 3년 내 출자비율 제한 철폐, 지리적 제한 철폐	· 外國人投資產業指導目錄 수정 (2002.4)하여 유통분야의 개방 계획을 구체화 · <외성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시행(04.6.1) - 대리업무,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의 경우 경영기간은 30면(서부는 40면), 외자 지분 49% 초과 불과 - 소매기업의 경우 04.12월부터 성, 자치구, 직할시, 경제특구, 경제개방도시에서는 매장 수제한 등 폐지 - 도매업 지역제한 폐지 (04.6)	· 로얄티 수취 제한 : 외자기업의 로얄티는 판매액의 0.3%로 제한

항목	WTO 가입 합의사항	이행 사항	잔존 무역장벽
통신	① 國內・國際電話 ・가입후 3년 내에 上海, 廣州, 北京에 한해서 25% 이하의 외자출자를 허용 ・5년 내 14도시 추가 및 외자비율 35%허용 ・6년 내 지리적제한 철폐 및 외자 49% 허용 ② 移動通信 ・가입즉시 3대 도시에 한해 25%이하 외자 허용 ・1년내 14개 도시 개방 및 외자비율 35% 허용 ・3년 내 외자비율 49% 허용. ・5년 내 지역제한 철폐 ③ 附加價值서비스 ・가입즉시 3대 도시에서 30% 이하 외자 허용 ・가입후 1년 내 14개 도시 개방 및 외자비율 49% 허용 ・2년 내 지역제한 철폐 및 외자비율 50% 허용	・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條例 시행 (2002.1), 외자 통신기업 설립 요건, 출자 제한 등을 명문화 ・통신업무 허가관련 심사, 발급 절차, 기준, 신청서류, 심사기간 등 구체화 (2001.12) ・外國人投資產業指導目錄을 수정(2002.4)하여 통신 분야의 출자 제한 및 지역제한 완화 계획을 구체화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규칙> 시행(00.9), 인터넷 관련 외자 합자를 허용 ・<통신업무 분류 목록> 시행 (03.4)	・인터넷 서비스를 부가가치통신 서비스 로 분류하여 외국기업의 중국내 상업용 웹사이트 구축을 제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사용자 정보 및 거래내역)요구로 정보 오용 우려
보험	① 生命保險 ・3년 내 지역제한 철폐, 외국인・중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단체보험, 연금보험 허용 ② 非生命保險(손해보험 등) ・가입즉시 외자 51%, 2년 내 외자 100% 허용 및 중국기업 대상 손해보험 허용 ・3년 내 지역제한 철폐 ③ 保險仲介 서비스 ・가입즉시 외자비율 50% 합자 허용 및 5개 도시 개방 ・2년 내 10개 도시 추가 개방 ・3년 내 지역제한 철폐, 외자 51% 허용 ・5년 내 외자 100% 허용	・<外資保險公司管理條例> 시행(02.1), 실시세칙 시행(03.7), 외자 보험기업 설립요건 등 구체화 ・<外資保險公司管理條例>개정(04.6) - 외자지분 50%이하 제한, 해당 성・시・자치국내 영업으로 제한 ・外國人投資產業指導目錄을 수정(2002.4), 보험분야의 출자제한 완화 계획 구체화	・개방일정에 따른 충실한 이행 촉구 ・03.12월 현재 10개 도시 중 복주, 하문, 영파, 심양 미 개방
銀行	① 外換 業務 ・가입 즉시 지역제한, 고객제한 폐지 ② 人民幣 業務 ・점진적인 지역 철폐, 5년 내 지역 제한 철폐 ・2년 내 중국기업, 5년 내 중국 개인 대상 서비스 제공 허용 ③ 기타 ・수량제한 금지 ・5년내 외자비율 제한, 업무, 법인형태 제한 폐지	・인민폐업무 개방 - 深圳, 大連 (01.12) - 광주, 주해, 청도, 남경, 무한(02.12) - 제남, 복주, 성도, 중경 (03.12) ・外資金融機關 管理條例 및 實施條例 수정 (2002.2), 2차 수정 (2004.9) ・<자동차금융기관관리방법> 시행 (02.10), 실시세칙 시행 (03.11) - 외자 100% 또는 합자 자동차 대출 서비스사 허용 ・외자 100% 또는 합자 금융리스 회사 설립 허용 (01.12)	・소재지이외 지역에의 구좌개설 금지에 따른 외자은행의 마케팅 제한 ・인민폐부채를 외화부채의 50%이하로 유지토록 제한하여 인민폐 업무 확대에 애로 ・외자은행의 자산운용에 대한 지나친 규제

항목	WTO 가입 합의사항	이행 사항	잔존 무역장벽
運送 · 物流	· 가입 후 3-6년이 경과한 후 창고, 도로화물, 철도화물, 화물 회송 서비스 진출 자유화	· 外國人投資産業指導目錄에서 운송·물류분야 개방 계획 구체화 · <외상투자물류기업의 시범설립사업 전개의 문제에 관한 통지> (02.7) - 외자 50%, 북경, 천진, 상해, 중경, 절강성, 광둥성, 심천특구 시범 시행 · <외국투자 국제화물운수대리업 관련규정 > 시행(03.1), 실시세칙 시행 (04.1) - 외자 75% 허용, 최저자본금 100만\$이상, 지점개설시 추가자본금 12만\$ · 화물 Forwarding 대리서비스에 관한 개방 약속 (03.12)	· 자본금 규제, 지분제한, 지역제한
教育 · 訓練	· 합자·합작에 의한 고등교육 분야 외국인 투자 허용	· 外國人投資 産業 指導目錄에서 고등교육 기관은 장려업종으로 중등교육기관은 제한업종으로 분류 개방 · <중외 합작학원 설립조례> 시행 (03.9.1 시행)	· 교육분야의 운영의 자율성 제한 (중국 대학의 호스트 및 파트너쉽) · 훈련시장의 비제도화
法律 서 비 스	· 가입후 1년내 외국계 로펌의 대표사무소 설립 관련 수량 및 지역제한 철폐	· 外國法律事務所 駐中 代表機構 管理規定 시행 (2002.1) · 법률자문 서비스는 제한업종으로 제한적 개방	· 외국 법률회사의 중국인 변호사 고용 금지 · 中國法 관련 자문 금지
觀光 · 旅行	· 합자 여행사 허용, 6년 후 100% 외자 여행사 허용	· 여행사 관리 규정을 통일, 중국 기업과 외자 기업의 동일한 법규 적용	· 중국인의 해외여행 대상 영업 금지 · 外國人投資 여행사의 중국 내 지사·사무소 등 분기구 설치 금지
會計 · 管理 諮 問	· 가입 즉시 영리활동이 가능한 대표사무소 설립 허용 · 가입 즉시 외자 다수지분 합자기업 설립 허용. 6년 후100% 세무 및 관리자문 외자기업 설립 허용	· 합자 또는 공동운영에 의한 회계 및 회계 감사 서비스를 외국인 투자 장려업종으로 분류(2002. 4) · <외국인투자컨벤션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04.2.13일 시행)을 통해 합자, 합작, 독자의 투자컨벤션회사 설립 허용	· 회계규정 및 기업의 회계 처리가 국제 관행과 불일치

항목	WTO 가입 합의사항	이행 사항	잔존 무역장벽
廣 告	· 가입 2년 내 외자 다수지분 합자 허용, 4년 후 외자 100% 허용	-	· 비교광고의 금지에 따른 중국내 마케팅 제한
內 國 民 待 遇	· 외국인, 외국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에 內國民待遇 부여 · 내국민대우에 관한 WTO 규정과 불일치하는 모든 법규·규칙 적용 중지	-	· 수입품 차별 법령 개정 지연 · 정부조달법의 WTO 내 국민대우 규정 위배 가능성
競 爭 政 策	-	· 반독점법 제정 추진	· 국유기업 독점 산업 시장진입 제한 (통신등) · 지방 보호주의에 따른 유통 제한
透 明 性	·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간물 및 조 회소 설치	· 정부 규정·시행규칙의 회람·공포 확대 (웹사이트) · 무역·투자관련 법규·조치 문의센터 설치	· 지방정부 정책·조치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 · 내부문건(지침, 의견) 공개
統 一 的 行 政	· WTO협정의 모든 관세지역 적용 · 중앙 및 지방정부도 WTO 의무 준수	-	· 중앙과 지방 법·규정의 상충 사례 존재 · 지방정부 제도운용의 통일성 확보(가 공무역 보증금대장제도, 부가가치세 환급 등)
司 法 審 査	·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 실시	· 외국관련 상업적 소송안전 전담 법원 지정 (2002.2) · 법관의 직업윤리 기준 준칙 제정(2001.10)	· 사법심사 중립성 미흡 · 정부 관료의 자의적·선별적 법·규정 해석 · 정치적 압력, 경제적 이익에 의한 판정의 공정성 저해 · 중국국제경제무역조정위원회(CIETAC) 규정 (중재자 선택 자율권, 절차규정) 개선 필요
政 府 調 達	· 중국, WTO 정부조달협정 옵저버 참여 (2002) · 외국으로부터의 조달 시 최혜국대우 약속	· <정부조달법> 시행(03.1.1)	· 정부조달분야의 내국민대우 규정 준수 필요 · 정부조달협정 논의 참여
勞 動 · 福 利	-	-	· 노동관련 법규 적용의 투명성과 통일성 결여 · 戶口制度에 의한 노동이동의 경직성
腐 敗	-	-	· 부패로 인한 상업적 계약 이행 未보장

ABSTRACT

A Study on the Strategies of the Korean Enterprises for Investments in China

- Focused on the Reform Measures for Investment Strategies of
Small & Medium Companies -

Kim, Min Soo

Major in Business Management for Digital Small & Medium Companies

Graduate School of Digital Small & Medium Business Management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strategies for Korean small & medium companies' successful advancement into China and thereby, provide for some data useful to establishment of their investment strategies for the Chinese markets. For this purpose, it was deemed necessary to carefully analyze not only the factors limiting our companies' investments in China but also institutional, policy and legal aspects of the investment strategies.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ed concepts and diverse theories of overseas investments and strategies and methods for overseas direct investments, and thereupon, analyzed the Chinese environment for foreign investments. Then, this study examined the Korean companies' investments in China in terms of performances and types, and thereby,

suggested some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our small & medium companies investing in China.

In order to help our Korean small & medium companies to invest directly and successfully in China, the following investment strategies were put forwards;

First, for a successful advancement into the Chinese markets, it is essential to analyze the investment environment and evaluate the feasibility of the investment thoroughly in advance, and thereupon, design a detailed invest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optimize the scale of investment project.

Third, in order to construct a realistic global network, it is deemed necessary to make a more positive and drastic investment plan rather than a negative or conservative plan simply avoiding the trade barriers or making use of the cheap labor.

Fourth, given the recent conditions, it is desirable for the Korean companies to invest their money in China independently.

Fifth, it is also necessary to invest in China with a goal of complete localization of the business. In a shorter term, it is required to localize the human resources, raw and subsidiary material supplies, marketing, financing and R&D efforts appropriately depending on companies' capacity, attributes of each business, local investment conditions, local market conditions, etc.

Now, since advancement into the Chinese markets is not a choice but an opportunity for growth of business, our small and medium companies should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Chinese markets, and thereupon, should design an effective investment strategy through a perfect analysis of segmented Chinese markets.